

2018 제5회 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

별별화성
2 2 4.9.13

결과보고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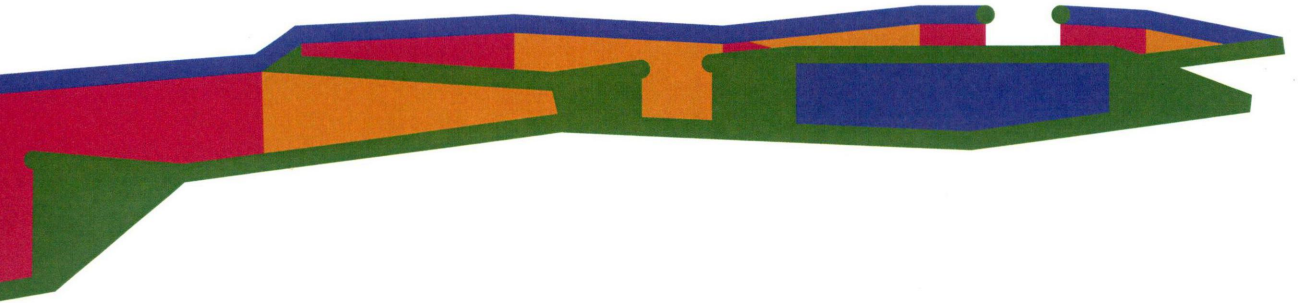
2018 제5회 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

별별화성
2 2 4.9.13

결과보고서



페스티벌31

목차

Part I. 화성에서 꿈꾼 상상 ____ 4

1.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축제를? ____ 5

2.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이 정해지기 까지 ____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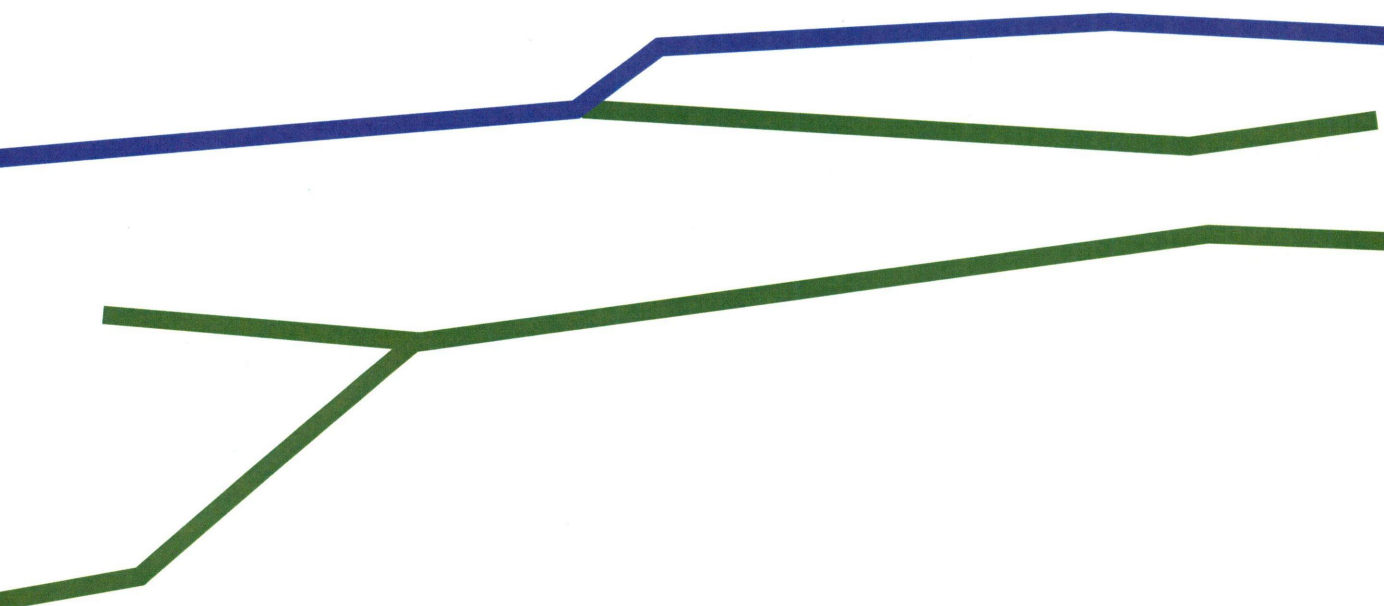
3. 생활문화동아리 워크숍 ____ 9

4. 별의별 동아리 ____ 19

5. 別別공연 ____ 54

6. 특별한 전시/체험 ____ 70

7. 각별한 운영/후생 ____ 79



PartII. 화성에서 이렇게 논다____82

1.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의 상징물____83
2. 축제 한눈에 보기____87
 - 1)別別공연-리허설____87
 - 2)別別공연-뭔가 다른 공연____92
 - 3)別別공연-뜻밖의 공연____114
 - 4)만들어노는 별★놀이터____142
 - 5)직조짜기 별별체험____146
 - 6)人★사진체험____147
 - 7)특★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____148

PartIII. 별별스토리____152

1. 네트워크 파티____153
2. 비하인드 스토리____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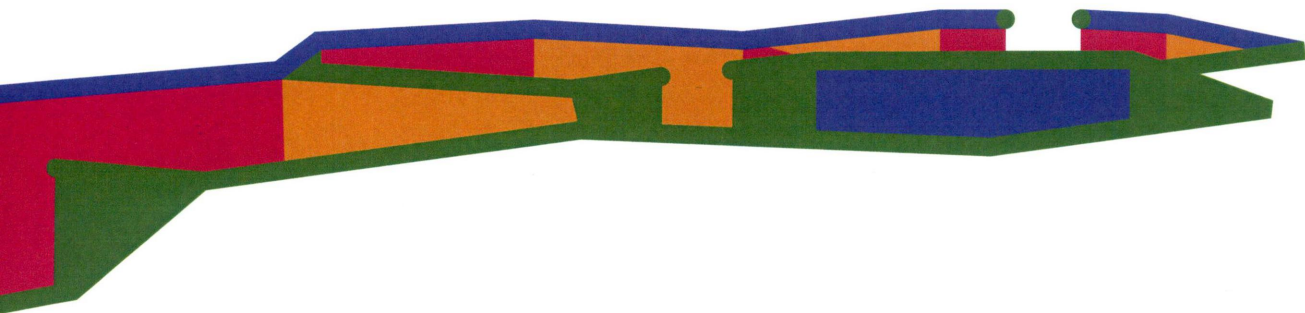
PartVI. 페스티벌31 개요 및 성과____164

1. 사업개요____165
2. 추진성과____168
3. 홍보____173
4. 만족도 조사 결과____204

페스티벌키벌벌

Part I.

화성에서 꿈꾼 상상



1.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축제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 '도연합회')에서 <페스티벌31>은 항상 '숙제' 같은 사업이다. <페스티벌31>의 당초 기획 의도는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모아보는 것'과 문화원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기획이라고 생각했다. 축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문화원이 '생활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는 꽤 당혹스러웠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목적사업¹⁾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전통문화와 역사 부분이 주된 목적사업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지방문화원이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라는 주문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지역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면 '지방문화원은 '생활문화'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목적사업', 즉 지역문화의 창달, 활성화에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제는 <페스티벌31>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페스티벌31>은 경기도 31개 시, 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의 활동을 공유하는 축제한마당으로 지역의 특성과 일상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예술가가 협력하여 펼치는 지역과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축제이다. 또한 도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축제이다.

<페스티벌31>은 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한 활동을 엮어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또한 지역의 일상성이 전통-지역특성-향토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지역의 인물 등 유·무형의 일상적인 자원이 지역의 특성을 만들고, 향토문화를 형성한다고 볼 때 생

활문화는 지역의 특성이자 향토문화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2018 페스티벌31 in 화성>에서는 2018년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이라는 이름으로 변경, 지역의 일상을 드러내기 위해 지역 사람, 지역의 커뮤니티(동아리)에 주목하였다. 전체적인 방향 설정과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에 30여 개의 화성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모였다. 장르, 소속, 연령, 모임 형태, 모임 이유 등이 모두 다른, 그야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분리된 개인과 개인, 동아리와 동아리가 협력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실험을 시작했다. 지역문화원과 기초문화재단, 복지관, 평생학습원(센터)등에서 자발적 생활문화동아리들과 연계하고 전문기획자, 큐레이터, 예술가와 협력하지만 문화원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3단계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함께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지역문화'가 무엇인지 토론했다. 동아리 한 팀, 한 팀에 주목하며 그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들이 느끼고, 배우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기를 강요하는 도시의 삶에서 화성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나보고자 했다.

앞으로 도연합회에서는 <페스티벌31>이라는 구조를 통해 문화원이 '다른 지역과 다른,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문화예술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을 넘어 전국 지역문화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주 특별한 생활문화축제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1.10.22]

제8조의 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2.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이 정해지기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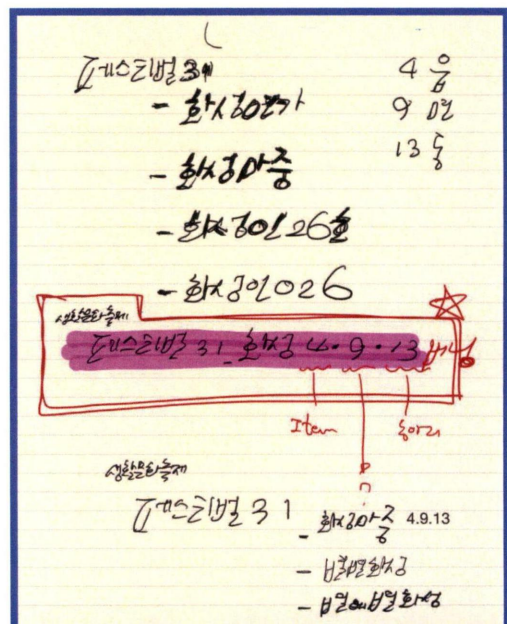
<페스티벌31>은 이름에서 나타나듯 경기도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31개의 문화원을 의미한다. 문화원 한마당이란 컨셉으로 시작된 사업에 붙인 축제 명이다. 경기도에 설립된 문화원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내고 일 년에 한 번은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즐거운 자리이고자 했다.

<페스티벌31>이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개최지역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문화원은 지역에 기반 한 활동이며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고민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 이번 2018년 행사다.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로 축제 명이 조금 길어졌다.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동아리들을 초대해 페스티벌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몰랐던 옆 동네 동아리들과 인사하고, 콜라보 공연을 위해 같이 만나고, 전문연주가들의 조언으로 새로운 작품에 도전해보는 등 나름의 일들을 도모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조금 내어주고, 조금 양보 받으면서 공연을 만들어나갔고, 아직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한 팀들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축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생겼던 순간이었다.

<별별화성4.9.13>이란 이름은 기획단의 긴 난장 토론 끝에 생겨났다. 생활문화축제라는 제목을 새로 붙이고자 할 때 어떤 컨셉으로 전환되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이 지루해지는 것은 매일 동일



한 행위들이 반복되는 일상성 때문이다. 엄밀히 따지면 어느 순간도 똑같은 순 없으나 일반적으로 일상이 돌아가는 패턴은 동일한 것의 반복이다. 지루하고 심심한 일상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 안에서다. 거창하고 특별한 이벤트는 한두 번일 뿐이며 내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상의 지루함이 없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때 일상은 비일상으로 전환된다. 변화의 크기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활에 활력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다. 화성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모여서 소박하지만 즐거운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나의 참여로만 들어지는 축제이길 바랐다. 그 첫걸음이 '워크숍'이었고, 두 번째 시도가 '동아리북' 제작이었다. 그리고 10월 3일에 진행된 '별별화성4.9.13'축제였다.

'동아리북' 제작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를 환대하는 초대 방식 중 하나였다. 무대공연을 위해 출연해 줄 손님(guest)이 아니라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cast)로서, 축제가 끝나면 화려한 무대라서 즐거웠다가 아닌 마을 사람들과 만나 즐거웠다는 느낌이 더 많아졌으면 했다. 만나면 즐거울 것이고, 다시 또 만나 무언가를 작당해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과정으로 남기를... 문화는 사람들의 관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별-화성(火星)이 다시 화성(火星)-화성(華城)으로 이어지면서 동음이의의 효과와 '별'이라는 어떤 특별함을 연상하도록 단어를 조합했다.

또한 별별=별의별이라는 언어적 의미를 빌려와 일상과 다른 갖가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네이밍이다.

그리고 4.9.13은 화성시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읍면동 개수이다.

화성시 전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모두 모여지기를 기대한 표현이다.

최종적으로 <별별화성4.9.13>은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으로 화성지역 사람들의 '따로 또 같이'의 삶을 표현한 것이며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은 개최지역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극대화시켜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가가 협력하여 동아리 중심의 지역특성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표현한 축제로 정리되었다.

3. 생활문화동아리 워크숍

① 생활문화동아리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1차. 생활문화동호회 대상 워크숍

일시 : 2018. 5. 24 (화)

장소 :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대상 :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화성문화재단관계자

목적 : - 페스티벌31 기본방향 공유 및 화성시 내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파악
- 생활문화동호회 의견 수렴

2차. 평생학습기관 대상 워크숍

일시 : 2018. 5. 10 (목)

장소 : 화성문화원

대상 : 화성시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기관 담당자

목적 : - 페스티벌31 기본방향 공유 및 화성시 내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파악
- 화성시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의견 수렴

지역중심으로 축제의 성격이 변경되면서 무엇보다 지역 내 동아리의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해 향후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화성문화재단에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말에 생활문화동아리가 주체가 되는 자발적 축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재단에 속해 있는 생활문화동호회를 만나보니 동호회 내에서 이미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해왔고, 축제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건 공간과 재정지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던 공연은 단지 개별적인 동아리가 같은 곡을 각자의 버전으로 연습해 한 무대에 서는 것에 불과했고,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동아리 역시 ‘페스티벌31’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가고 싶은 욕구와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기량을 높이고 싶은 열망을 보였다.



1차 생활문화동호회 대상 워크숍

하지만 생활문화동호회만을 대상으로 축제를 꾸리기엔 한계가 있었다. 지금껏 지역 내에서 알게 모르게 존재하던 재단은 '생활문화', 문화원은 '전통문화'라는 선긋기를 지우고 화성의 지역문화를 바라보고 가기 위해선 축제의 대상이 지역 내 모든 동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에서 60년가량 터줏대감 역할을 한 문화원이 지역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제대로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고자 대상을 주민센터, 문화의집, 복지관 등 평생학습기관 소속 동아리로 확장했다.

워크숍에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 소속의 동아리 대표와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생활문화동호회처럼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서인지 '페스티벌31'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다. 공연이나 전시 자체에 욕구가 컸으며 타 동아리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원했다. 봉담주민자치센터 모듬북 동아리의 경우는 타 동아리 공연을 보고 싶는데 정보가 없어서 알 수 없다며 오히려 문화원 동아리 공연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1차 생활문화동호회 대상 워크숍과 동일하게 나온 의견은 콜라보레이션 공연 시 여러 동아리가 함께 연습할 장소가 없어 각자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차례 화성지역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나 의견수렴 후, 공연은 동아리간 콜라보레이션 공연과 자체 공연 두 쪽지로 진행하며, 전시는 기존처럼 작품 전시 형태가 아닌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형 전시로 진행한다는 기본방향을 잡았다. 또한 가장 필요로 했던 연습공간은 문화원 공간을 열어주되 어려울 경우 문화원에서 비용과 대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2차 평생학습기관 대상 워크숍



② 참여 동아리 확정을 위한 워크숍

3차. 생활문화동아리 통합 워크숍

일시 : 2018. 6. 9 (토)

장소 : 화성문화원

대상 :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

목적 : 페스티벌31 프로그램 공유 및 관내 동아리 간 교류의 장 마련, 참여 동아리 모집

지난 1,2차 워크숍 때 만났던 생활문화동호회 소속 동아리와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및 1,2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던 화성문화원 소속 동아리를 비롯하여 '페스티벌31'에 관심 있는 화성시 관내 동아리까지 총 32개 동아리가 모였다.

통합워크숍 일정		6월 9일(토) 12:00~16:30	
시 간	소요시간 ^(분)	내용	비고
12:00~12:10	10	○ 등록	
12:10~13:10	60	○ 식사 및 정리	
13:10~13:20	10	○ 취지 및 일정안내	
13:20~13:50	30	○ 아이스브레이킹	
13:50~14:20	30	○ 페스티벌31 컨셉 및 기본방향 공유	
		○ 참여 가능 세부 프로그램 안내	
14:20~14:50	30	○ 동아리 소개서 작성하기 (동아리명, 인원수, 연령대, 연습시간, 연습공간, 주요레퍼토리 등)	
14:50~15:40	50	○ 콜라보레이션 짬할 동아리 탐색하기 (소개서 둘러보기)	
		○ Q&A	
15:40~16:10	30	○ 희망 동아리 짬하기	
16:10~16:30	20	○ 마무리, 다음 일정 안내	

위와 같은 일정으로 장장 4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의 목적은 페스티벌31에 대한 방향 공유와 참여 유도를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폐쇄적인 생활문

화동아리 활동을 확장시켜 동아리 간 콜라보레이션 공연 및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영욱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일종의 빙고 게임으로 빙고판에 숫자 대신 태어난 달, 좋아하는 계절, 동아리활동 외 취미 등 자신의 정보를 기록 한다. 60여 명의 참여자 중 자신과 같은 내용을 기록 한 사람들을 만나면 빙고칸을 지울 수 있다. 동아리로 묶여있던 관계의 관성을 깨는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동아리 스스로 콜라보레이션 가능한 동아리를 찾도록 동아리 별로 소개 및 탐색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동아리 중 페스티벌31의 취지와 컨셉에 동의하는 동아리가 끝까지 남았고, 그 중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가능한 팀 8팀, 단독공연을 원하는 팀 9팀,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 운영 1팀이 자발적으로 페스티벌31에 참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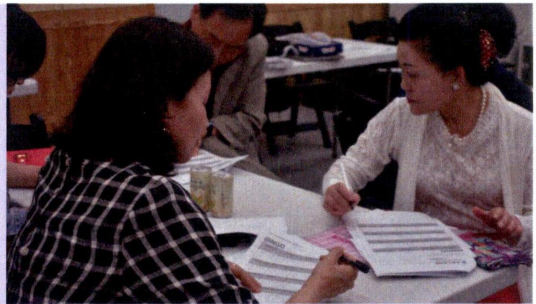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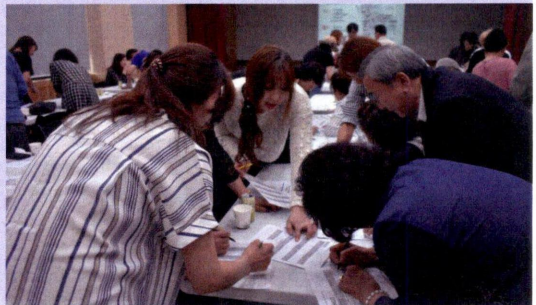
3차 생활문화동아리 통합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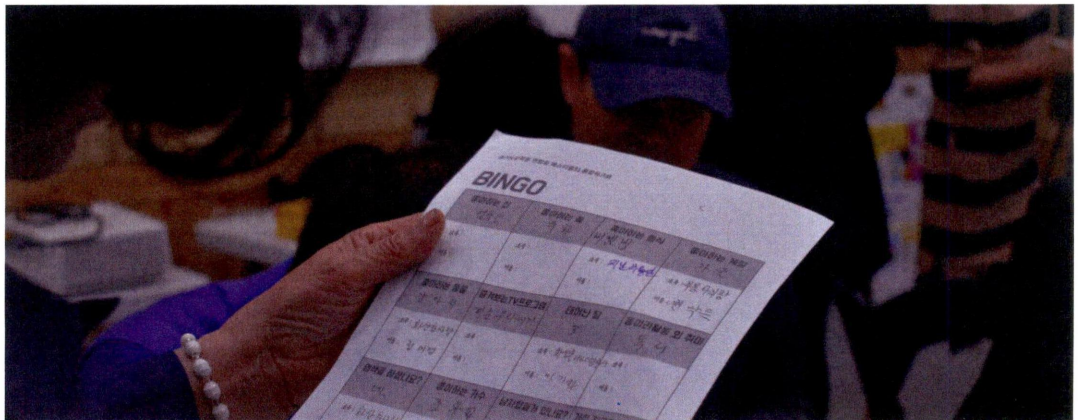
아이스브레이킹 진행 중인 윤영욱 퍼실리테이터



빙고게임 진행 중인 참여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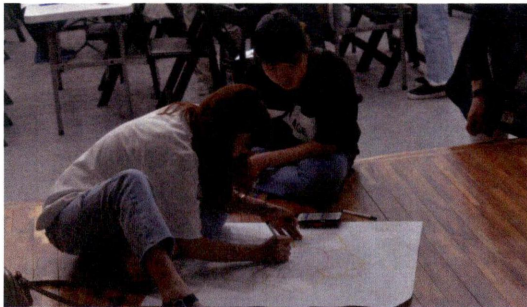
빙고지 작성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

일생일대의 고민





동아리 소개서 작성



열정적인 동아리 소개서 작성
수줍은 동아리 소개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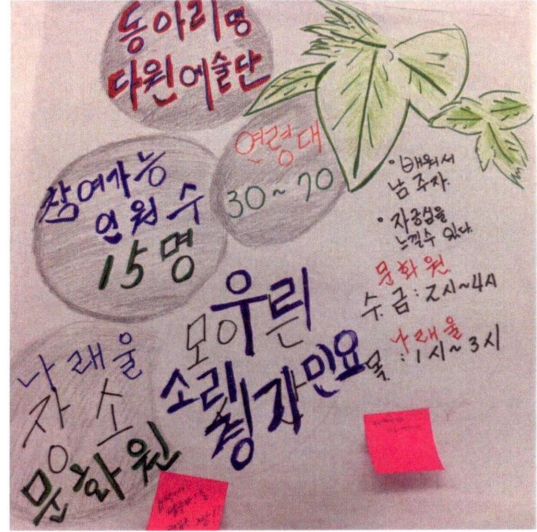


동아리 소개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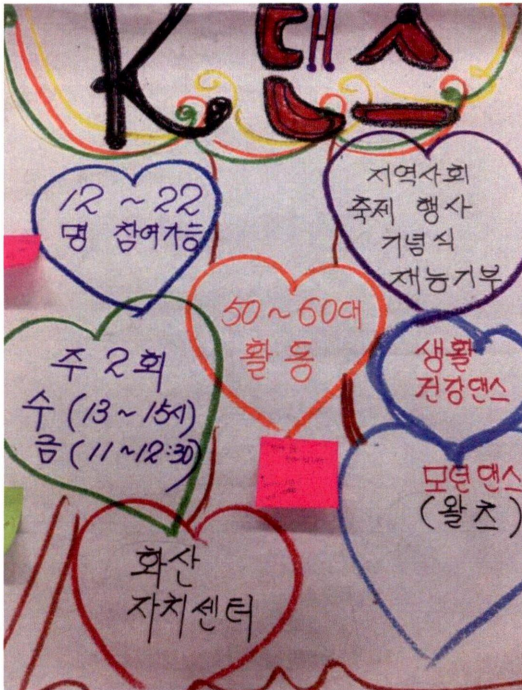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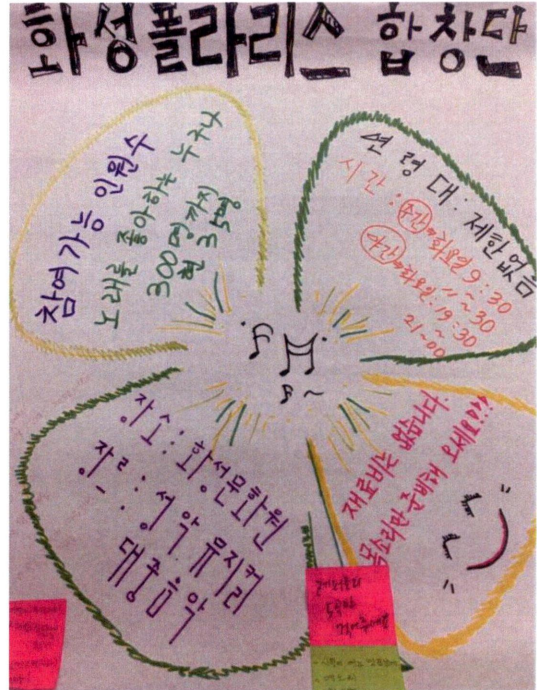
동아리소개서-바란다



동아리소개서-다원예술단



동아리소개서-K댄스



동아리소개서-화성플라리스 합창단

③ 레퍼토리 기획 워크숍

4차. 동아리 + 예술가 워크숍

일시 : 2018. 6. 16 (토)

장소 : 화성문화원

대상 : 참가 확정 동아리

목적 : 프로그램별 동아리 확정 및 세부레퍼토리 논의

지난 통합워크숍 때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원했던 팀 중 먼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 1순위, 2순위를 뽑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신희영 공연P.M이 1차 콜라보 팀을 구성하였고, 이번 워크숍을 통해 팀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레퍼토리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동아리 뿐 아니라 참여 예술가도 함께 참여했다. 음악감독 이상진, 기타리스트 고정훈, 공연P.M 신희영, 전시/체험P.M 민병은이 각 팀별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의견 조율 및 구성 제안 등의 역할을 했다.

전시/체험에서는 사진 동아리가 축제 현장의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인화하여 전시하면 시민들이 자신이 나온 사진을 가져가거나 사진 잘 찍는 법을 가르쳐주는 시민 참여 부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시 공간에서 동아리들의 작품을 큐레이터가 전시했었다면 올해는 동아리와 시민이 만나는 이벤트 요소를 추가하여 축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개 1차 콜라보 팀 구성(안) 대로 진행되었으나 각 동아리 간 의견조율을 하다가 콜라보 공연을 포기하고, 개별 공연으로 변경한 팀도 있었다. 기존에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합창, 사물놀이, 벨리댄스, 색소폰 동아리가 연합 공연을 하겠다고 했으나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공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페스티벌31의 취지와 맞지 않았고, 동아리 팀 역시도 자신들만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 벨리댄스 팀과 색소폰 팀은 단독 무대로, 합창과 사물놀이는 전문예술인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무대를 만들기로 했다.

콜라보레이션 공연에 있어서 중요했던 건 무엇보다 동아리의 자발성이다. 새로운 경험이고,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일지라도 다른 동아리 또는 예술가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에서 가장 큰 성공 요인이기 때문이다. 워크숍이 끝난 뒤에도 몇 번의 전화통화와 만남을 이어간 후에야 최종 팀이 정해졌고, 팀별로 일정을 잡아 연습을 진행했다.



음악감독 이상진과 벨칸토발성동호회 & 폴라리스 합창단



기타리스트 공정훈과 하모니카협회



민병은 P.M과 화성 빛그림 사진동아리



신희영 P.M과 바란타 & 드림걸즈

4. 별의별 동아리

뭔가 다른
공연

화성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쇼케이스

신나라실버밴드

타니아벨리

완밸리

진안다람무용단 & 팔탄은누리무용단

봉담호수무용단 & 화성실버무용단

K댄스

노노난타



원가 다른 공연

신나라실버밴드

“

복지관에 색소폰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레미파술라시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색소폰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만 했죠.

한 날은 한 사람이 어디서 조금 배워왔어요. 그러더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회장님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은 평생 음악을 해오신 분인데, 우리들 이야기를 듣고는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5명, 7명 그렇게 회원이 늘어서 지금은 22명이 됐어요.

2012년부터 열심히 활동을 해서인지, 이제는 서로 가입하고 싶어 하는 동아리가 됐어요.

그래서인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상설연습실을 마련했어요.

신인 회원 교육과 기존 회원 합주 시간, 개인 연습도 가능해서 활동이 더 많아졌습니다.

”



“

동아리 생기고 초창기에 지역 대학에
공연하러 갔었어요.
우리 동아리는 국민의례 음악이나
애국가도 연주해서 행사 개회식에도 많이 초청받아요.
사회자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회장님과 연주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분들이
귀가 어두워서 사회자 말을 못 들었지 뭐예요.
제대로 들은 저만 안절부절했어요.
전 그때 초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뒤에 사회자가 ‘바로’라고 말했는데,
선배님들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호호호호호 그때는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



“

우리는 공연 관객에 따라서 레퍼토리를 정해요.
젊은 층인지, 여성들인지, 의식 행사를 하는지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 필요한 음악이 다르거든요.

”

원가 다른 공연

라니아벨리



“

항남읍주민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으로 2년 전에 시작했어요.

동아리가 된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연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수업 시간 외에도 모여서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됐어요.

발표회 이후 이런저런 공연에 출연도 하게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 더 끈끈한 것 같아요.

저희는 모여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자체가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모여서 춤을 추고 나면 다음 일주일을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어요.

”



“

벨리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화려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일상에서 화려한 의상, 화장을 하진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무대에 서는 일도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그런데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 메이크업을 하고 공연하는 것을 즐기고,
 그 자체로 자기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를 좋아하고,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요.
 특히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에게요.
 여자들은 출산 후에 뱃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벨리를 하면 뱃살이 조금은 빠져요.
 장운동도 잘되고, 걸도 좋아지고, 속도 좋아지고, 여자 몸이 좋아진대요.

”



“

벨리 의상이 노출이 좀 있잖아요.
 예전엔 수업 듣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공연은 못 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연에 참여 못하는 회원들이 있었어요.
 동네 창피하다고.
 그런데 벨리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가족들의 반대도 없어지고,
 관객들의 편견이나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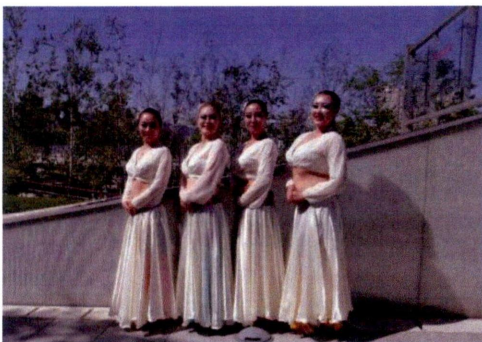




원가 다른 공연

퀸벨리

“ 2015년에 시작한 동아리예요. 화산동주민센터에 기초반 강좌가 있어요. 강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거나 실력이 늘어난 사람들이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30대에서 60대 여성 회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춤을 배우고 출 때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동아리라는 자유로운 취지하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 무용이나 트로트나 다양한 장르와 접목한 작품을 많이 해요. ”



“

딸이 먼저 벨리를 배웠어요.
딸이 집에서 연습하는 걸 도와주려다가 저도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자기보다 잘 못 춘다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이젠 엄마가 무대에 서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요.
딸도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데요,
드림걸즈라는 동아리예요.

”

“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남한 음악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아리랑이나 중국에서 거주했던 분들이 알만한
 첨밀밀 같은 음악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했어요.
 관객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음악을 듣고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뭔가 모를 몽클한 감정이 드는 공연이라 아직도 그분들과 만났던 기억이 생생해요. ”



“ 벨리는 누구나 출 수 있어요.
 유연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관절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발달하기 어려운 근육이 발달해서 운동으로도 좋아요.
 특히 나이 든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요일금이 없어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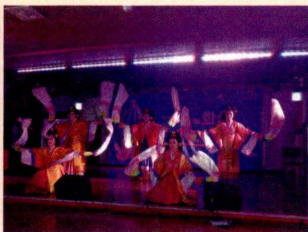




원가 다른 공연

진안다람무용단 & 팔탄온누리무용단

“ 팔탄온누리무용단은 팔탄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4년 정도 함께 배웠고, 동아리가 된 지 4년 정도 됐어요. 동아리가 된 이후 신입 회원들도 있어요. 팔탄은 시골 지역이어서 농사짓는 회원들이 많아요. 제철 수확물도 나눠먹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같아요. ”



“ 콜라보 연습이 어렵지 않고 재밌어요. 매일 같이 하던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서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니까 새롭고 뜻깊어요. 같은 한국무용을 배운 사람들끼리라 그런지 단합이 잘되고, 여러모로 서로 이해도 잘 하고 즐겁게 잘 하고 있죠. ”



“ 진안다람무용단은 진안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로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을 동고동락해서 우리도 가족 같아요.
 멀리 사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자매같은 사이예요.
 모이면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수다로 풀어내는데,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위안이 돼요.
 그리고 언니들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

“ 한국인의 한이 서린 무용이잖아요. 마음을 울린다 그럴까.
 저는 국적이 미국인데, 4년째 한국무용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무용도 좋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고요. 미국에도 한국 무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퓨전 스타일, 변형된 춤을 배워요. ”

“ 저는 연기자예요. 연기에 필요한 춤을 취하하는데,
 가짜로 흥내만 내기 싫어서 무용을 배웠어요.
 한국 무용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한국무용에 꼭 빠져서 본업인 연기에는 소홀해졌어요.
 필요에 의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저런 운동을 해봐도 관절에 무리가 가서
 더 힘들었는데 무용은 안 하면 오히려 아팠어요. ”





원가 다른 공연

봉담호수무용단 & 화성실버무용단

“ 저희는 2008년에 시작한 봉담문화의집 봉담호수무용단과 화성문화원 화성실버무용단입니다. 사실 두 동아리의 선생님이 같은 분이세요. 배우는 내용이 비슷하기도 하고, 두 개 동아리에 다 소속된 회원도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콜라보 작품 준비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군무를 하다 보면 화합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이가 많으면 행동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춤을 배울 땐 빨리 습득이 안 되기도 해요. 두 팀이 같이 하면서 특히 대열이 바뀌었는데 자기 자리를 빨리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 괜찮아지니까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고 있어요. ”



“ 화성실버무용단의 청일점인 저는 향남두레에서
 장을 18년째 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고 이동안 선생님의 발탈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발탈을 배우면서 한국무용까지 하게 됐어요.
 사물이나 무용을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이 들어서야 여가 생활로 시작했죠.
 옛날엔 남자 무용수가 많았는데 사라져가고 있어서
 나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자 싶더라고요.
 기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



“ 초등학생 때 한국 무용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무용을 할 때 그 자태가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에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하고 싶었죠. 무용이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살아오면서 미련이 계속 남아서 탈춤도 하고 에어로빅도 했었어요.
 그래도 무용에 미련이 생기더라고요.
 50살이 넘어서야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한국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



“ 퇴직 후에 우울증이 왔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무조건 문화의집을 찾아가 봤어요.
 한국무용 프로그램을 엿봤는데, 흥겨운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걸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우울증이나 고민이 음악 속에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

원가 다른 공연

K댄스



“

2015년도에 화산동주민센터 건강댄스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공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동아리가 됐어요.

KOREAN SPORTS DANCE, KOREAN SOCIAL DANCE를 줄여서 K댄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춤을 사랑하는 50대부터 80대까지 평생회원이 55명이고요,

신입 회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정년퇴임하신 분들, 전업주부들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 있고요,

장르 특성상 상대가 있어야 해서인지 부부 회원이 많아요.”





“

우리나라는 사교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아까 현수막에 쓰여있는 걸 봤는데,

‘요즘할매 요즘할배’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전 이 ‘요즘할매 요즘할배’가 꼭 해야 할 운동이

사교(댄스)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상대가 있고, 특히 부부가 같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어요.

”



“

다양한 장르의 춤을 접하려고 합니다.

화성시민으로서 화성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고 후원도 하는데요.

저희가 공연을 하고 나면 관람객들이 찾아와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이나

춤 배울 수 있는 곳에 대한 문의를 듣습니다.

저희가 추는 춤이 대중적이라서 섭외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대중적이라서 관객들 호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원가 다른 공연

노노난타

“ 난타를 10년 전에 처음 해봤어요.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에 난타 강좌가 개설돼서 그때 처음 난타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이왕 배우는 거 공연도 해보고 대회도 나가보고

지역 사회에 보람 있는 일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동아리를 결성했죠.

2009년 2월, 60대였던 우리가 지금은 평균 나이 75세, 모두가 70대가 됐어요.”



“ 젊은 사람들이 난타하는 거 보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젊은 친구들만큼 연주가 안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나이를 안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난타배운 지 6개월 만에 대회에 나갔어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 거죠.
 처음 무대였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장소가 수원문화예술회관이었던 것 같은데 무대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무대 뒤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막상 음악이 나오고 북 앞에 서니까 연주가 되긴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무대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젠 옆도 돌아보게 되고,
 관객도 보게 되네요. ”



“ 4~5년 전에 경기도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KBS '언제나 청춘'이라는 프로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 연주하는 것도 방송되고,
 촌사람들이 KBS 스튜디오에서 연예인처럼
 방송 녹화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방송국 구경도 했어요. ”



“ 두들기다 보면 잡생각도 안 나고
 스트레스 받은 걸 북으로 분풀이도 해요.
 북 두드리는 소리 들으면
 아, 저 회원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도
 알 수 있어요. ”

여 백

뜻밖의 공연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과
펼치는 콜라보레이션
기획 콘서트

남양주문화원 아랑여우

바란타

드림걸즈

의왕문화원 팬오카소리

벨칸토발성동호회 & 화성물라리스합창단

화산출사랑

다원예술단



뜻밖의 공연

남양주문화원 아랑여우

“

1년 된 신생 동아리입니다. 아랑은 아리랑에서 가져왔고요.

여우는 뽕 많고 재주 많은 동물이어서 가져왔어요.

가야금 연주를 시작한 지도 1년밖에 안됐고요.

운지법, 민요 몇 곡 배우고 창작곡 연습하는 단계예요.

요즘엔 25현 가야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25현은 명주실이 아니라 합성실이라 소리가 하프 같은 느낌이 있어요.

12현 가야금은 명주실이라 우리나라의 정서를 표현하기엔 12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12현 가야금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

가야금 소리가 낙숫물,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빗소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야금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가야금을 연주할 때는 오로지 내 시간이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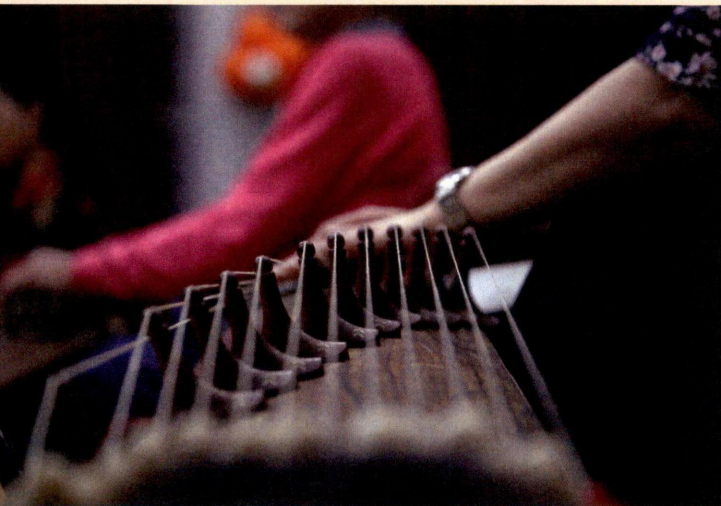
작년 남양주문화원 연말 행사에 공연을 처음 해봤어요.
오늘 리허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두 번째예요.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떨려요.
솔직히 가야금 줄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잘 못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마음을 비우고 연습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

“

남자가 가야금을 연주할 줄 안다고,
멋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하하
음악, 악기에 대해 우매했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





뚝박의 공연

바란타

“ 발안초등학교 학부모의 난타 모임을 줄여서 바란타로 부르게 됐어요.
 2년 전에 학생들 대상 방과후 수업으로 난타 프로그램이 개설됐었는데,
 참여가 저조했어요. 복은 있는데 치는 학생들이 없었죠.
 학부모회에서 이 복을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 난타동아리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전교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희망하는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현재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



“ 처음에는 누군가 앞에서 내 몸을 사용하여
동작을 한다는 것이 쑥스러웠어요.
난타를 배우고 집에 가도 난타 소리가 잔영처럼 남더라고요.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몰입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

“ 저는 무대가 무서워서 관객들이
'둘'이라고 생각하고 공연하고 있어요.
호호호호 ”



“ 연습을 2달 정도 하고 학교 학예회에서 학부모 동아리 발표 무대도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공연을 했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가족들이 처음엔 잘했다고 칭찬만 하더니 나중엔 아이들이 '엄마, 동작이 안 맞았어.'
신랑은 '너네 되게 많이 틀렸어'라고 해서 민망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연습하고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



“ 본인 스스로에게도 힐링이 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도 생겨요. 부모가 되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힘든데,
연습 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니 좋아요. 그리고 살도 좀 빠져요. 하하하 ”



뜻밖의 공연

드림걸즈

“ 꿈을 향해가는 소녀라는 뜻으로 드림걸즈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었어요. ”

“ 제일 막내가 7살, 제일 큰언니가 13살이에요 ”

“ 대회 나가면 상 타는 것도 재밌고, 춤이 아름답기도 하고 화려해서 좋아해요. ”





“ 재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앞으로 계속 춤을 추고 싶어요. ”

“ 춤추는 거 재밌어요.
어.....다 재밌어요.
어.....원래는.....
친구가 배운다길래 따라서 다니게 됐는데,
재밌어요. ”

“ 노래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거 좋아했어요. ”



“ 옛날에 재롱잔치 때 춤을춰봤는데 재미있어가지고 배우러 다니게 됐어요. ”

뜻밖의 공연

의왕문화원 팬오카소리



“

팬플루트와 오카리나를 주로 연주하고 있는 팬오카소리입니다.

의왕문화원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운영하면서 강좌도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해요. 남성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엔 여성들만 참여하게 됐어요.

팬플루트라고 해서 특별한 장르의 음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고 있어요.

서정적이고 선율적인 곡을 위주로 하지만,

재즈라든가 경쾌한 음악도 연주해요.”



“

주로 MR에 의지해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이번 페스티벌에서 하우스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무식이 용감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용감하게 연주하려고요. 좋은 경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

“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팬플루트를 알기 전까지는 아이한테만 묶여 살았어요. 이제는 음악을 통해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팬플루트를 부르면 아이가 따라서 동요를 불러요.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



“

악기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계속 활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팬플루트를 그만두면 이 좋은 사람들과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게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끈끈한 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뜻밖의 공연

벨칸토발성동호회 & 화성폴라리스합창단

“ 벨칸토발성동호회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노래를 잘 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발성 위주의 연습을 하는 모임입니다.

화성문화원에서 수요일마다 연습하고 있어요.

화성폴라리스합창단도 노래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합창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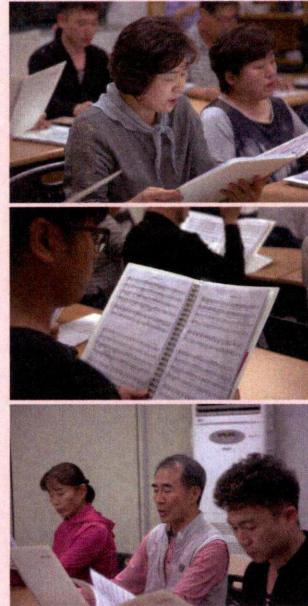
단원 중에는 프로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도 화성문화원에서 모여요.

그래서 같이 공연을 많이 해요. 지휘자님이 단원들이 많은 활동을 할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여기저기 출연시켜 달라고 때를 많이 씁니다. 하하하 ”



“ 저희는 주로 학교에서 공연을 했어요.
 진로렉처콘서트라고 중학교에서 진로교육과 공연이 어우러진
 기획공연에 참여했어요.
 공연 레퍼토리 중에 황금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황금별은 뮤지컬 모차르트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가사이죠.
 원래 가사도 좋은 의미이지만 학생들에게 더 와닿게 하고 싶어서
 개사를 했어요.
 우리 회원들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우리에겐 꿈이 있단다, 꿈을 펼쳐라,
 힘들어도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내용이었어요. ”



“ 각자의 소리가 합쳐지면서 어울림의 소리가 나잖아요.
 합창의 묘미는 어울림인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이론적인 것도 전혀 몰랐는데, 요즘엔 악보 공부도 하고 있어요. ”





화산출사랑

화산동주민센터에서 시작한 동아리예요.
 짧게는 4년, 길게는 10여 년 동안 활동하신 회원들이 모여있어요.
 모두 여가생활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공연을 하고 무용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예술인으로 봐줘요.
 저희들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감정도 남달라지고,
 한국무용을 한다는 긍지도 가지게 됐어요.



“

저희 동아리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뭐부터 이야기해야하나....

나는 자랑을 못하는게 문제야.

호호호호호

”

“

무용의상이 많아요. 장롱에 무용복 칸이 있고,

소품칸은 따로 마련했어요.

칸에 정리된 의상과 소품을 보면 더 애착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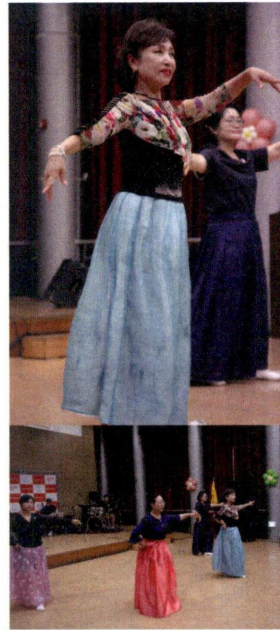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끝까지 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의상 손질을 하다 보면 의상 입고 공연했을 때

기억도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감정도

다시 느낀답니다.

”



“

콜라보 작업이 사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새 음악에 새로운 작품을 연습하니 힘들어요.

보통 MR로 하다가 민요 동아리가 노래를,

하우스밴드가 연주를 라이브로 하니

귀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낯설긴 해요.

그런데 다른 장르와 콜라보 작품을 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어서 매력이 있어요.

”



뚝딱의 공연

다원예술단



“

2008년에 시작한 예술단입니다.

‘다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는 예술단입니다.

처음엔 민요만 불렀는데, 부채를 들고 동작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장르 동아리들과 콜라보 작업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에 기대감이 높아요.”





“

민요는 한국의 밥이라고 생각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고, 먹어도 생각나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데, 민요를 해보니
가요는 파스타 같기도 한데, 명곡은 우리 민요 같아요.

”

“

축제에서 민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무대에 민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요는 배우기도 부르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살면서 느낀 즐거움,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을
흥얼흥얼 거리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민요이긴 하지만,
정말 그 감정을 공유하고 노래로,
예술로서 표현하고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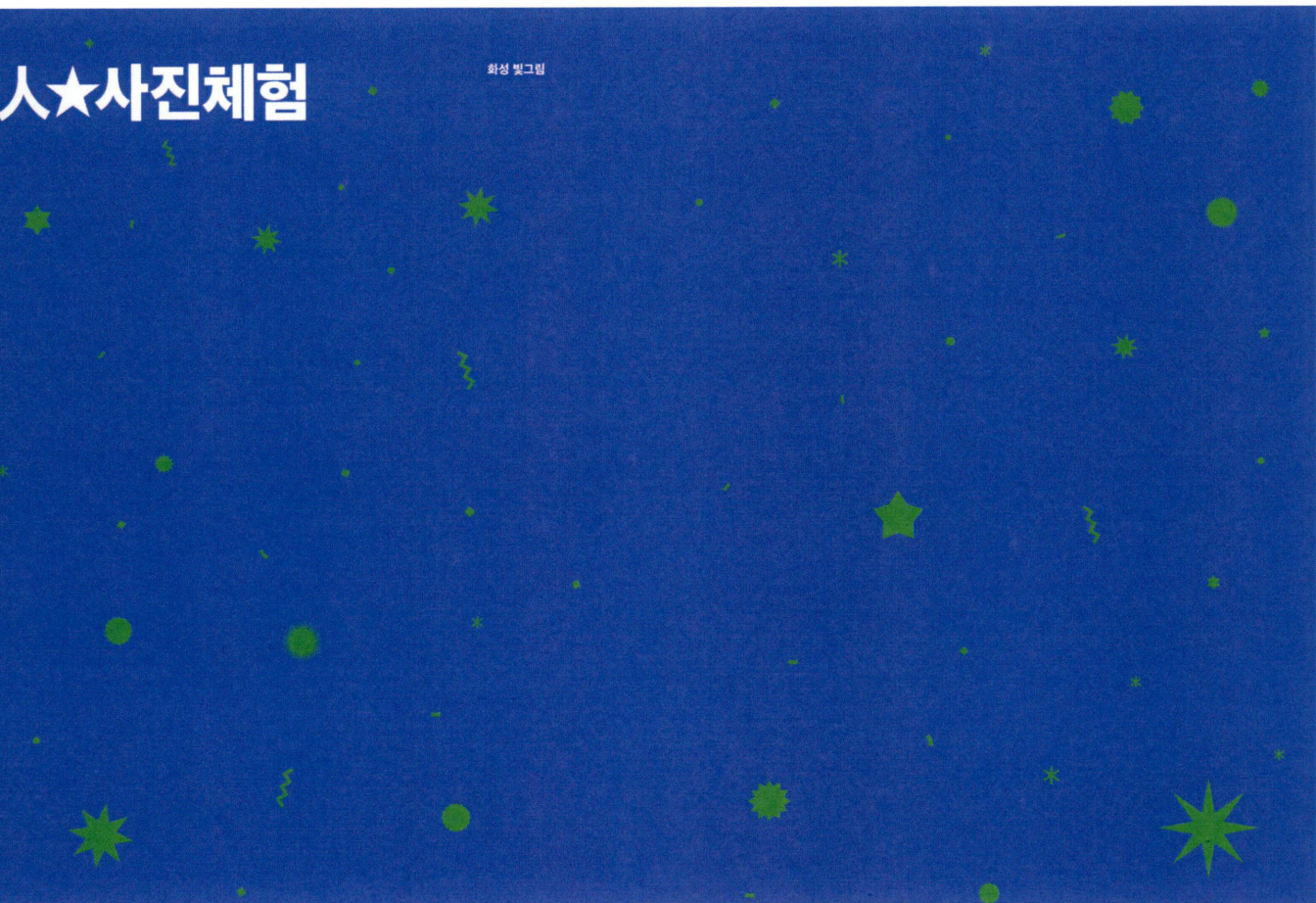
예전에 야외무대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부라부라 무대에 천막을 쳐줬지만 웃으며 신발이며
비에 흠뻑 젖었었죠. 비 때문인지 관객들도 없었어요.
그래도 공연을 시작했는데,
우리 노랫소리를 듣고 관객들이 몰려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감동이어서 두근두근 기억이 나요.

”

여 백

人★사진체험

화성 빛그림





人★사진재형

화성빛그림

“ ‘사진=빛을 그려내는 예술=빛그림’이지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 이름이 화성빛그림이에요. 오래된 회원도 있고,
 오늘 처음 온 회원도 있어요.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함께하려 해요.
 어르신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엔 어르신 회원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30대부터 80대까지, 남성, 여성 다양하게 있어요.
 요즘엔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우리 회원들이랑 미디어교육도 받고 있어요. ”



“

사진을 찍을 때 집중할 수 있어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느라 다른 일을 잊을 수 있어요.

피사체를 찾아 헤맬 때 희열이 느껴지는 게 좋아요.

게다가 제가 볼 수 없는 걸 렌즈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줘서 신비로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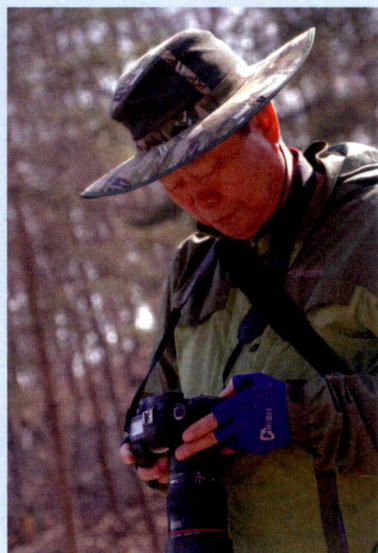
“

취미가 같아서 모임 자체가 즐겁고, 다른 세계와 달라요.

초보일 때 셔터 누르는 것 밖에 모를 때 선배님들에게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귀찮아하거나 어이없어하지 않으시고 웃으시며 잘 알려주시고

다음엔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셔서 사진을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어요.”



“

요즘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나는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즐거운데, 남은 괴로울 수도 있어요.

특히 인물 사진을 좋아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찍는 사람들에게

꼭 '찍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라고 교육합니다.

찍히는 사람이 긍정적인 표정을 짓지 않으면 찍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는데 처음 오는 회원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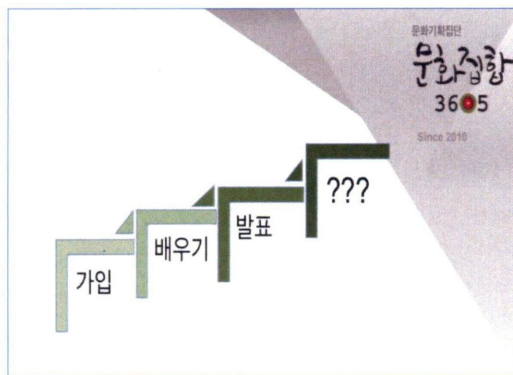
소개해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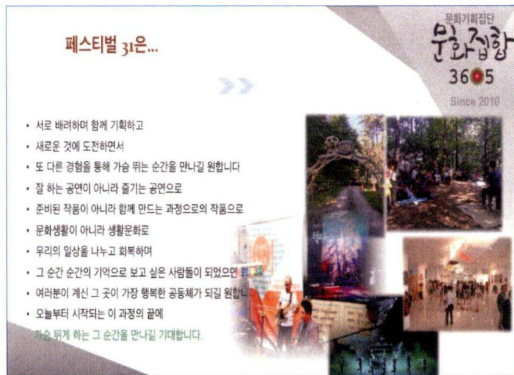
5. 別別공연

2018 페스티벌31은 화성지역의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별의별 장르의 예술활동을 매개로 별의별 동아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담아내는 것이다. '생활문화축제'라는 타이틀을 표면화시키면서 활동결과 중심으로 꾸몄던 기존 페스티벌31을 과정중심으로 만들어보고자 했고, 각자 활동하고 있던 화성지역 동아리들을 모아 워크숍을 진행했다.

생활문화예술을 왜 하세요? 라는 질문에 '즐거워서', '뭔가 배울 수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등의 답이 돌아왔다. 그렇다. '뭔가 하나 배워볼까?'로 시작하는 생활문화예술의 접근은 누군가에게는 바쁜 일상을 쪼개어 걸음 하는 곳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시작한 배움의 걸음은 그 안에서 실력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형성되고, 무대 위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된다.



문화예술에 접근이 없었던 개인이 예술을 매개로 단체에 가입 하고, 배우고, 발표의 장을 여는 것이 대부분 생활문화예술활동의 과정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이 '발표' '공연'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콘텐츠, 좀 더 완벽한 공연을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생활문화를 말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문화생활'이라 할 것인가? '생활문화'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시점이다.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문화생활을 넘어 생활 곳곳에서 활력과 즐거움을 느끼고, 걸음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행복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이 축제를 통해 만난 새로운 동아리들과 커뮤니티를 이루고 관계를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축제의 낯선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잘 하는 무대가 아니라 즐거운 무대가 되고, 작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가 작품이 되길 원했다. 결국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 안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길 기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공연형 동아리의 장이 별별공연이다.

공연무대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었다.

신생동아리 및 연령대가 높은 동아리들은 자기들만의 공연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콜라보레이션 경험이 있는 동아리들은 이전 공연기억을 위주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다. 총 3회의 전체 워크숍을 거쳐 조율된 17개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동아리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쇼케이스 형태의 '뭔가 다른 공연'과, 동아리와 동아리, 동아리와 전문예술가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뜻밖의 공연'이라는 두 가지 버전의 공연을 기획했다.

별별공연_뭔가 다른 공연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가량 이어질 '뭔가 다른 공연'은 동아리 단독으로 꾸미는 쇼케이스 공연이다.

워크숍을 통해 모든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 또는 전문예술가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콜라보레이션 해보자! 라는 콘셉트를 두었었다. 동아리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도전의 연속이다. 그들의 실력이 전문예술가보다 못하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전문예술가들과 다른 측면들 때문이다. 그래서 동아리와의 기획은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벤트가 발생하곤 한다.

다. 이들은 분석적이거나 도전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순수하다.

이제는 몸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오랜 시간 연습해야만 가능한 나이가 되었으니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해야한다는 우리의 말은 “에~이, 안돼~~”라는 대답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빠져야 할 것 같아요.”, “하던거 그냥 하면 안되나요?”, “도저히 안되겠어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히려 공격적이 되기도 한다.

동아리의 성향도 개인의 성향처럼 다양하다. 결성된지 얼마 되지 않은 동아리는 첫 무대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오랜 시간 연습한 것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싶기도 하다. 어떤 동아리는 자신들의 레퍼토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훌륭하다는 자부심이 있기도 하고, 어떤 동아리는 전문연주자와의 라이브가 불편하기도 하다. 굳이... 콜라보레이션을 강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 왔던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약 20분 가량의 동아리별 쇼케이스 공연 꼭지가 탄생되었다.

콜라보레이션은 어떻게 됐냐구? 거야 뭐~~ 다른 무대에서 시도해봐야지~

거리공연가의 마임마술로 ‘뭔가 다른 공연’ 전체를 유쾌하게 이어가며 무대와 무대를 환기시키고, 자칫 지루 할 수 있는 공연을 ‘목수이야기’라는 마임으로 이끌어갔다. 뭐, 색다른 사회자를 통해 무대를 만드는 것도 콜라보레이션 아니겠어?

신나라실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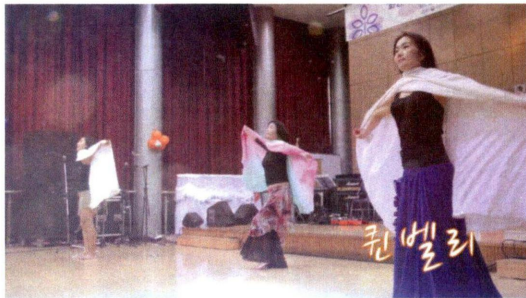
- 바벨론의 강
- 머나먼 고향
- 꽃물
- 배 띄워라
- 진포배기

타니아벨리



- 안젤라
- Joro Boro

퀸벨리



- 아리랑
- Harem
- 문화원플라멩
- 퀸드럼

K댄스



- my way
- 당신의 의미
- unchained melody

진안다람무용단/팔탄온누리무용단/봉담호수무용단/실버무용단



- 축원무
- 교방장구
- 진도북춤



노노난타



- 기
- 난타
- 아리랑

別별공연-뜻밖의 공연

4시부터 5시30분까지 약1시간30분간의 공연은 동아리와 동아리, 동아리와 전문예술가들이 펼치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기획했다. 개인의 취미활동, 배움에 대한 욕구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연 및 발표의 기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든다.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면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 경험은 동아리 활동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즐거움과 자신감, 그리고 삶에 활력을 준다.

그러나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전문예술가와 더불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욱이 늘 연습하던 레파토리가 아닐 경우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더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전문예술가와 콜라보레이션을 고집한 이유는 10분 남짓한 무대 위에서의 이 경험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연주자, 새로운 장르의 만남에서 오는 낯센과 그 것을 헤쳐가면서 탄생 될 새로운 무대, 익숙하지만 낯선 레파토리, MR에 맞추던 익숙한 박자들이 라이브연주라는 현장성을 만나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달려가면서 얻어지는 흥분이 이들을 더욱더 오랜 기억으로 데려갈 것이다.

페스티벌³¹은 생활문화동아리의 축제인 만큼 사회자를 따로 두지 않고, 전체공연이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3명의 배우로 구성된 연극으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했다.

남양주문화원 가야금〈아랑여우〉



■주제_그리움,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절이 바뀌어 돌아온 님은
예전의 내님이 아니올시다.
고운몸 상처로 그렇거니와
보이지 않는 상처는 더욱 그렇소.
나에게 기대시라 하고 싶지만
돌아누운 님의 어깨 너무 무거워
가야금 뜯으며 눈물도 뜯소

고운 쪽머리의 단아한 여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가야금 가락은 때로는 가련하게 때로는 청아하게, 또 때로는 한없이 경쾌한 소리로 마음을 들뜨게 한다. 웬지 모르게 밤과 잘 어울릴 듯한 소리의 울림을 궁평항 야외무대의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연주하게 된다. 바닷물 소리, 바람 소리와 함께 흠어질 가야금 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들이는 시간 여행이 될 것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야금 소리는 그리움과

같이 청아하고, 경쾌함마저 아련하다.

■ 공연소개 : 그리움. 놀이

콜라보레이션 : 가야금+전문 가야금 연주자+장구+미디어아트

가장 늦게 합류한 가야금 팀은 여성4명과 남성1명으로 구성된 혼성팀이다. 결성 된지 1년 남짓 한 동아리로 가야금의 특성상 전자악기의 사용이 쉽지 않아 소리가 멀리까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이 마이크만으로 음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야외무대에서는 다른 전자악기의 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전통 가야금은 12현이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현대음악을 연주 할 수 있도록 음역확대가 가능한 18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야금 고유의 청아한 소리와 잔가락이 모두 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연주자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장구 한 대와 25현 가야금만 결합하기로 했다. 또한 연주의 심플함을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아트를 이용했다. 가락의 변화에 따라 흑백과 강렬한 컬러의 영상으로 음악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얻도록 했다.

황병기류 가야금산조를 동아리가 연주하기 쉽도록 편곡한 곡으로 두곡을 연결하여 연주한다. 첫 번째 '그리움'은 느린 가락으로 하나하나의 소리의 잔향이 아름다운 곡이다. 첫 곡이 흑백의 영상을 사용해 잔잔한 그리움을 표현했다면 두 번째 '놀이'는 18줄의 현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듯 빠르게 현을 넘나들며 연주된다. 가볍고 경쾌한 가락에 색감 있는 영상을 더하여 선선한 바닷바람과 가락이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



'그림움' 미디어아트



'놀이' 미디어아트

화성생활문화동아리 난타/벨리<바란타&드림걸즈>



■주제_ 일탈, 드라마틱한 강약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에게 여가시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자신의 취미생활, 취미를 넘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작지만 큰 일탈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렵던 리듬이 익숙해지고, 따로따로 들리던 리듬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하면 즐거움과 만족도는

더 커진다. 많은 무대에 서기도 하고,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흥미롭던 것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동일 악기, 동일 장르의 동아리에서 장르도, 연령대도 낮설고 새로운 조합으로의 일탈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

잔잔한 리듬과 같은 일상은 일탈을 통해 강한 두드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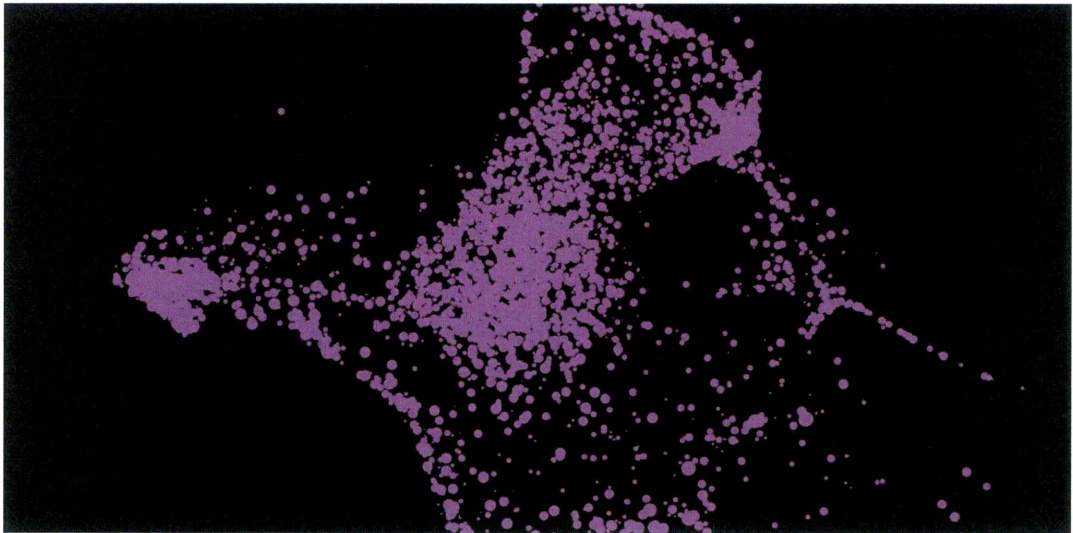
■공연소개 : 난타, 벨리, 연합공연

콜라보레이션 : 난타 단독 ⇒ 퍼쿠션+벨리 ⇒ 난타+벨리+하우스밴드+퍼쿠션+미디어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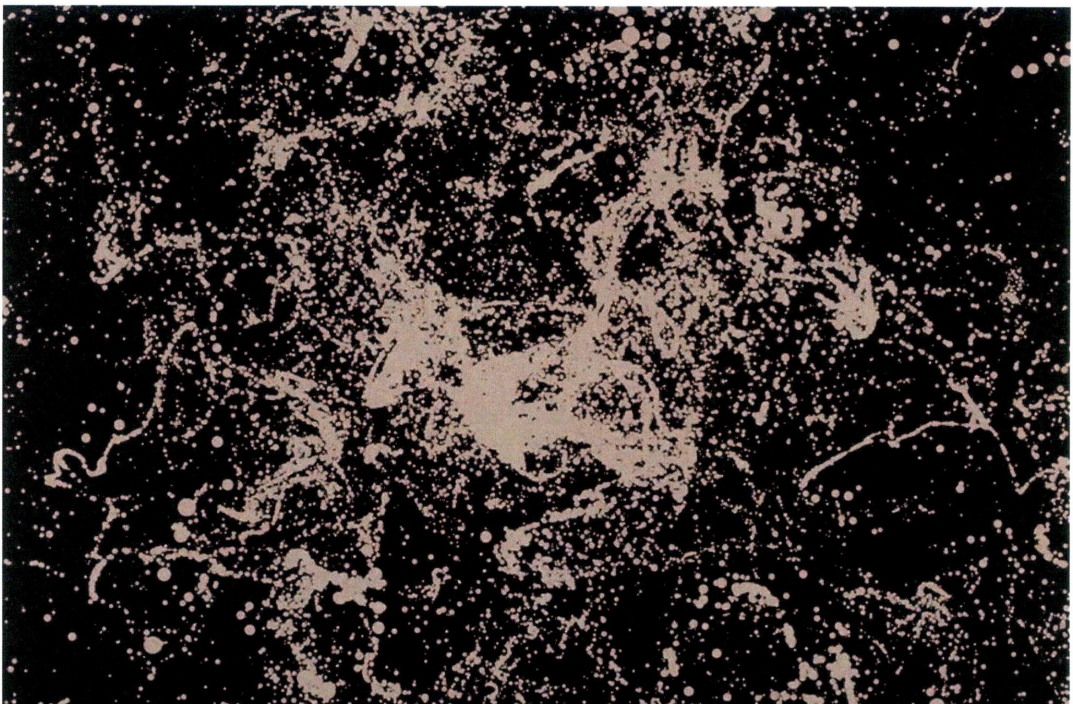
난타동아리들의 동아리참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두드림'에서 오는 희열을 이야기한다. 요즘은 다양한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한 박자의 소리를 내는 웅장함은 퍼포머 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도 소리의 전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바란타 영상에서 들리는 북소리가 벨리댄스의 다르부카(Darbuka)와 흡사했다. 다르부카의 5박 리듬에 벨리댄스의 끊어지는 동작들을 응용하여 멜로디가 빠진, 리듬과 벨리댄스의 콜라보레이션을 구성해보고자 했다. 신생동아리인 바란타에게도, 유.초등생으로 구성된 드림걸즈에게도 쉬운 도전은 아니었다. 북과 벨리가 교차하는 브릿지를 맞추는 것도, 음악없이 리듬만 사용 해 새로운 안무를 짜야하는 것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무대는 바란타의 리듬난타로 문을 연다. 5분가량 이어지는 리듬은 약하고 강하게, 느리고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박자의 변형에 맞춘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관객들이 익숙해질 때 즈

음 이전 북소리와는 또 다른 느낌의 리듬으로 시작되는 벨리 리듬에 귀엽고 아름다운 어린이 댄서들이 등장한다. 음악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북의 리듬과 어린이댄서의 힙플링터치가 무대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6명의 어린이와 한 대의 퍼쿠션으로 만들어내는 심플하고 절도 있는 퍼포먼스는 풀밴드와 바란타의 결합으로 웅장하고 신나는 엔딩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또한 프로젝트 매핑을 이용하여 리듬에 반응하여 영상화면이 만들어지는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이고 화려한 무대가 연출되도록 기획했다.



리듬에 반응하는 미디어아트



의왕문화원 팬플루트<팬오카소리>



■주제_음악, 누구나 쉬어가는 곳

그리스 신화의 판(pan)의 이름에서 유래된 팬플루트는 주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제작된 악기로 '시링크스'라고도 부른다. 반인반수 판을 피해 달아나던 '시링크스(syrinx)'라는 요정이 강가에서 갈대로 변해 그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는 신화에서 비롯되었다. 팬플루트가 나무로 만들어진 취주악

기라면 오카리나는 흙으로 빚어 만든 악기다. 악기마다 흙과 나무가 숨을 쉬고 있으니 그래서 이 두 악기는 같은 음을 맞춰 부는 것이 참 어렵다. 하지만 나무나 흙을 이용한 악기가 매력 있는 이유는 자연과 잘 어울리는 소리를 가졌다는 점이다. 야외 공연장에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듣는 팬플루트 연주는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함을 준다. 연주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음악과 함께 일상에서 잠시 쉬는 '멈춤'이 있는 곳. 이것이 또 하나의 일상이 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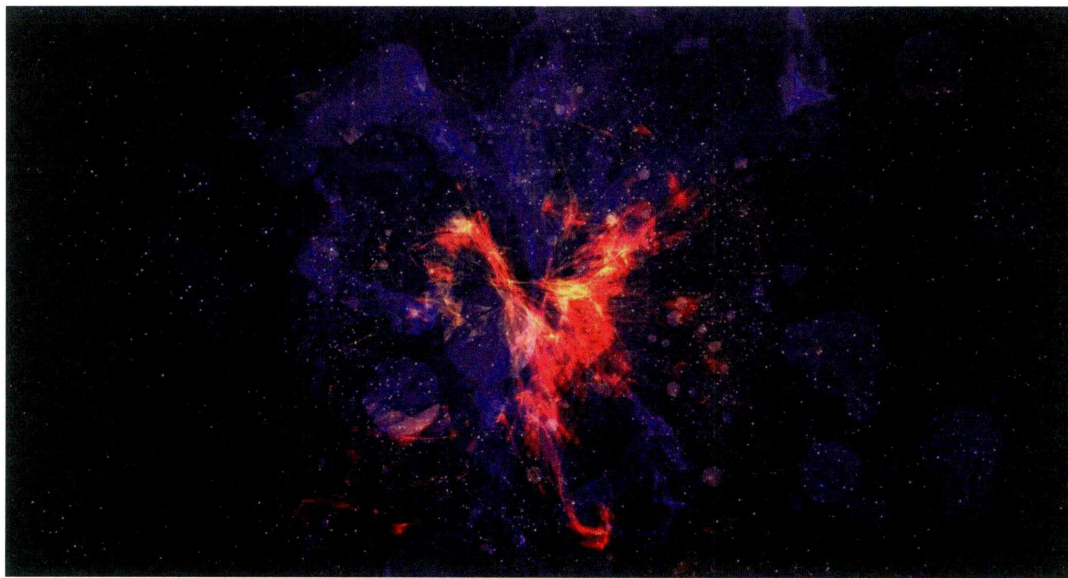
■공연소개 : 오블라디 오블라다, 타이타닉

콜라보레이션 : 팬플루트+하우스 밴드 / 팬플루트+SC 오카리나+밴드+현악5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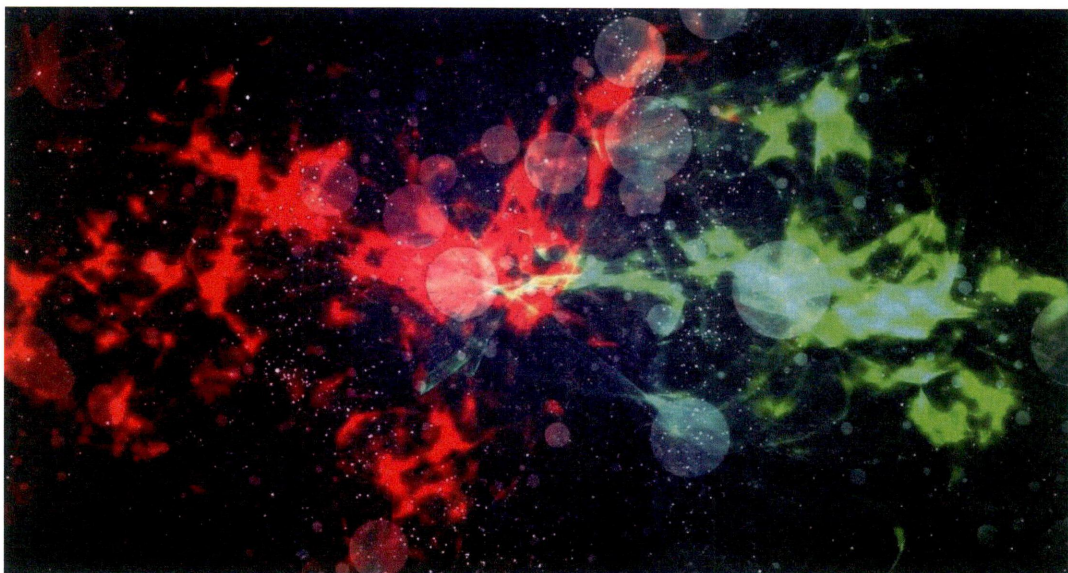
팬오카소리는 10명의 연주자로 동아리 결성이 3년이상 된 베테랑 팀이었다. 취주악기 동아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음도 플랫 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각 파트 간 하모니도 잘 어우러지는 팀이었기 때문에 경쾌한 리듬인 첫 곡은 팬플루트 합주가 두드러지도록 하우스밴드 기본악기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구성했다.

팬플루트 사운드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두 번째 곡 타이타닉은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앞선 곡과의 차별을 두어 스트링과 관악기의 결합으로 풍성한 사운드를 주었다. 사실 레퍼토리 중 가장 힘든 장르가 악기 연주 일 것이다. 무용처럼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나 노래와 같이 가사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기연주는 수준 높은 무대가 되어야 관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SC오카리나의 깨끗하고 맑은 소리로 앞선 무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주며, 궁평항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듣는 팬플루트 소리에 현악기가 더해져 연주곡임에도 지루하지 않은 수준 높은 무대가 구성되었다.



‘타이타닉’ 미디어아트



화성생활문화동아리 합창<벨칸토발성동호회&화성폴라리스합창단>



■주제_따로 또 같이, 아름다운 순간에 머물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합창이 그렇다. 함께여야 가능하고, 함께여야 아름다운 소리를 모아 낼 수 있는 것이 합창이다. 이번 페스티벌의 합창 무대는 동아리와 동아리, 전문 연주자,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했다. 합창이 '함께'라

서 아름다운 것이라면, 이번 무대는 다른 동아리와 함께여서 더 아름답다. 오케스트라와 국악기의 하모니가 더해져서 더욱더 풍성한 연주가 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들만의 목소리를 오롯이 들을 수 있어 아름답고, 그들이 함께하는 하모니가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한다.

합창단은 이렇게 '따로'라는 단어마저 '함께'임을 의미한다. 50여명이 모여 만드는 파트와 파트의 하모니, 연주자와 합창단의 하모니, 어린이와 어른들의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간 속에 오래 동안 머물게 될 것이라 믿으며...

■공연소개 : 걱정말아요 그대, 아름다운 나라

콜라보레이션 : 합창+하우스밴드+현악5중주+어린이합창단+미디어아트/ 합창+하우스밴드+현악5중주+국악4중주+어린이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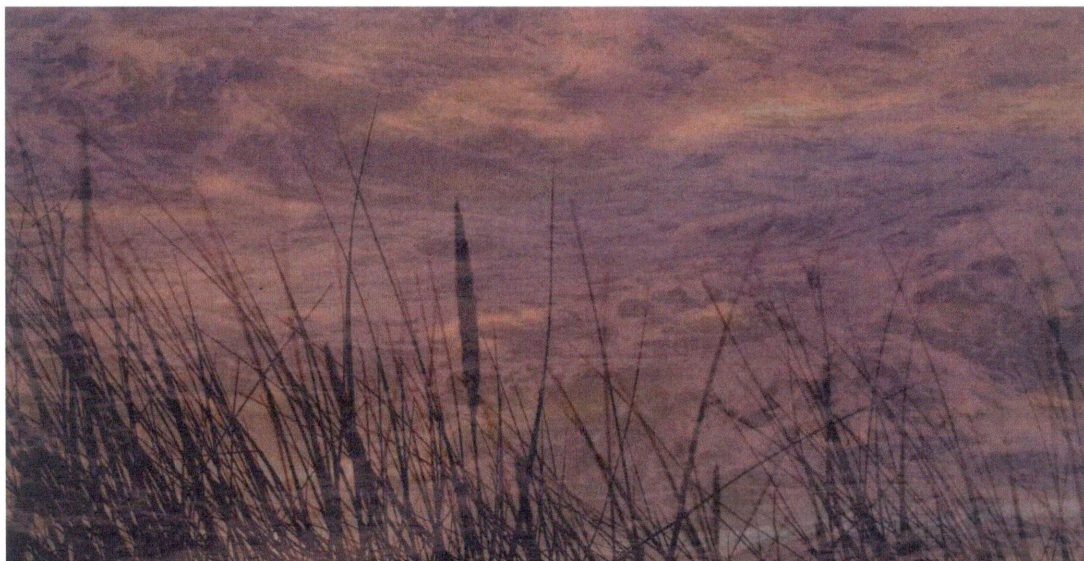
우여곡절이 가장 많았던 팀이 합창단이었다. 5개 단체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던 합창단이 기획이 바뀌며 합창단만 남게되니... 단원들이 점점 자신을 잃었다. 급기야 프로그램북이 모두 만들어진 상황에서 단원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고, 부족한 단원들과 함께 노래 할 어린이 합창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다. 한달여간 어린이들이 편곡보를 외우고 합창단의 영상을 보며 연습했다. 피아노 연주만으로 담담한 후렴구 유니즌으로 시작되는 벨칸토/폴라리스 합창단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어린이들이 귀엽

게 등장하며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연출했다. 작은 소리에 하나하나의 소리가 더해져 합창이 되는 것처럼 합창단원들에게는 함께 하는 어린이들이 힘이 될 것이다.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현악과 스트링의 풍성한 반주가 더해지며 미디어아트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더했다.

두 번 째 곡인 '아름다운 나라'는 국악과 현악, 하우스밴드의 풀 밴드 편곡으로 경쾌하고도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어른들의 감싸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합창이 주는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연출했다.



‘걱정말아요’ 미디어아트



화성생활문화동아리 한국무용/민요<화산춤사랑&다원예술단>



■주제_노래와 춤, 바람에 날리는 꽃과 같은 것

꽃도 그대도 바람에 온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정호승_울지 말고 꽃을 보라 中)

사람을 꽃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활짝 핀 꽃을 청춘이라 한다. 이제는 오십을 훌쩍 넘은 민요동아리와 한국무용 동아리 회원들은

여전히 활짝 핀 꽃과 같았다. 온 생(生)을 바람에 몸을 내맡기고 흔들리며 화려한 시절도, 살애는 겨울도 견뎌온 이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가락과 몸짓에 몸을 맡긴다. 가락 한자락도, 발디딤 하나도 절제되고 균형잡힌 호흡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한국민요와 한국무용이다. 안으로는 한없이 절제해야 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밖으로 아름다운 소리와 춤사위가 가능한 것이다. 바람과 함께 숨쉬며 어우러지는 소리와, 꽃과 같이 하늘거리는 춤사위는 화려하게 흩날리는 꽃과 같다. 노래와 춤, 바람과 꽃잎 같이 다원예술단과 화산춤사랑의 콜라보레이션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인생과 같이 강약을 넘나들며 나풀거린다.

■공연소개 : 창부타령, 경북궁타령

콜라보레이션 : 민요팀+무용팀+하우스밴드+국악팀/ 민요팀+무용팀+하우스밴드+국악팀+비보이

민요팀에게 전자악기인 밴드와의 결합은 대단한 도전이었다. 더욱이 부를 때 마다 박자가 달라질 수도 있는 라이브 연주에 민요. 거기에 맞춰 무용을 결합하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곡을 정하는 것도 그 곡에 새로 안무를 구성하는 것도 각자 팀의 단독공연 시간을 배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첫 곡 창부타령은 그동안의 민요와는 다르게 전자악기와 국악팀이 함께 결합했다. 그리고 같은 곡에 한국무용을 구성했다. 첫 곡과 두 번 째 곡을 연결하는 지점을 끊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 하우스밴드의 브릿지 연주편곡이 이루어졌다. 엔딩무대이니 만큼 화려하고 신나는 무대를 위해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비보이와의 결합을 제안했다. 즉석에서 잼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연주자. 민요팀. 국악팀. 그리고 비보이의 합동 무대 제안에 짜여진 공연만 했던 동아리들은 당황해 했지만 흔쾌히 응해주었다.

민요팀이 주고 비보이가 받고, 비보이가 주고 무용팀이 받으며 다 함께 어울려 춤추는 엔딩무대를 상상하며...

신나게 한바탕 춤추고 놀아보는 엔딩무대로 기획되었다.

6. 특별한 전시/체험

전시_문화원사용설명서展

“53년전 화성에서는”

페스티벌31에서 문화원이야기31이라는 작은 행사가 생긴 것은 두 번째 광주문화원과 공동주체하면서 부터다. 수원에서 첫 회가 열렸을 때 전시 부분은 각 문화원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기 좋게 전시하는 것이었다면, 지역문화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개최지역의 문화원이 드러날 수 있게 한 코너가 생성되었다. 지역문화원 회원들의 작품에 더 집중하고, 문화원의 활동을 드러내고자하는 의도였다.

여기에는 지역문화원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역점을 두고 있는 문화원 활동이 무엇인지 이것을 시각화할 재료들은 무엇이 있는지는 문화원에서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원의 활동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설립연도가 10년을 훌쩍 넘어 30년이 되는 곳도 있어 지난 과거자료까지 챙기고자 한다면 문화원 협력은 절대적이다.

이번 화성문화원에서 진행된 전시는 협력이란 맥락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협력자였다. 전시 부분을 담당했던 김명수연구원은 어떤 전시가 필요한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시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수공예품이나 전통문화재를 선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데 의외의 기획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일견 당황했으나 하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가 그만큼 선명하므로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빠른 진행이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페스티벌 행사 자체가 궁평항 광장으로 변경되면서다. 날벼락이란 이럴 때 가장 적절하다 싶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 전시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허공에 전시물을 매달 수도 없고 영상으로 전시한다고 해도 적어도 영상기기를 설치할 기둥은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궁평항 광장은 작은 무대만 설치되어있다. 그것뿐이다. 전시를 하려면

공간을 만들어야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행사일정은 10월로 연기되었다. 덕분에 9월에 약속된 다른 일정은 취소, 페스티벌 모드는 길어졌으나 해야 할 일은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문화원의 전시에서 하고 싶은 명확한 내용 논의는 전시 난이도를 떠나 반가운 일이었다.

화성문화원의 문제의식은 이것이다. 화성문화원이 53년 전에 설립되었으나 화성시에 문화원의 있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데서 출발한다. 한 마디로 문화원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기관으로 50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곳은 문화원이 독보적이다. 그 당시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필요한 활동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고민할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명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라는 컨셉이다.

■ 전시 컨셉 :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화성문화원을 소개하고 문화원 고유의 목적형 활동, 현재 화성시민들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 시민의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한 활동들을 안내해보자는 화성문화원 홍보관 성격의 전시관 구성

■ 영상내용 방향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의 설명

- 연령대와 상관없이 별로 접근성 높이는 쉬운 언어의 나레이션
 - 초등6학년~중학교1년생 정도의 눈높이에 맞춰 시나리오 작성
- 레고로 만든 인형을 사용, 친근감 높은 애니메이션 제작
 - 만화나 애니메이션 형식은 예전과 달리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친숙한 전달매체로 쓰이고 있다. 레고 인형으로 주인공을 만들어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중에 만화캐릭터를 만들어 뒷 배경과 조화롭게 사용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변경)

- 각 전시관의 주제를 보여줄 수 있는 당시의 사진을 전시, 실제임을 알린다
 - 문화원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같이 전시하여 애니메이션 내용이 허구가 아닌 사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 관람객의 질문에 응할 수 있는 확대의 공간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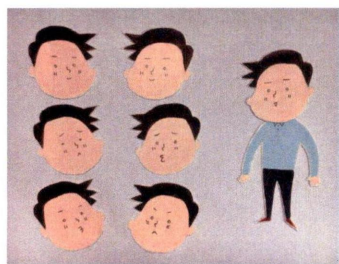
문화원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문화 기관인 것과 전통만 고집하는 곳이 문화원인 것과는 별개다. 현재의 활동을 안내하는 영상과 실물전시를 같이 진행하고, '이거 하고 싶었는데... 문화원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능동적 관람객의 질문에 문화원 담당자가 상주하여 응대할 수 있는 확대할 만한 카페 비슷한 공간을 5번째 방에 설정했다.

■ 전시관 배치 : 공연 소리 간섭의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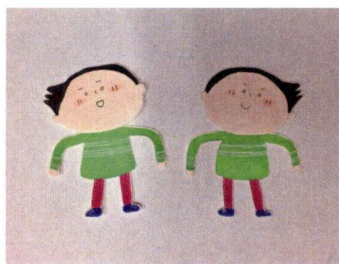
영상-나레이션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은 각 방마다 다른 내용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나온다. 같은 광장공간에서 공연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소리간섭에 신경쓸 수 밖에 없었고, 공연장 스피커의 방향을 감안하여 자리를 배치하였다.

전시장 컨셉과 방향에 따라 애니메이션 작가 섭외와 전시관을 지어줄 단체를 섭외하고 회의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 보완, 수정작업을 진행해갔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작가 3명이 참여했다. 캐릭터를 만들고 시나리오에 맞춰 첫 콘티 작업은 더딜 수 밖에 없었는데, 문화원이란 실제 존재하는 실물은 실제사진이 필요했고, 팩트로 구성되야 했기 때문에 실사 촬영과 실제자료를 찾는 작업으로 초기에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시나리오의 대본 전환, 성우 섭외와 더빙까지 애니메이션 작가들은 쉴 틈 없이 두 달을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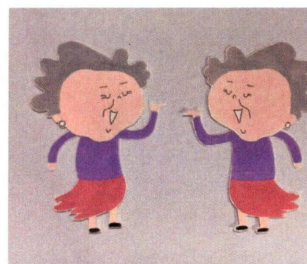
캐릭터1-김형과 다양한 표정



캐릭터2-남자어린이



캐릭터3-여자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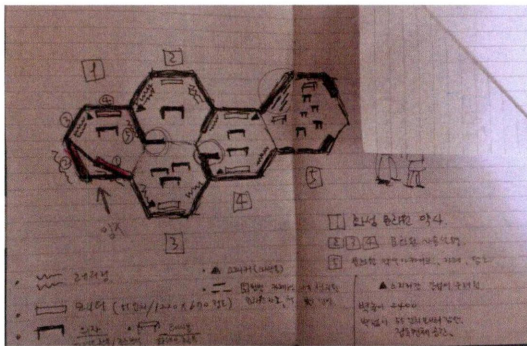


캐릭터4-할머니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한편에서 전시장을 제작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전시장 제작은 기댈 지지대도 없고 벽도 없어 그 자체로 지지되면서 안전한 구조가 필요했다. 설치작가에게 제안한 것이 5각형 별집구조가 연결된 전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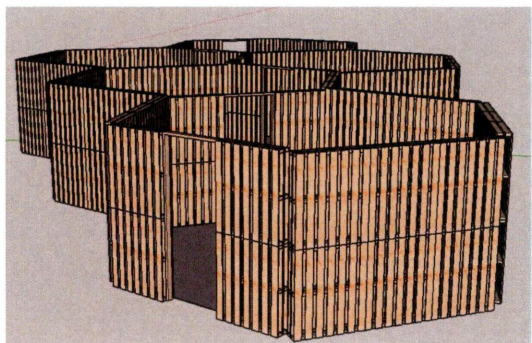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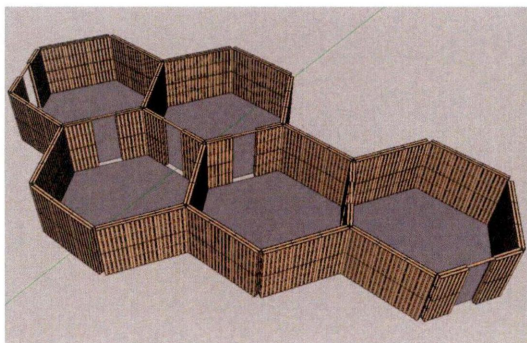
■ 전시공간 제작 방향 : 안전하면서 미적 감각도 감안한 설치물

- 전시를 위해 일명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 5개의 세션을 담아낼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방을 뛰어다니거나 기대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구조= 6각형 별집 구조의 방을 5개로 연결하여 한 덩어리 집체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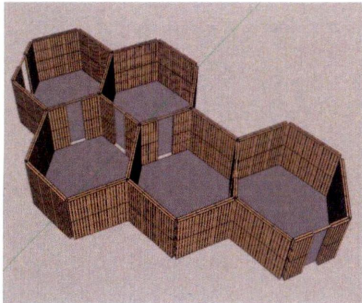
전시관 설치를 위한 아이디어션 회의에서 끄적인 스케치

- 5번 방은 화성문화원 현재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문화원 활동으로 생산된 책 등을 전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북카페 형식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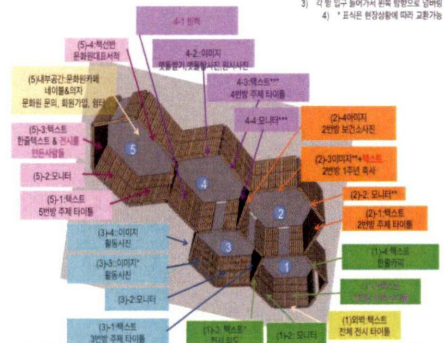
[전시장 구성을 위한 작업]

전시장 외벽 시뮬레이션



- 전사장 전체 크기
-10000 * 20000
- 박면 원판 사이즈
-(높이)2400 * (넓이)3000
- 모니터 크기: 55"
- 외경 1240*720
- 내경 1210*680
- 상단 15/ 좌우 15/
- 하단 20/ 리모콘센서 20/리모콘센서
시작부분 120

전시장 설치 방향, 내부 구성



전시장 내부 구성 상세 내용

[(1)-1 벽면] 텍스트

- 1번방 외벽/전체 전시 타이틀
- 내용

문화원이야기 31_ 화성문화원사용설명서Ⅷ

53년 전

화성에서는.....

???
궁금해
하는
캐릭터

[(1)-1 벽면] 텍스트

- 1번방 주제 문구 & 에니캐릭터

문화원이란?

[(1)-2 백면] 모니터

- 1번방 주제 애니메이션 상영
- 애니작가 작업 중

[(1)-3벽면] 텍스트*

- 2018 문화원 이야기 31 기획 의도에 대한 글
- 위치 현장 조정가능
- 김명수 작성, 민병은 올문

전사를 기획하며

화성문화원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문화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시지만 전체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문화원이 문화센터인줄로만 아셨습니다.

문화원은 문화기능의 전담을 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은 아닙니다. 법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는 독립기관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강화도 하지만 연구사업도 하고 학술적 목적에 있는 기관들 대신 맡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어떤 곳인지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화원.
문화원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문화원을 만들고
이끌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사를 만들어 보자...
이 전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시작으로 화성시민에게 제대로 문화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돌려드리고 더 많은 일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문화원의 시작과 자금을 설명하는 이 전시를 놓여가 빠주시고
지역에서 반세기 넘게 지켜온 문화원을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성문화원

[(1)~4 벽면] 텍스트

- 한줄 카피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 탈레스

[[4]-1 벽면] →

→ [[4]-2벽면] 이미지

- 4번방 대표 사진(1)
- 살아 올라지는 옛들과 옛돌 탑



옛들과 함께 하는 2021년 문화
행사 개최가이드



옛돌탑



한국의 전통문화유산

4.3. 4번방 주체 진리탐

4.3. 4번방 주체 진리탐

4.3. 4번방 주체 진리탐

4.3. 4번방 주체 진리탐

4.3. 4번방 주체 진리탐

4.4. 4번방 주체 진리탐

지금 이곳 화성문화원의 이야기

- (5)-1 백면
 - 텍스트
 - 5반방 주제 글
 - 디자인이나 작업
 - 내용
- (5)-2 백면 모니터
 - 5반방 주제 애니메이션 상영
 - 애니메이션가 작업 중

엔딩...노샘의 캐릭터

주최	경기도문화재단합동
공동주관	경기도문화재단합동, 화성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합동, 한국문화재단합동, 경기도, 경기도 의회, 화성시, 화성시의회
기획 연출	문용갑팀 36.5 민병현
자료구성 편집	화성문화원 김경수 연구원
자료제공	화성문화원
메이커인사 제작	단국대
메이커인사 작가	예는 새침송희), 이혜유(010-0000-00000-000000)
전시장세탁	가제트
작품설치	곽민우, 신 불

- (5) 내부 기관
 - 문화원 대표 서적
- [(5) 4 박간]
 - 선반 설치
 - 문화원 대표 서적, 상징성 강한 작은 오브제 등...
 - 김영수 연구원 선정
 - 이동형식 논의
 - 10월3일 아침8시 이후 전시가능
- [(5) 내부 공간]
 - 테이블/ 의자 배치
 - (5) 내부 공간 문화원 카페
내 테이블 60자
문화원 문지, 화강암, 열대
 - 문화원 카페 컨셉
 - 문화원에 대한 질의 응답 공간(회원가입응답, 강좌안내, 프로젝트 안내, 향토연구소 소개 등... 자료 열람가능하
게 준비)
 - 2명 이상의 관계자 상주 필요 (문화원 직원 혹은 문화원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
 - 김영수 연구원 자료 선정
 - 이동형식 논의, 물자차 배치 논의
 - 10월3일 오전 6시부터 배치 가능

체험

일반적으로 축제장에는 메인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공연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 진행되는 퍼포먼스다. 관객들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체험장이 한곳에 필요하다. 집객과 행사장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행사 컨셉의 연장선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주인공이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개최주관은 문화원이다. 두 가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게 되었다.

■기획컨셉 :

-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경험을 한다
- 전통과 연관된 활동으로 구성한다
- 버려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 사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문화원 동아리의 활동을 뺄 수 있기도 한, 사회참여 장을 마련한다

■구성 방향 : 행사장에 찾아온 관객들과 상호연관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되어가는 진행형 체험, 참여자들이 덧대고 구성하는 과정

•체험 1 “만들어노는 별★ 놀이터”

- 놀이터는 노는 사람이 만들어서 놀았다는 컨셉으로 구성, 가족동반 관객들을 위한 노는 사람이 만들어 노는 진행형 놀이터
- 가장 기초적인 외줄 걷기, 바닥 낙서, 나무다리 건너기, 거미줄 걸기 등 시작을 만들어 두고 판자, 못, 드릴, 각목, 밧줄, 크레파스 등 원재료를 제공, 놀이터는 참여자들의 의도에 따라 주어진 재료의 응용으로 참여자들이 만들어간다

•체험 2 “직조짜기 별별 체험”

- 직조는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오랜 필수 테크닉임
- 직조짜기의 활동을 지금의 생활에 적용 가능한 방식의 제안 기회이자 폐현수막을 활용안이라는 아이디어 제안도 가능

- 여러 관객들의 참여로 짜여진다. 만들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과정을 즐기는 방식
- 짜여진 직조물은 지붕으로, 해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직조천은 폐현수막을 활용한다

•체험 3 문화원 회원들의 사회참여 : 사진반 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 “人★사진체험”
두 개의 코너가 진행됨

①노상사진교실

- 사진반 회원들의 사진강의 노하우를 살려 축제장을 찾은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찍기와 사진 합평시간을 마련
- 축제의 장을 매체의 눈으로 관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함

②찍히는 자가 임자인 사진

- 사진출사라는 개인적 취향의 활동이 또 다른 사진 속의 개인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 사진반 회원들이 찍은 사진 = 작품으로써 사진을 전시한다
- 그 사진 안의 주인공이 자기임을 주장하고 사진을 가져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작가의 사인도 받을 수 있다
- 인증 샷이 아닌 작품으로서의 자기 사진을 가져갈 기회가 되기도 한다

7. 각별한 운영/후생

여느 축제가 그러하듯 페스티벌31도 출연진, 관계자, 스태프가 많다.

지금까지 페스티벌31은 개최 지역에서 제일 큰 공연장 전체를 대관하고 대기실이 아닌 강의실, 연습실까지 대기실로 사용했지만 무대 뒤편 한 동아리가 모두 없어도 티 안날 만큼 북적였고 공간은 부족하게 느껴졌다.

여러 지역의 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는데 한 대기실을 여러 팀을 배치한 경우 서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해 대기실 스태프들이 힘들어하기도 했다. 축제에 참여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먼 길 왔는데, 편히 쉴 수도, 공연 전 연습하기도 애매하고 의상 갈아입기도 불편했다. 샤워실, 화장대 등 시설은 좋지만 공연장 규정 상 반입 허가된 식음료가 제한적이었다.

후생[厚生]은 삶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윤택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있는데 페스티벌31의 후생은 서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려해야만 했다.

올해는 야외에서 개최되기에 대기공간과 축제장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역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되기에 일반 관광객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 출연진들이 관람객들과 분리되어 쉬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했다.

때문에 주차장 일부를 막아 대기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비록 캐노피 텐트이고 임시 공간이지만 동아리들마다 개별 공간을 배치할 수 있었다. 인원이 많은 동아리는 두 동을 배치했고, 인원이 적더라도 다른 동아리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진 않았다. 의상을 갈아입기 편하도록, 잠깐이라도 신발 벗고 다리 쭉 펴고 누울 수 있도록 돛자리를 펴놓고, 인원보다 많은 의자를 준비했다.

축제 날은 출연진들이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운영 스태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를 바랐다. 그래서 운영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을 텐트에 세팅해 놓기로 했다. 다양한 다과, 종이컵, 물티슈, 화장지 등을 준비해 동아리 인원에게 따라 소분하고 축제날 새벽에 텐트마다 미리 세팅해뒀다. 출연진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동아리북 등도 함께 세팅했다. 점심시간 직전에 운영 스태프들이 텐트마다 도시락 배달도 했다. 사실 이는 축제 날 운영팀의 일을 줄이고 어느 동아리에 무엇을 지급하고 안했는 지 등의 혼선을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기존 축제에서는 운영 면에 대기실에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발생하는 불편함 외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동아리들이 많다보니 참가하는 동아리들이 다른 동아리 이름을 모르고 교류를 할 기회가 없었다. 전시에 작품을 낸 동아리들은 작품으로만 존재했다. 공연으로 참가하는 동아리는 눈도장 정도라도 찍었지만 전시 작품을 출품한 동아리 회원들은 그 날 왔는 지조차 알 수 없었다. 동아리를 위한 축제인데, 자기 것만 하고 또는 보고 가기 바빴다.

이번 축제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축제의 주체로서 다른 동아리들과, 전문가들과 축제를 만들고 즐기는 컨셉으로 기획됐고, 그에 맞게 부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람객들에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출연진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운영적인 면이나 후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축제 주체로서 함께한 동아리 이름이라도 서로 알아갔으면 했다. 관람객들에게는 이런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있고, 축제에 함께하고 있다고 이름으로라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기실 이름표를 큰 현수막으로 제작했다. 동아리 이름과 대표 사진까지 넣어서 말이다.

덕분에 스태프들이 출연진 찾기 편했다.



간식 포장 열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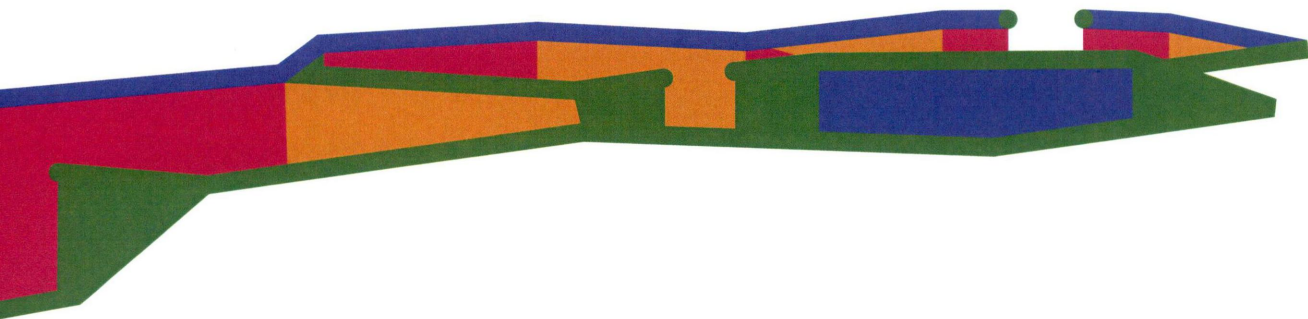


동아리별로 준비된 대기실, 대기실 안에는 간식, 동아리북, 기념품 등이 미리 세팅되어 있다

페스티벌 | 벌벌

Part II.

화성에서 이렇게 논다



1.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의 상징물

〈로고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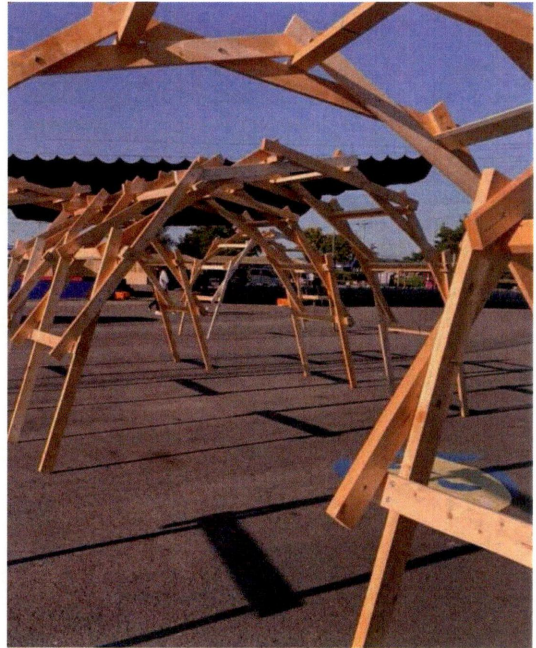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은 개최지역의 특성과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예술가가 협력하여 펼치고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다.

〈로고 디자인〉



2018 〈페스티벌31〉 개최지인 화성시 4개 읍, 9개 면, 13개 동에 사는 화성 사람들의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표현한 로고다.

〈다빈치 브릿지〉



행사장 입구와 놀이터, 사진 체험 등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다빈치 브릿지를 통과하면
“사소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독립된 일상이 함께하는 일상으로,
버려진 재료가 신나는 놀잇감으로,
내가 나온 사진이 작품으로 변한다.

〈스타돔〉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스타돔은 별별화성4.9.13이라는 컨셉에 맞춰
별 모양으로 대나무를 연결해 만든 구조물이다.
“돔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바로 스타다.”

2. 축제 한눈에 보기

1) 별별공연-리허설



아침 일찍 시작한 리허설. 어느새 예쁘게 화장도 마치셨네요. 부지런도 하셔라~



전문가 콜라보팀. 어린이 합창단도 노래 중 입장연습~, 비보이팀도 무대 동선 체크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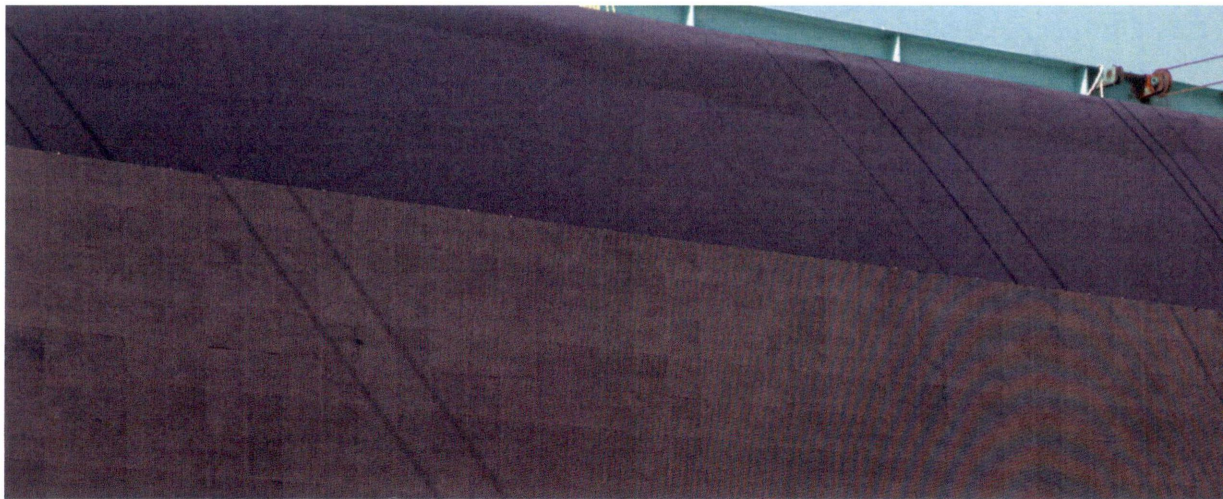


가장 먼저 공연을 시작할 신나라 실버밴드. 다른건 다 포기해도 악보를 보여줄 프로젝트는 포기할 수 없다! 직접 세팅. 해체까지. 알아서 척척해내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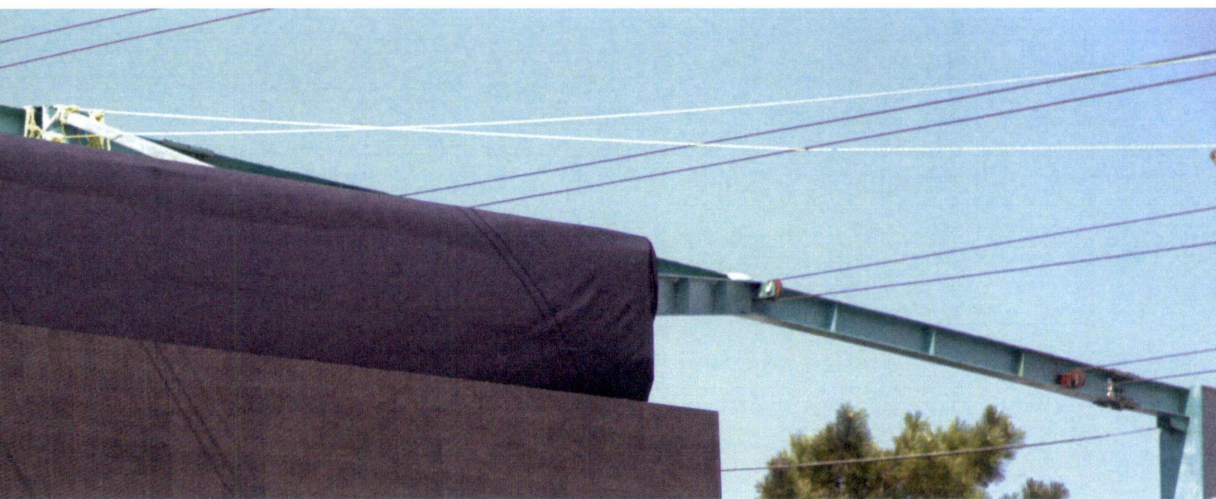


어린이도 어른도 처음 해보는 라이브공연^^ 음악과 동선체크는 필수입니다





아침부터 모든 팀과 리허설중인 하우스밴드 궁평항의 햇빛에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필 연주자 자리엔 그늘막도 없고...ㅠ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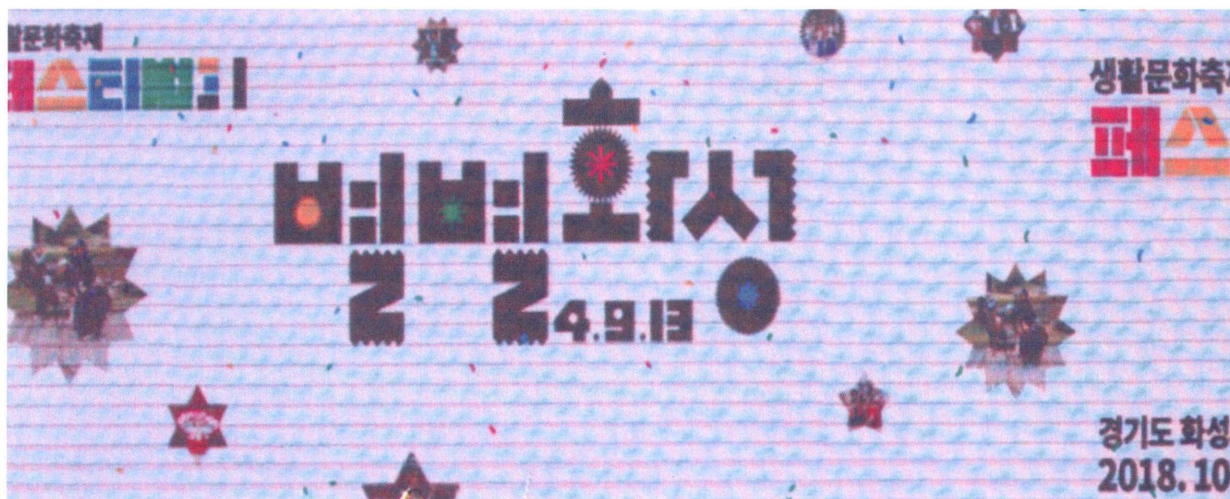


2) 별별공연-뭔가 다른 공연

신나라 실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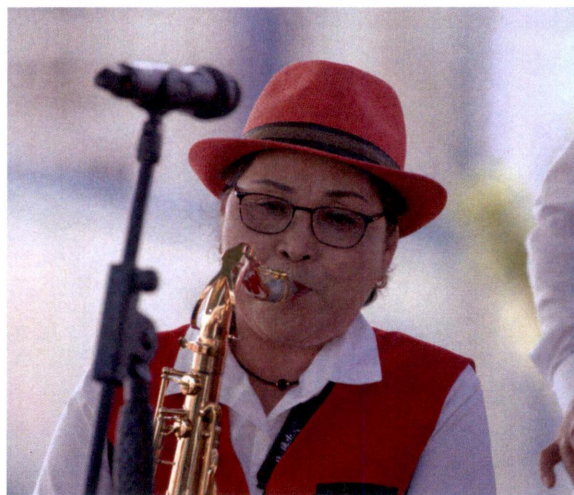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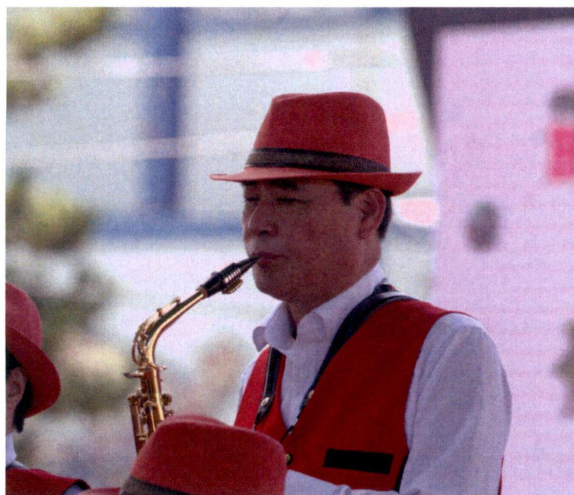
실외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빨강조끼,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색소폰. 반반씩 찢힌 이유는? 소프라노와 알토로 앉으셨대요ㅎㅎ





모두가 바라보는 저 곳은... 칠판이 아니라 악보랍니다~





클로즈업! 가장 빛나는 악기인 오늘의 주인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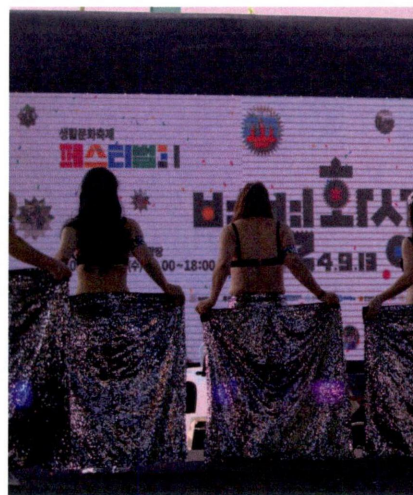


회장님 포~스! 연속 5곡 연주가 힘들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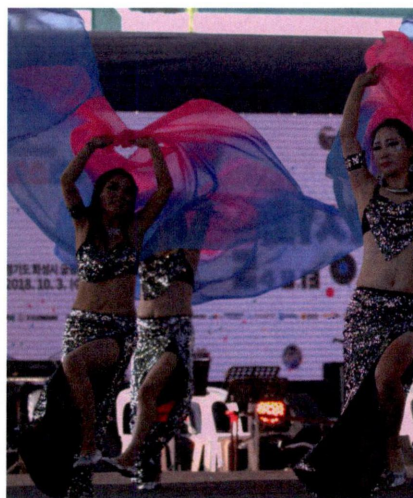


1시연주 6시 커튼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타니아벨리



색색의 사랑, 색색의 웨이브, 반짝이는 아름다움



자신있고 당당하게. 여기서 내가 가장 아름답다!





손끝까지 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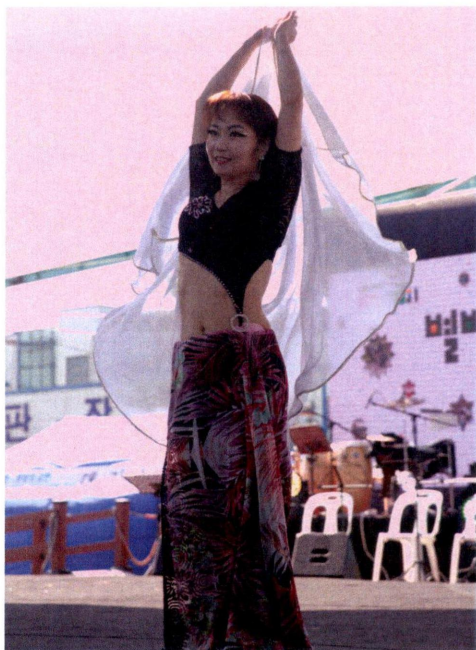


커튼콜

퀸벨리



모든 예술은 함께인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니다. 입가엔 미소가 한가득~

PartIII. 화성에서 이렇게 논다



오늘 하루 우리의 아지트 대기실에서 한 컷!



커튼콜

봉담호수무용단/진단다람무용단/팔탄온누리무용단/화성실버무용단



직전대기실. 떨리지도 않으시나봐요



이제 무대로 출격! 이 시간이 가장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축원무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교방장구의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에 빠져보는 시간



진도북춤은 양손에 채를 쥐고 춤을 춘다고 하네요. 버선발이 너무 예뻐답니다



커튼콜_ 오랜 시간 함박웃음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댄스



궁평항 바다와 어울리는 파~아~랑~



음~ 우~ 내 입이 내맘대로 잘 안되네요. 이러고 있었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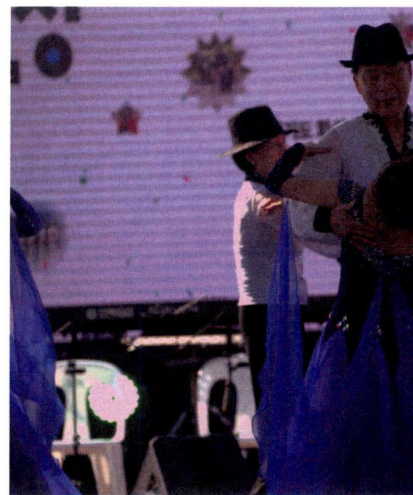
PartIII. 화성에서 이렇게 논다



춤을 출 때 새어나오는 웃음은 어쩔 수가 없지요



실제 부부도 아주 많답니다. 취미를 같이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댄스스포츠 덕분에 아직도 이렇게 유연하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무대가 동아리로 발걸음하게 합니다



ㅎㅎ 눈만 하늘을 보시네요. 몸이 마음 같지 않아요



커튼콜_ 우리 팀 모두 너무너무 잘 했어요

노노난타



복을 치다보니 오십견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늘로 쪽 뺐은 팔, 준비하시고~



시선은 머~얼~리, 시선처리가 얼마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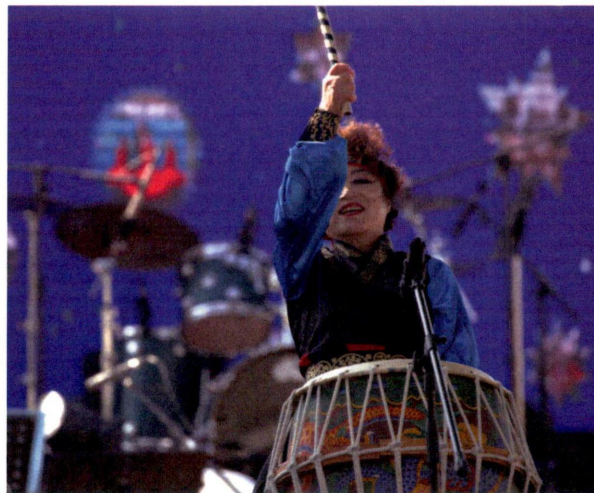
다구요



북채를 꼭 친 손이 아름답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동안 표정이 어떨지 아세요? 순간포착인 이 표정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건 저만 그런걸까요?



하!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세요~ 스트레스 따위는 우리에게겐 없습니다



커튼콜_ 어디서나 빛나는 노노난타 청일점어르신, 출연팀 중 가장 쿨~한 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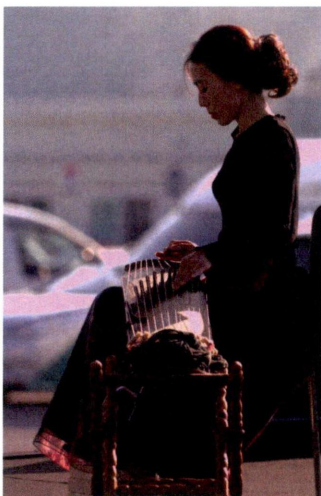
마임과 마술로 이야기하는 거리공연가 이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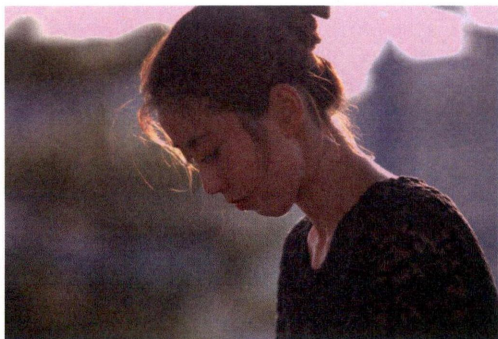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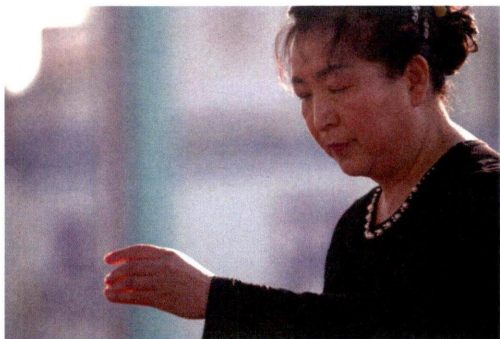


뭔가다른 공연을 이끄는 사회자, 동아리 공연의 유쾌함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마임마술이다. 전체 공연을 스토리 퍼포먼스로 이어가며 막간의 시간까지 관객과 함께 만들어, 보는 공연에서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보고자 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어린이 관객에게 박수~

3) 별별공연-뜻밖의 공연

남양주문화원 가야금<아랑여우>





청아하고 우아한 가야금소리만큼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손끝도 함께 춤을 춥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때로는 경쾌하게 노는 소리가 시원한 바닷바람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미디어 아트가 함께 어우러져 신비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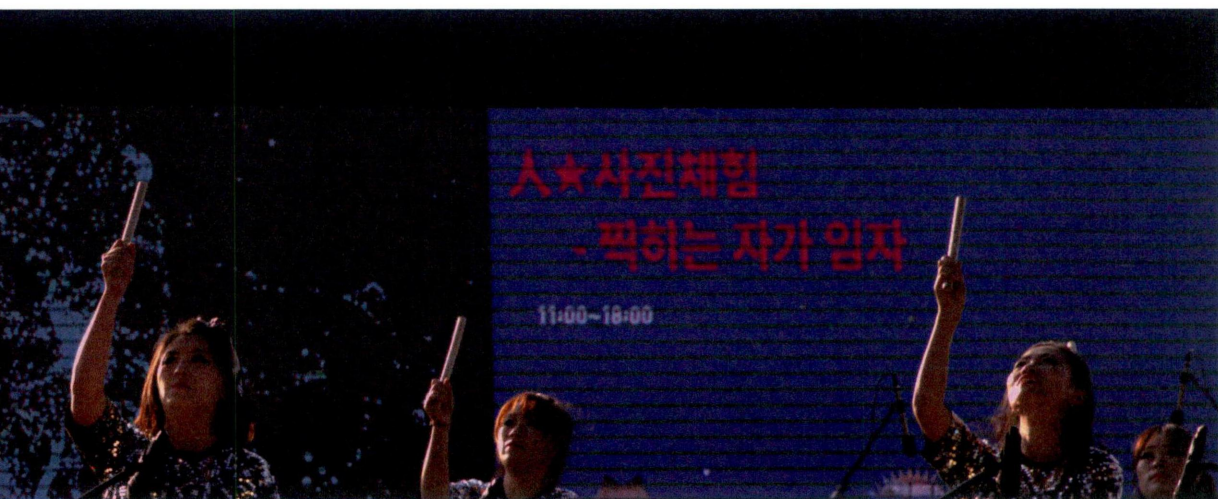
어머~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요. 커튼콜이라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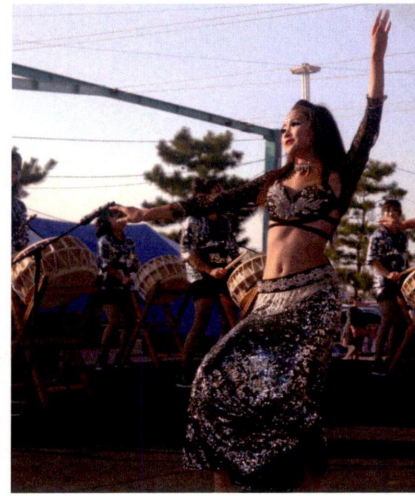
화성생활문화동아리 난타/벨리<바란타&드림걸즈>



아직도 무대위는 너무 떨려요~ 신생동아리 바란타의 단독무대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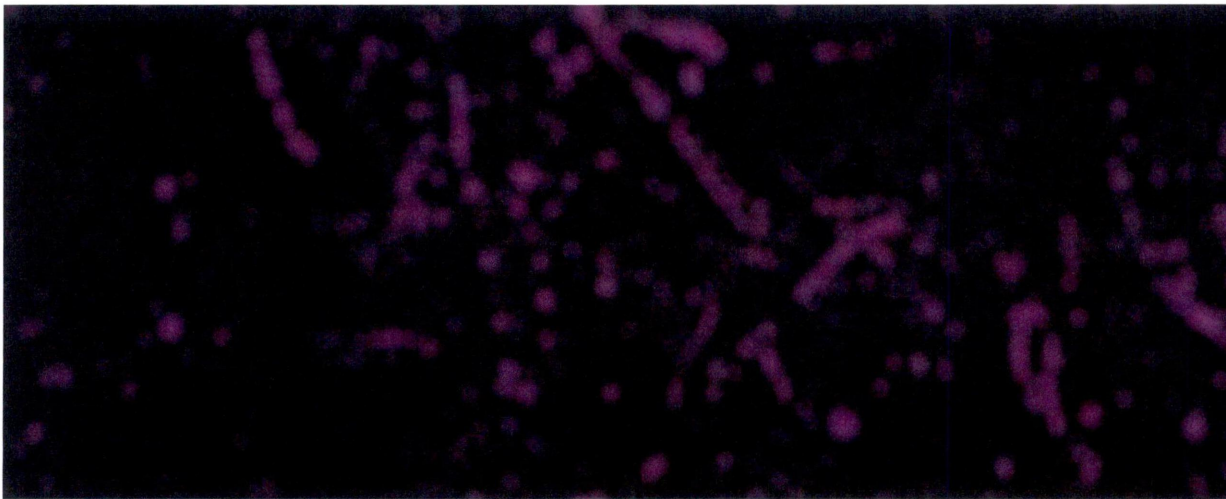


둥! 두구둥! 퍼쿠션의 리듬에 맞춰 너무도 잘 해내는 친구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벨리팀입니다. 이렇게 예쁠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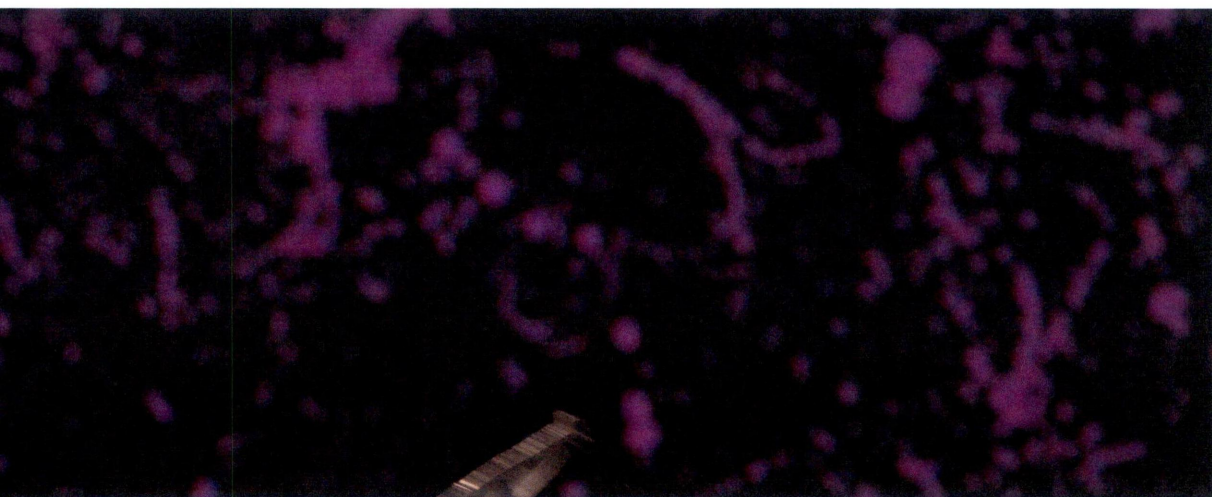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만드는 공연. 몇 개월 간 연습한 만큼만!!! 가장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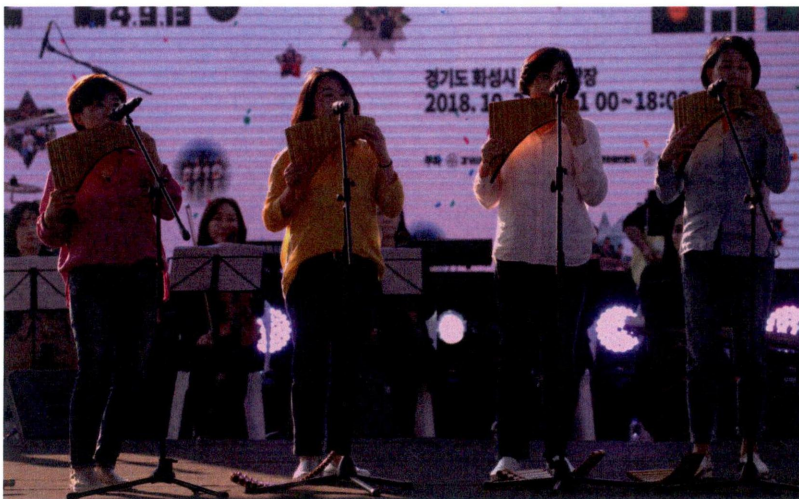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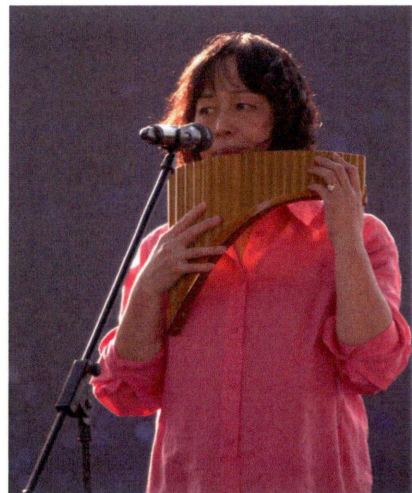




커튼콜_ 반짝반짝 빛나는... 의상도 표정도 반짝입니다



의왕문화원 팬플루트<팬오카소리>



아련한 팬플루트의 독주가 유니즌이 되고, 합주가 되는 순간순간 두근거림도 같이 커져갑니다. 밴드가.. 스트링이.. 국악기가 하나하나 붙으면서 웅장함의 끝에서 모두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많은 악기를 뚫고 흘러나오는 소프라노 오카리나의 청아한 소리가 봄날 아침 노래하는 새소리 같았습니다



커튼콜_ 어머머 이런 것 까지 하는줄은 몰랐어요~ 뭔가 뿌듯하네요

화성생활문화동아리 합창<벨칸토발성동호회&화성폴라리스합창단>



♪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 그런의미가 있죠~♪ 잔잔하게 시작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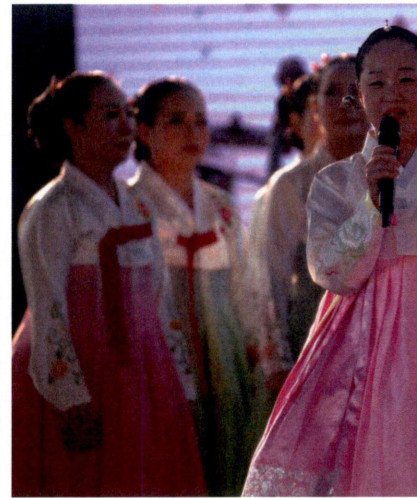


그대여 아무걱정하지 말아요~♪ 어디선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한 피아노로 시작한 합창은 유니즌으로 합창으로, 스트링으로, 국악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발갛게 상기된 어린이들의 불과 입모양이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많은 악기와 사람들이 함께 한 공연이 처음이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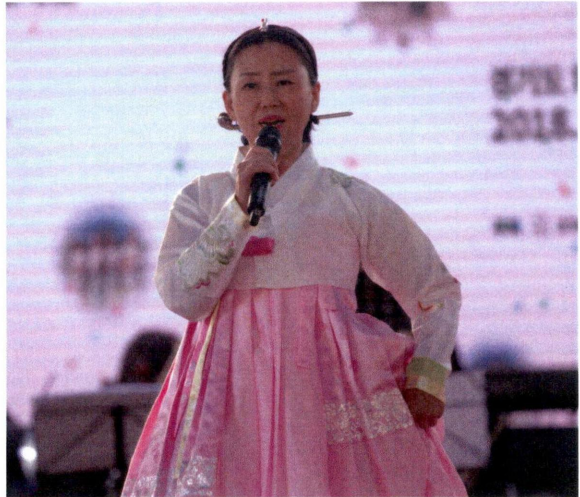


합창의 매력에 더 빠져버렸다는 합창단과 큰 무대의 콜라보공연으로 한껏 들떠있던 어린이 합창단에게~ 모두모두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화성생활문화동아리 한국무용/민요<화산춤사랑&다원예술단>



MR이 아닌 연주로 소리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틀리면 어쩌죠? 하시더니 걱정은 No No~ 구성진 가락으로 엔딩무대를 열어봅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실꺼예요





무용은 정해진 박자가 있어요~ 노래나 연주가 느려지거나 빨라지면 춤추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걱정을 왜 했을까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의상만큼이나 우아~한 무용이었습니니다. 무용팀이 주인공인 이 시간을 배려하기 위하여 다원예술단은 다소곳이 뒷켄에 앉아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더욱더 뭉클했습니다





두팀의 콜라보로 끝난줄 아셨죠? 우리 소리와 우리 춤사위에 비보이의 결합



커튼콜_ 커튼콜마저 일사 분란한 모습. 엔딩무대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행여나 틀릴까봐 가슴 쓸어내리며 맘 즐기던 시간만큼 더 행복한 시간으로 남을 거예요



하우스밴드와 국악팀의 신나는 합주로 화려한 엔딩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콜라보는 상상도 못했다는 우리 동아리들
 ~. 좀처럼 박자를 맞추기 힘들다고 울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앵콜공연





이런 버라이어티 한 라이브공연은 처음이었다는 비보이 '흥'의 축하무대. 하우스밴드와 몇 날며칠 회의를 거듭하며 음악을 조율하고 안무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허설과 긴대기시간을 웃으면서 기다리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보잉!!! 기립박수를 안 칠 수 없네요. 더 좋은 무대에서 또 만나요~

커튼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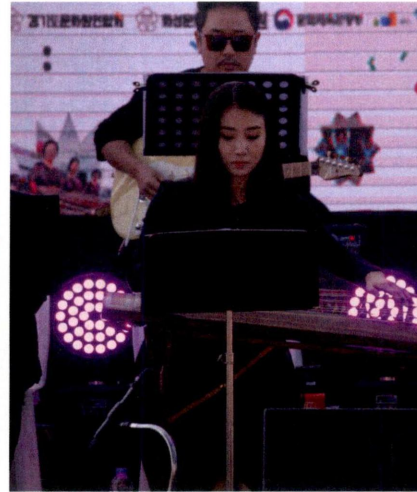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염상덕회장님과 화성문화원 고정석원장님, 그리고 모~든 출연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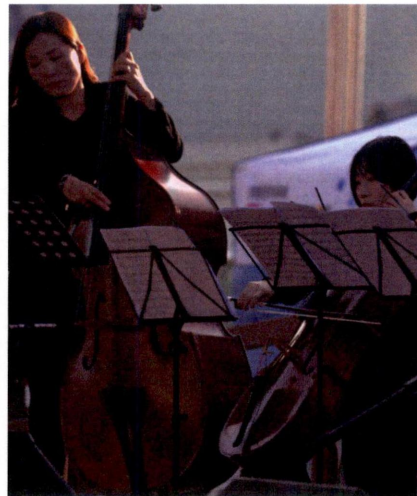
하우스밴드/연극



연극_ 사회자 없는 페스티벌31을 위하여 3명의 연극배우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공연은 감동으로 사회는 웃음으로~ 즐겁게 이어가 주신 극단 동네풍경을 소개합니다



피리.장구/ 해금.가야금/ 해금.장구_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으로 감동을 선물한 국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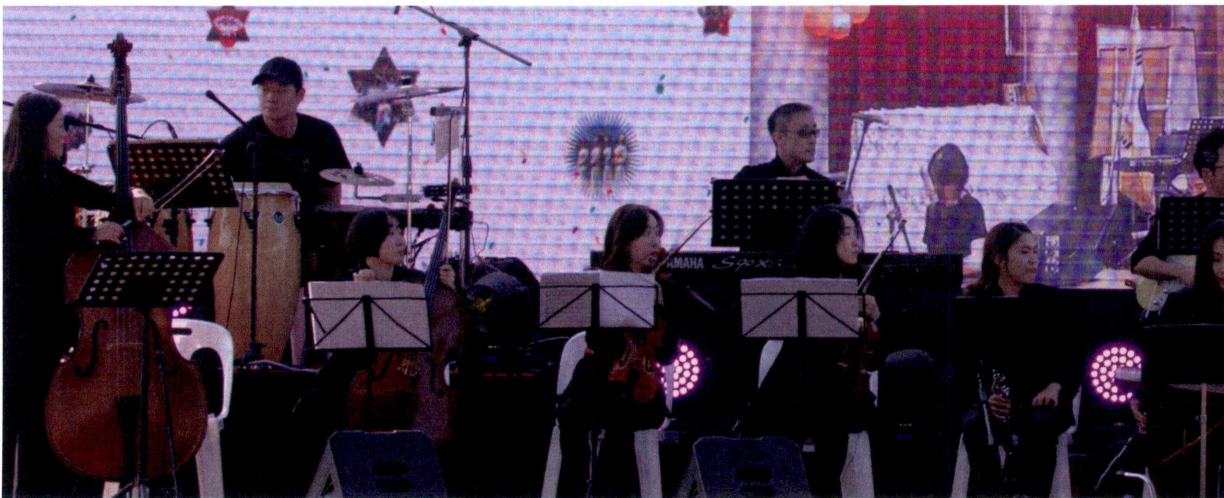


스트링/퍼쿠션_ 스트링 앙상블의 우아하고 드라마틱한 연주로 포근하고도 웅장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난타와벨리의 숨은 주역 퍼쿠션까지~





하우스밴드_ 모든 연주의 베이스가 되어주신 하우스밴드, 동아리와 워크숍하라, 편곡하라, 연주하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신 프로연주자들~ 푸~~~울샷! 땀별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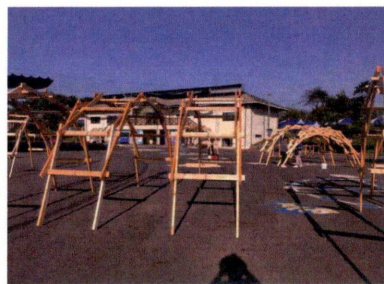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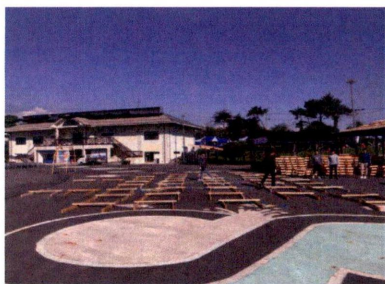


4)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체험 존을 상징하는 다빈치 브릿지 조립

넓은 광장에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표식으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늘막, 놀이 기구 설치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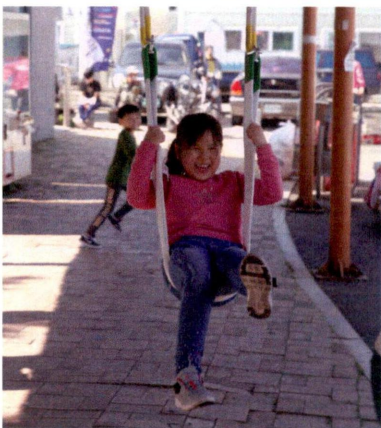
궁평항에 설치되어있는 원두막 아래에서 뒷 화단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활용하여 외줄타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치, 단순한 활동이지만 스릴만점이다.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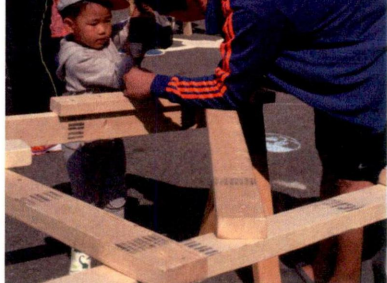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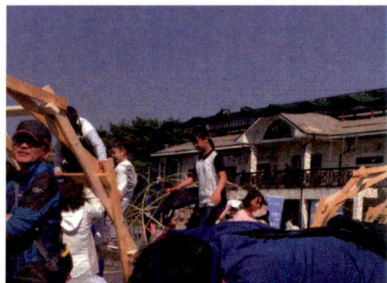
궁평항 넓은 바닥을 이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흙이 아니어서 물에 닦이는 분필을 사용했다. 흙이 있는 마당놀이지만 요즘에는 흙에서 놀 수 없어 방법을 달리했다. 활동 반경이 크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어떤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써 놓은 안내판에도 아이들이 낙서를 잔뜩 해 놓았다



혼자서도 놀수 있는 제기차기, 비석치기, 밧줄그네가 설치되어있다. 그네는 혼자타기, 둘이타기, 서서타기 등 다양하게 응용해서 탈 수 있다



외나무걸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처음과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응용해 굴다리, 미끄럼 외나무로 연결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외나무걸기 놀이터는 커지고 있다



엄마와 함께 돛자리위에서 산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줄을 열기설기 이어놓았다. 아이들을 알아서 잘 논다. 줄이 늘어가면서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신발을 벗고 놀면 더 안전하다는 사실!



5) 직조짜기 별별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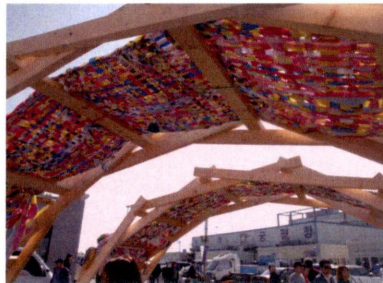
〈폐현수막으로 직조짜기〉

폐현수막을 적당한 폭으로 길게 찢어서 씨실과 날실 삼아 직조하는 방식이다
직조는 옷감을 만드는 데 활용했던 오래된 기본 손기술이다
지금의 하이테크는 이런 전통적인 로우테크에서 시작된 기술이다



〈폐현수막으로 짜여진 직조물 햇볕가리개〉

햇볕이 뜨거워 가리개로 쓰느라 다른 용도로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해먹이나 의자로도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



현수막 특유의 원색의 색깔이 겹치면서 우연의 컬러를 만들어 낸다
의도하지 않는 배색이 아름답다

6) 人★사진체험



7) 특★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파렛트 싣고 왔어요



파렛트 옮기기



파렛트 옮기기



육각 바닥에 세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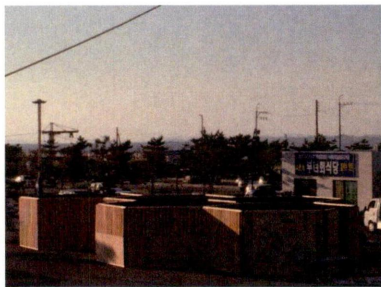
전시장 모니터 앞의자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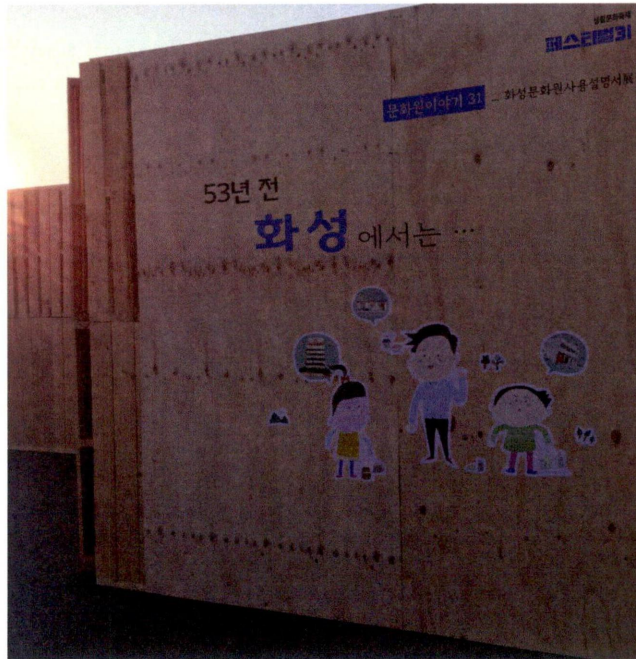
전시장 내부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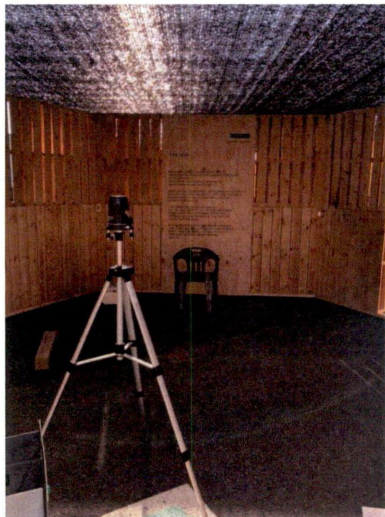
비는 오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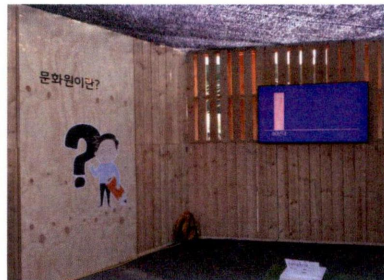
모양이 잡혀가는 전시장 외벽



전시장이 완성되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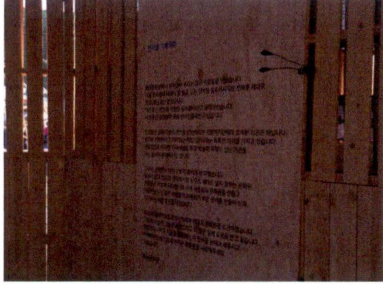
수평기와 글자 작업



전시장 모니터 작동테스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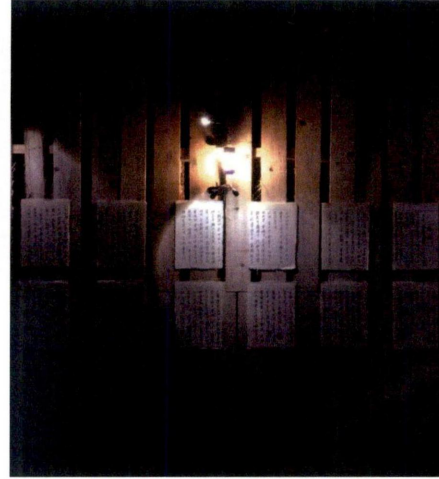
완성되어가는 전시실 내부



1번째 방_ 전시를 기획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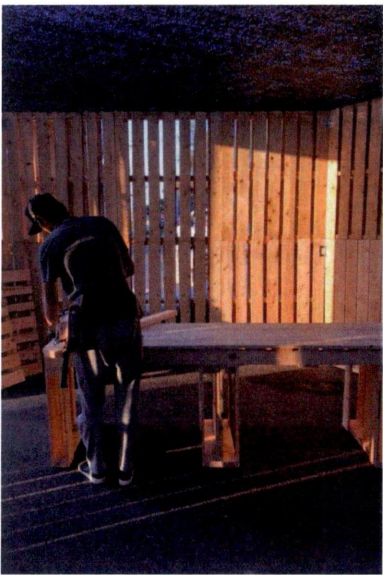


1번째 전시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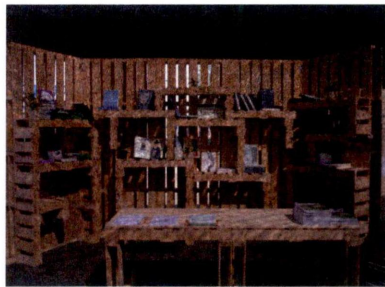


1번 전시장_ 개관 1주년 기념 축하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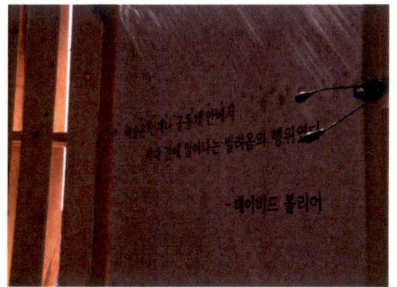
4번째 전시실 내부



5번 전시실 콘테이블 만드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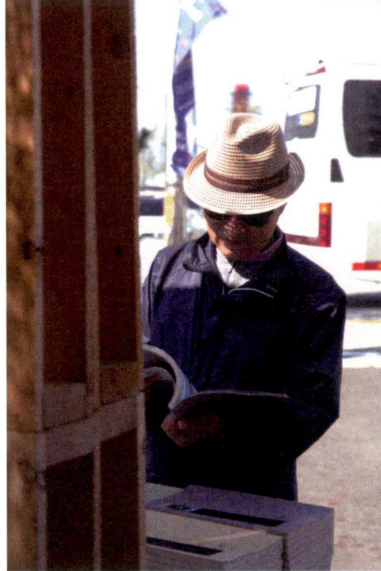
5번째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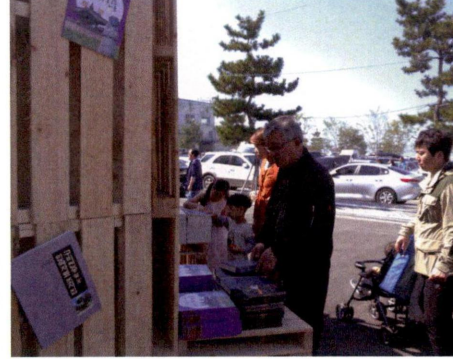
5번째 방_ 마지막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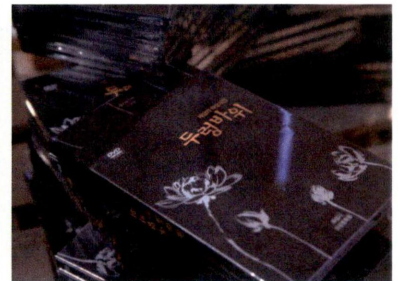
질문하는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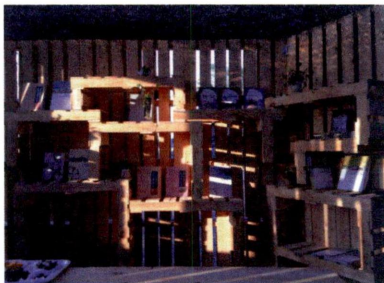
화성문화원 발간물을 보고있는 시민



전시장 상주 도슨트



전시된 화성문화원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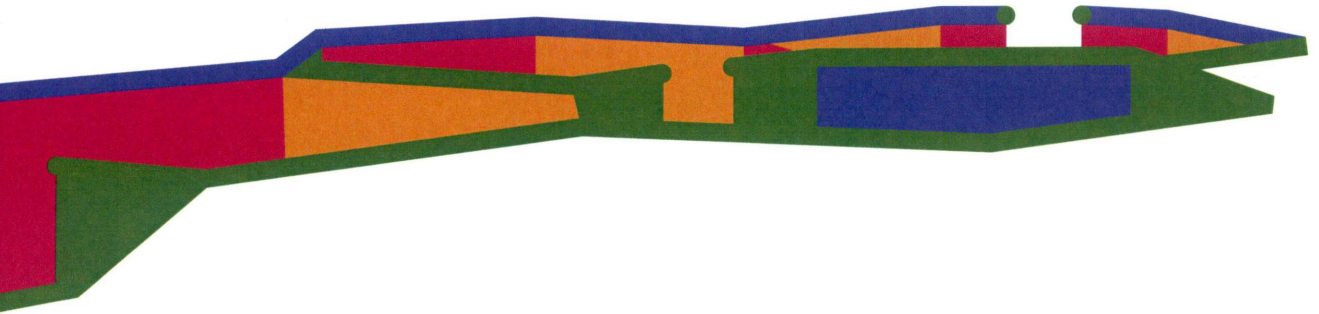


5번째 화성문화원 기록물 전시_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페스티벌

Part III.

별별 스토리



1. 네트워크 파티

일시 : 2018. 10. 24 (토)

장소 :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청년1981

대상 :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참여 동아리회원 및 기관 관계자, 기획단

목적 : 축제 평가 및 네트워크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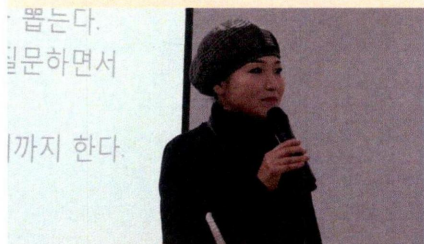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잘 된 점도 있을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잘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페스티벌31을 통해서 화성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가며 여러분들이 화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최영주



“화성문화원의 가장 큰 성과는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파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에 정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화성문화원 사무국장 조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은 작은 행사만 참여했었는데 여러 팀이 콜라보를 이뤄서 해본 것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선생으로서 당일에는 밑에서 구경했는데 엄마가 자식을 내보낸 느낌

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추어인 우리가 여러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_ 다원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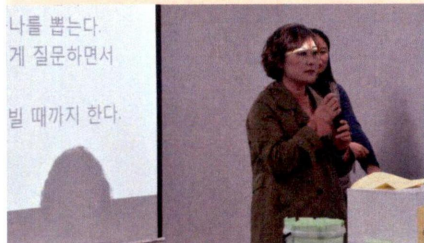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동아리별로 비중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서라도 공연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_ 신나라실버밴드



“모두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7,80대 노인들입니다. 앞으로 더 바라는게 있다면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건강하게 합주하고, 연습하고,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_ 신나라실버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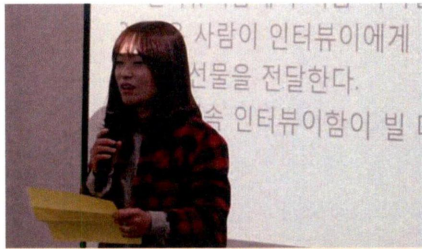
“좋았던 것은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축제 때 거의 전문가적인 실력으로 공연하시는 다른 동아리 분들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_ 의왕문화원 팬오카소리



“아쉬운 것은 동아리별로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자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터뷰 때 제대로 못한 게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_ 바란타



“다른 분들 공연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보다 연배가 있으신데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_바란타



“아쉬웠던 점은 홍보가 더 잘 돼서 기왕이면 화성의 많은 시민들이 우리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수준 높은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_k댄스



“처음 문화원에 등록해서 합창을 배웠는데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동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가사가 정말 외워지지 않았는데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 다 외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기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가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_벨칸토 발성 동호회



“다른 팀 중 기억에 남는 팀이 있다면 오카리나 연주한 팀과 한국무용과 비보이가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공연이 가장 인상 깊어 남았습니다.”

_K댄스

뽑는다.
문하면서
까지 한다.



“다양한 장르, 다양한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화성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공연 해보고 싶습니다.”

_ K댄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콜라보는 많이 했었지만 이번처럼 오케스트라 비보이 함께 어우러져 한 무대에 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_ 화산춤사랑





2. 비하인드 스토리

에피소드 #1 합창단 지휘자의 엄지 척

- 음악감독 이상진



합창단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 없이 첫 만남을 가졌다. 목소리가 굵고 멋진 중년의 남자분은 누가 봐도 성악전공자임을 알 수 있었다. 두개의 합창단을 운영하시고 지휘도 하시고 나름 그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듯하다.

우리의 컨셉이 '콜라보레이션'이었기에 그냥 전통적인 합창이 아닌 다른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본인들이 해오신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했었던 합창+국악+발리댄스+전통무용등이 합쳐져 있다는 영상을 보았다.

아직 콜라보의 개념이 부족한 듯하다. 그들이 보여줬던 영상은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이 해나가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인지시킬지 난감했다.

스테프들끼리의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우리의 컨셉을 정하고 편곡자와의 상의 후에 편곡이 들어갔다.

여러 장르의 경험이 많은 편곡자라 현악+국악+합창+밴드 편성의 곡으로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작 공연의 주체인 동호회의 만족이 필요했기에 그들의 표정을 읽느라 계속 신경이 쓰였다.

공연이 끝나고 지휘자분이 무대를 내려가시면서 눈이 마주쳤다. 크게 인사를 하고 가신다. 오른쪽 엄지를 올리면서...

에피소드 #2 동등분할의 법칙

- 음악감독 이상진



경기민요를 하는 동아리와 전통무용을 하는 동아리의 콜라보를 맡았다. 민요와 전통무용은 익숙한 콜라보 장르라 조율이 쉬울 거라 생각했다.

두 동아리분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주어진 시간은 총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악은 재즈풍으로 연주를 하고 국악기가 같이 들어갈 것이며 현악 앙상블이 품격

있고 멋스럽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말과 함께 열심히 컨셉을 설명해드렸다.

아무 문제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

아마추어 동아리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약간의 경쟁의식이 있었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었기에 주어진 시간의 공평한 할당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 원래 계획했던 재즈풍의 반주에 경기민요를 하시고 그 뒤에서 멋들어지게 무용이 받쳐주고... 등등 다시 편곡과 시간 안배를 해야 했다.

민요를 하시는 분들에게 3분, 그 다음 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3분, 그리고 전체 다 같이 4분. 이렇게 10분을 채워야 했다.

무대에 오르고 음악이 나가고 그분들도 정신없이 10분이 지나가게 열심히 하시고 표정들이 밝다.

같이 해준 연주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꽤 괜찮은 연주이기에 그분들도 느꼈을거라 생각된다. 끝나고 와서 내게 인사들을 해주신다. 감사하다고... 밝은 표정으로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에피소드 #3 기특한 녀석들

- 운영·홍보팀원 박인규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는 어린아이들로 이루어진 '드림걸즈'라는 동아리이다.

아이들이 리허설하고, 공연까지 멋지게 끝내는 것을 보면서 대견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과 함께 무대에 서기 위해 함께 연습하는 과정에 있어

서 어른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내색 하나 없었다.

사실 리허설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공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무가 확실히 정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공연은 대성공.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했는지 알기에 기특하고, 내 아이인 양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어린나이에 많은 관중들 앞에서 무대를 한다는 것이 많이 긴장되고 떨렸을 텐데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준비한 것의 200%를 보여주는 것 같아 멋있었다. '드림걸즈'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처럼 대답하고 멋있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에피소드 #4 사라진 세 번째 곡

- 뭔가 다른 공연 조연출 장세영



다른 동아리와 콜라보레이션 하기 어렵다고 자신들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기로 한 벨리댄스 동아리.

사전 리허설 때 공연 감독, 음악 감독의 컨설팅으로 공연 음악을 재편집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 새 음악 파일을 안 보내기에 편집이

어려운가 싶어 사전 리허설 때 사용했던 음악을 준비해뒀었다.

그런데 축제일에 임박하여 메일이 왔다. 편집한 음원이라고. 이번엔 파일이 하나 적어서 편집하면서 파일 하나를 줄였나 보다 짐작하고 출연 동아리에 확인 전화를 안했다. 축제장 세팅과 마지막 점검에 바빴던 시기라고 변명을 해본다. 재생이 되지만 확인하여 음향 팀에 전달했다.

사고가 나려면 어떻게든 나게 되어 있나보다.

오전에 모든 리허설을 끝냈어야 하는데, 출연 동아리 전문가가 많고 악기 연주 동아리는 사운드 체크를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라이브 연주가 아니라 음원을 사용하는 동아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대 동선 리허설만 진행했다. 벨리 댄스 동아리도 그랬다. 리허설이 길어져 1시에 시작해야하는 '별별공연_뭔가 다른 공연'은 늦게 시작했다. 무대 스태프들과 정리할 시간도 없이 공연을 시작해 좀 어수선했던 감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벨리 댄스 동아리의 세 번째 음악이 나오면서 등장하던 동아리 회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서로 무언의 눈빛과 몸짓을 주고받더니 무대에서 퇴장해버렸다.

‘잘못됐구나!’

사회자였던 거리공연가를 긴급하게 등장 시키고, 동아리 회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스태프를 보냈다. 세 번째 음악이라고 생각했던 건 레퍼토리 상 네 번째 음악이었고, 음악이 잘못 나와 동아리 회원들은 당황하였고 그대로 무대를 퇴장해버렸던 것.

사회자로 무대를 채우고 있으니 음악을 다시 준비하여 남은 공연을 하자고 했으나, 마음이 상했던 그들은 하지 않겠다고 동아리 텐트로 돌아갔다고 한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벨리 댄스 동아리 텐트를 찾아갔다. 혹시 마음이 상해 축제장에서도 떠나버렸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모두가 텐트가 있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공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사과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본인들이 파일 보내고 확인 전화를 할 수 있었고 음악이 잘못 나왔어도 그 곡에 맞는 퍼포먼스를 했으면 되는데, 본인들도 미숙하게 무대를 떠나버려 미안하다고 했다. 스태프들 당황했겠다고...

축제 마지막까지 함께 즐기고 사후 워크숍에서도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됐지만, 그 당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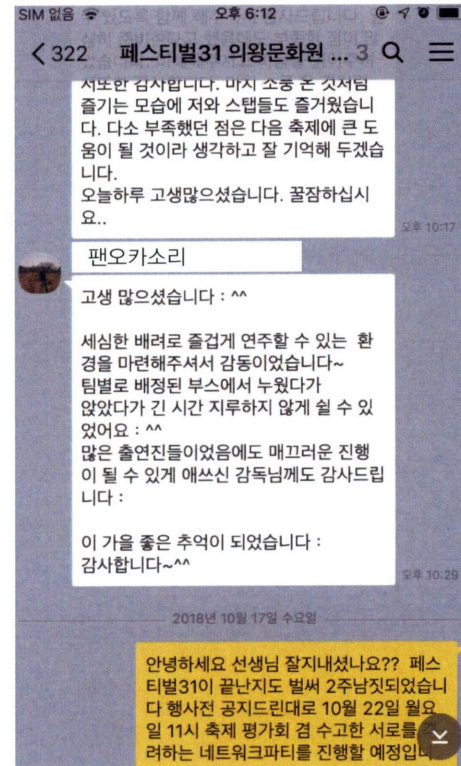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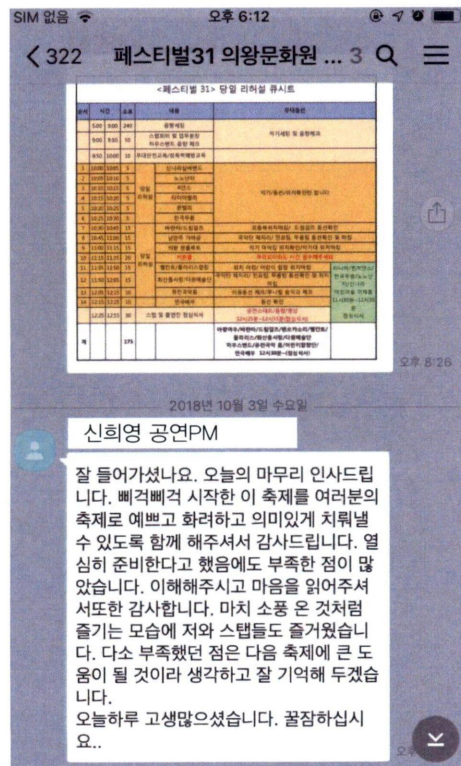
열심히 준비한 걸 다 선보이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다.

에피소드 #5 이 맛에 하는 거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오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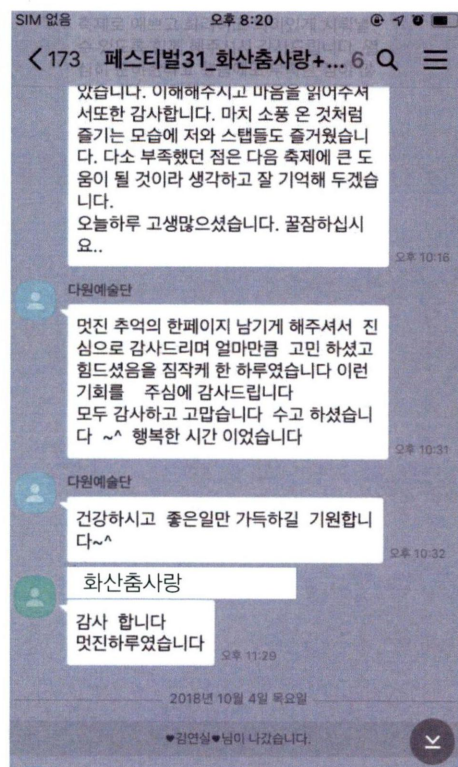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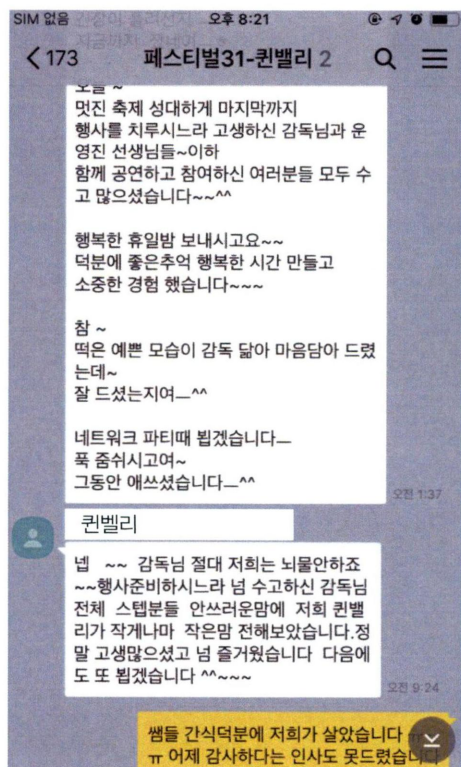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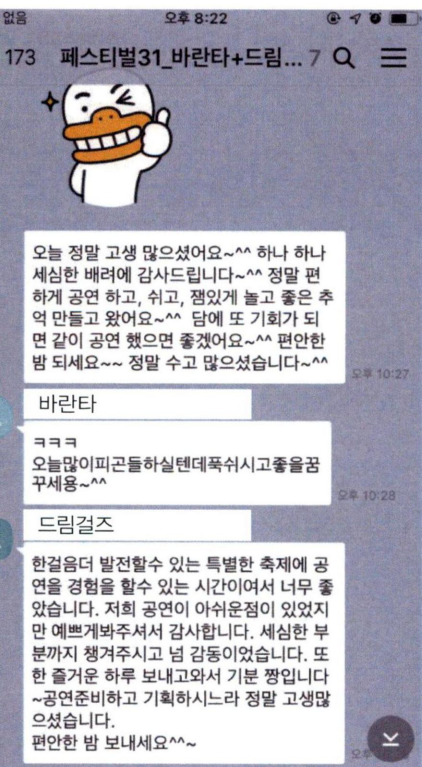
축제가 끝나자 공지와 업무적인 말들로 가득했던 카톡방에 감사인사와 행복했다는 말들이 올라왔다. 카톡방을 만들고 난 후 처음으로 카톡을 확인하는 게 설렜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왔을 때 신나라 실버밴드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다. 연말 인사 차 전화했다고 하시며 대뜸 사무실 주소를 물어보신다. 괜찮다, 괜찮다 사양했는데 며칠 뒤 사무실에 선물세트가 도착했다. 감사 인사 하러 회장님께 전화했더니 너무 작은 선물을 했이라며 화성에 오면 맛난거 사주신단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감사해하실까 생각했는데 회장님이 네트워크 파티 때 '즐겁게 놀았다'는 표현이 생각났다. 노년에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감사하다는게 아이러니 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담은 감사의 표현에 지난 과정들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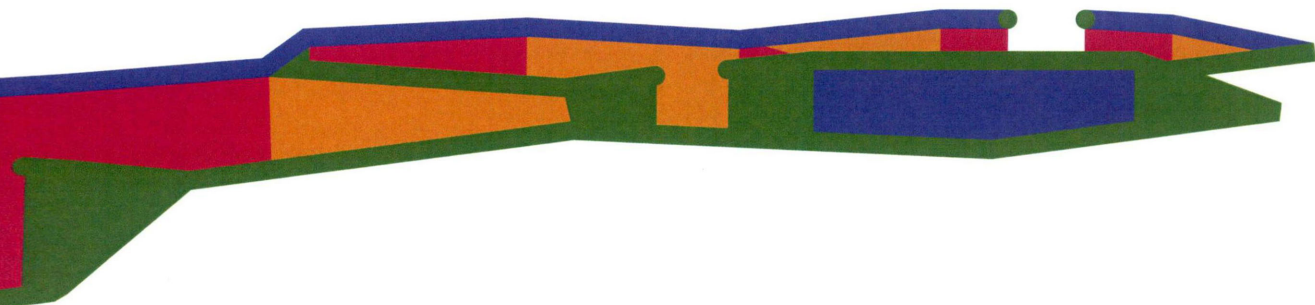
누군가 문화기획은 참여자들 반응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다. 힘들기도 했지만 이 맛에 또 내년을 생각한다.



페스티벌31

PartIV.

페스티벌31 개요 및 성과



1. 사업개요

축제명 : 제5회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개최기간 : 2018년 10월 3일(수)

장소 : 화성시 궁평항 광장 일대

주최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화성시, 화성시의회

1) 추진배경

■ 어떻게 하면 지역사람들에게 문화원의 활동을 알릴 수 있을까?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존, 보급해 온 화성문화원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마련

■ 문화원은 생활문화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향토문화의 일상성을 재해석, 생활문화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전통-지역성-향토문화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줌

■ 끝까지 서로를 응원해주는 축제가 가능할까?

지역과 지역 주민이 문화사업의 배경이 되어왔던 것에서 탈피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의 장을 지방문화원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함

2) 목적

■ 지역의 향토문화를 이어가는 유관기관 및 동아리들과 협력하여

■ 한국의 전통과 화성의 향토문화가 드러나는 자리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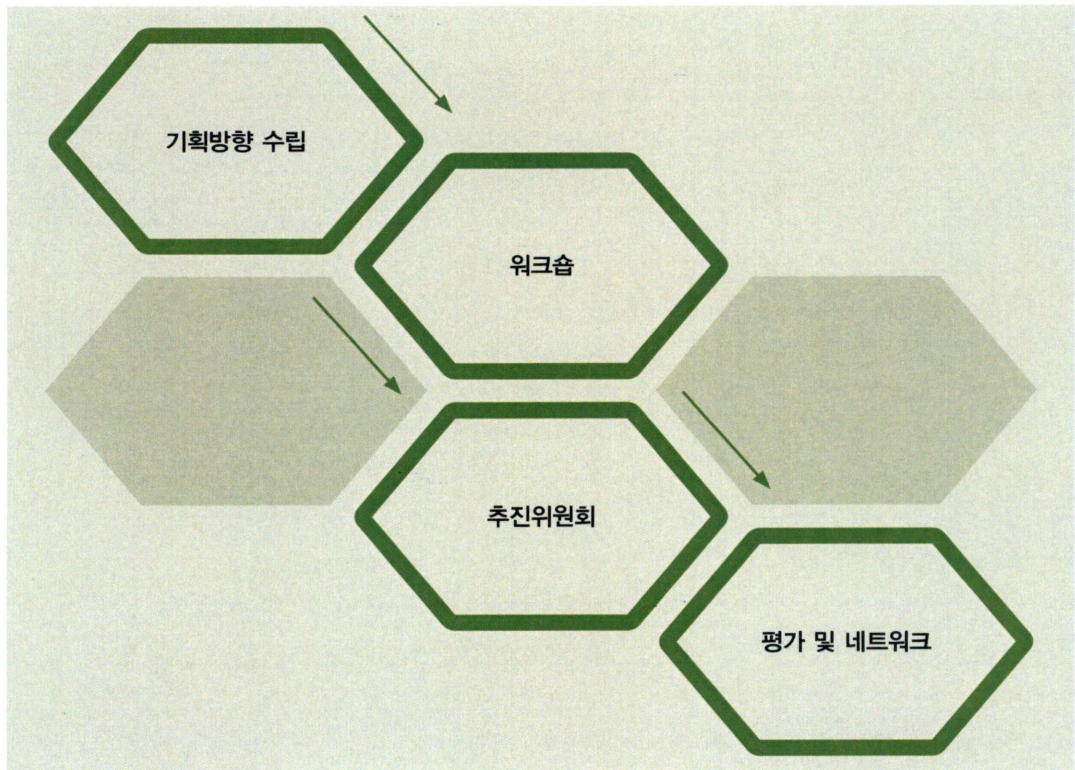
■ 시민들의 참여로 전통과 향토문화가 창작, 놀이로 펼쳐지는 축제 마련, 화성 지역의 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3) 추진방향 및 방법

■추진방향

- 보편적 인식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재현하는 자리를 마련, 문화원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
- 지역성을 구체화시키는 마을의 일상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축제로 구성
- 전문기획자, 큐레이터, 예술가들이 협력은 하되, 지방문화원 및 문예동아리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장 - 전문가(예술가, 큐레이터)와의 협력, 동아리간의 협력 과정에 중심을 두고 동아리 중심의 수준 높은 지역 특성화 콘텐츠로 개발
- 사전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축제 주체가 되도록 과정 마련
- 개최지역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특성을 극대화시켜 공연,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획

■추진방법



4) 추진경과

기획/진행 회의	워크숍	공연기획/진행	전시, 체험 기획/진행
3/7 실무자회의/ 축제사무국 구성			
4/24 기획회의	4/24 1차 생활문화동호회대상 워크숍		
5/26 기획회의			
6/7 기본계획 확정	5/10 2차 평생학습기관대상 워크숍		
7/4 컨셉회의	6/9 3차 통합 워크숍	7/3 다원예술단& 화산춤사랑 콜라보 기획회의	7/11 전시 기획회의
7/11 행사장 및 주변 조사		7/6 바란타&드림걸즈 콜라보 기획 및 연습	8/27 전시 영상작가 기획회의
8/22 안전계획, 세부계획 수립	6/16 4차 레퍼토리 기획 워크숍	8/3 공연 레퍼토리 확정	8/27 전시 영상작가 기획회의
9/2 행사장 및 주변 조사		9/6 1차 리허설 및 영상촬영	9/2 체험 진행 작가 회의
9/3 후원명칭 승인 공문 발송		9/18 벨칸토발성동호회& 폴라리스합창단 연습 및 영상촬영	9/19 빛그림사진동아리 궁평향 답사 및 촬영
9/21 추진위원회/행사보험/ 스태프, 봉사자 모집 완료/프로그램 안내 공문 발송		10/1 무대설치	10/1 전시·체험부스 설치
9/24 최종 업무분장		10/2 조명, LED 설치	10/2 전시·체험부스 설치 레이팅/브릿지, 직조기 조립
10/1 큐시트 회의			
10/2 후생점검			
10/3 운영·후생 진행		10/3 당일 리허설/공연진행	10/3 전시·체험 진행
	10/22 네트워크 파티		10/4 전시·체험부스 철수

2. 추진성과

1) 사업성과

프로그램 진행 횟수	교류 프로그램 9	당일 프로그램 5	
참가규모	총 32	동아리 18	예술가(팀) 14
활동분야	공연 27	전시/체험 5	

- 생화문화예술동아리간의 교류 및 확장의 기회 제공
- 워크숍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참여 동아리의 만족도 높은 축제 추진
- 동아리 및 문화원 회원의 한마당 축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대
민 홍보 및 문화원으로의 진입경로 확장
- 개최지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 강화
-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추진 방식인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주체적 참여
로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의 초석 형성

2) 프로그램별 추진성과

■교류 프로그램 추진성과

구분	횟수	내용	일시 및 장소
1,2차 생활문화동아리 의견수렴 워크숍	1	화성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대상 축제공지 및 의견 수렴	4. 24(화) 13:00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1	복지관,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대상 축제공지 및 의견 수렴	5. 10(목) 14:00 화성문화원
3차 통합워크숍	1	축제 기본계획(안) 공지 및 동아 리 소개	6. 9(토) 12:00 화성문화원
4차 동아리+예술가 워크숍	1	참가 동아리 선정 및 콜라보레이션 공연/전시 협의	6. 16(토) 12:00 화성문화원
콜라보레이션 조율	3	동아리 콜라보레이션 조율 및 연습	6월~8월 세부일정 : 팀별 조율
1차 리허설	1	공연 리허설 및 세부 레퍼토리 결정/ 무대 안전 및 성인지 교육	9. 6(목) 10:00~17:00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사후 워크숍	1	축제 평가 및 네트워크 다지기	10월 22일(월) 10:00 경기상상캠퍼스

- 화성지역 생활문화예술동아리-기획자, 예술가 교류의 장(場) 제공 (예술가-동아리 콜라보레이션 공연 및 워크숍을 통한 공연감독 무대컨설팅, 전시감독과 체험동아리 체험부스 기획)
- 이번 '페스티벌3I'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동아리 간 네트워크. 축제 전, 후 워크숍 참석도 매우 높았으며 사전 붙임을 통해 축제 참여도를 높임
- 화성문화원을 거점으로 화성지역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 향후 네트워크의 지속성 및 연계 가능성 높임

■ 당일 프로그램 추진성과

구분	일정	내용
특★한 전시 _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	11:00~18:00	화성문화원 역사와 활동 영상 전시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11:00~18:00	노는 사람이 만드는 놀이터 - ○○을 빼고 노는 놀이터 - ○○과 나누는 노는 놀이터 - ○○에 더해서 노는 놀이터 - ○○를 곱해서 노는 놀이터
직조짜기 별별체험	11:00~18:00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 짜기 체험
人★사진체험	11:00~18:00	화성빛그림 동아리 활동가가 축제 풍경 촬영 및 전시 전시된 사진 속 '나'를 찾으면 사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전시회
별별공연 _뭔가 다른 공연	13:00~14:30	화성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쇼케이스
별별공연 _뜻밖의 공연	16:00~17:30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예술가 콜라보레이션 기획 콘서트

●특★한 전시

- 문화원의 활동과 역사를 애니메이션화 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방문화원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의 기회 마련
- 문화원 사업의 소개 및 프로그램 설명에 있어 전문 도슨트가 관련 성과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
- 팔레트를 이용, 심미성, 안전성을 감안한 5각형 별집구조를 제작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시 관람 기회 제공

●別別공연(뭔가 다른 공연, 뜻밖의 공연)

- 공연/전시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뷰 영상 촬영으로 개별 동아리별 과정과 이야기를 보여주었음
- 사전 워크숍을 통해 동아리 간 관계 형성을 시도하였으며 모든 동아리가 마지막 무대에 서는 커튼콜을 기획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존의 발표회 형식의 공연에서 벗어나 타 장르 간,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동아리 활동의 질적 향상 및 자체 콘텐츠를 확보에 만족도 높았음
- 마술과 연극 장르를 활용, 스토리를 덧입힌 진행으로 관객 호응도가 높았음
- 뭔가 다른 공연 : 9개 동아리 참여 / 6개 무대

구분	출연팀	장르
1	신나라실버밴드	밴드
2	타니아벨리	벨리댄스
3	퀸벨리	벨리댄스
4	봉담호수무용단 진안다람무용단 팔탄온누리무용단 화성실버무용단	한국무용
5	K댄스	스포츠댄스
6	노노난타	난타

- 뜻밖의 공연 : 8개 동아리 참여 / 5개 무대

구분	출연팀	장르	장르
1	남양주문화원 아랑여우	가야금	+전문 가야금 연주자, 장구, 미디어아트
2	바란타	난타	+퍼쿠션, 하우스밴드, 미디어아트
	드림걸즈	벨리댄스	
3	의왕문화원 팬오카소리	팬플루트	+하우스밴드, 현악5중주, 미디어아트
4	벨칸토발성동호회	합창	+어린이 합창단, 하우스밴드, 현악5중주, 국악4중주, 미디어아트
	화성폴라리스합창단		
5	화산춤사랑	한국무용	+하우스밴드, 국악4중주, 비보이
	다원예술단	민요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직조짜기 별별체험, 人★사진체험

- 전통문화에 치우쳐 있던 문화원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 공연, 전시, 체험, 놀이터 등 다양한 시민참여부스는 특히 가족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됨

3. 홍보

1) 메인 디자인 컨셉

- 화성 생활문화동아리 중심의 축제를 의미하는 부제 '별별화성4.9.13'과 '페스티벌31'브랜드를 강조하는 타이포그래피 중심 디자인
- '문화원'이 가진 '전통', '옛스러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자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의 폰트 사용
- 참가하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하는 모습 사진과 다양한 도형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표현

2) 홍보방안

■ 홍보 도구 및 매체 다양화

● 다양한 영상 제작 및 배포, 공연 콘텐츠로도 활용

- 축제 기획, 준비 과정에서 동아리들 회원들이 참여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 축제 당일 공연 콘텐츠로서 무대에서 상영. 이 영상을 통해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 회원들이 일상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생활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화성시 생활문화에 대한 간접 홍보
- 사후 동아리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 회원들에게 배포
- 그 외 축제 사전 홍보 영상, 스케치 영상 등 제작, 온라인 홍보

● 동아리가 주인공인 홍보 인쇄물 제작

- 화성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인 만큼 동아리들이 주인공인 홍보 인쇄물 제작
- 공식 초대장 외에 동아리별 초대장을 제작하여 동아리 회원들이 축제 주최/주관명이 아닌 동아리 이름으로 지인인 화성 시민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함
- 참여하는 생활문화동아리 정보와 활동 에피소드를 실은 동아리북 제작, 참여하는 동아리들을 위한 기념 책 및 홍보물로 활용

●일상품을 기념품으로 제작 및 배포

- 옥외홍보물이나 인쇄물은 축제 종료 후 버려짐. 축제 후에도 일상에서 '페스티벌31'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볼펜, 장바구니 제작, 배포

●언론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온라인 홍보

- 보도자료 제작, 경기도 일간지 및 화성 지역 언론사 배포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축제 정보 등 다양한 게시판에 온라인 홍보
- 기타 SNS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영상 및 포스터 게재

■화성 생활문화동아리 및 관계자 대상 축제 관련 '공개'워크숍 개최

-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화성에서 '페스티벌31'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축제 워크숍 개최
- '페스티벌31'에 관심있는 생활문화동아리 관계자 누구나 참석 가능할 수 있는 '공개'워크숍으로 진행, '페스티벌31'홍보 및 참여 희망 접수

■주최, 주관의 네트워크 기관, 단체 활용

-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역 문화원의 전국 네트워크 활용, 전국 문화원으로 축제 홍보물 발송
- 경기도 및 화성 문화예술 단체 대상 홍보물 발송

3) 홍보진행과정

구분	일정	내용
디자인 컨셉 회의	8.3	내부 디자인 컨셉회의
디자인 업체 선정 및 기획회의	8.14	디자인 및 홍보물 컨셉 회의
메인 디자인 선정	8.20	메인 디자인 확정 및 홍보물 종류 확정
1차 홍보물 제작	8.24~9.5	참여 동아리별 초대장 및 공식 초대장 제작
초대장 배포	9.6	경기도 31개 문화원 및 전국 16개 시, 도 문화원 연합회 등 관계처 초대장 발송 참여 동아리별 초대장 배포
화성 생활문화동아리 홍보 영상 제작	9.6~9.23	축제에 참여하는 화성 생활문화동아리 연습과정과 회원들의 인터뷰 영상 촬영 축제 당일 관람객들 대상 화성생활문화와 동아리 활동 홍보
언론 홍보	9.20	경기일보, 경기신문, 경인일보, 중부일보 등 보도 자료 배포
거리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막 게첨	9.20	화성 관내 및 행사장 인근 거리 현수막 게첨
옥외 게시물 제작	9.20~10.1	옥외 게시물(배너 및 현수막)제작
2차 홍보물 제작	9.20~27	인쇄 홍보물-리플릿, 동아리북 제작 판촉기념품-볼펜, 장바구니 제작
온라인 홍보(1차)	9.30	홍보 영상 유튜브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업로드 SNS홍보
행사 안내 당일 홍보물 배치	10.1	옥외 게시물 설치 및 2차 제작 홍보물 비치
축제 당일 영상 촬영	10.3	사후 홍보를 위한 축제 영상 촬영
결과보고서 및 영상 제작	10~12	
온라인 홍보(2차)	12.31	축제 스케치 영상 유튜브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업로드

4) 홍보성과물

■ 홍보물 종류

구분	내용	크기(단위 mm)	수량
옥외홍보물	건물 외벽 현수막	1500 x 7000	1
	거리용 현수막	7000 x 900	27
	가로등 배너	600 x 1800	50set
	축제 세부프로그램 안내 배너 및 현수막	-	25
	축제 참여 생활문화동아리 현수막	6000 x 500	18
	축제 참여 전문가 및 관계자 현수막	6000 x 500	7
	포토존	3000 x 2000	2
인쇄물	공식 초대장	180 x 120	900
	동아리별 초대장 13종	180 x 120	650
	참여 생활문화동아리 소개 동아리북	176 x 250	500
	리플릿	148 x 210	10,000
	결과보고서	176 x 250	200
기념품	참가자용 기념품 타포린 가방		500
	관람객 및 설문지 작성자 배포용 기념품 기념 볼펜		2,000
영상물	페스티벌31 SNS 홍보 영상		1
	페스티벌31 타이틀 영상		1
	생활문화동아리 홍보 및 인터뷰 영상 12종		12
	페스티벌31 스케치 영상		1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		1

■ 홍보물 시안

화성문화원 건물 외벽 현수막

생애문화축제

페스티벌

벚꽃 화성

4.9.13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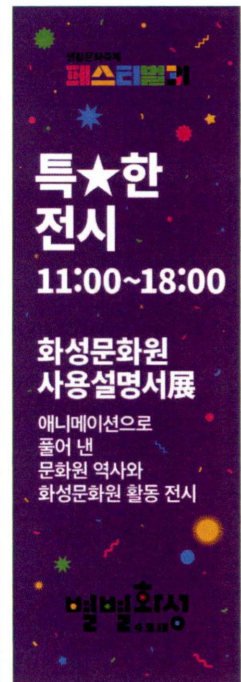
2018.
10. 3. (수)
11:00
~
18:00

거리용 현수막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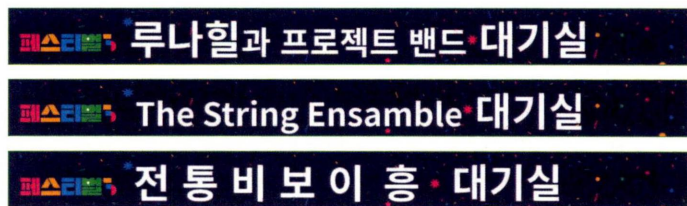




축제 참여 생활문화동아리 현수막



축제 참여 전문가 및 관계자 현수막



포토존



공식 초대장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별별화성
2018. 10. 3(수) 11:00 ~ 18:00

경기도 화성시 공평항 광장 초대시간 16:00

별별공연
꿈가 다른 공연
웃 박지 공연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노는 사람이 만들어 놀자!
'OO를 빼고 노는 놀이터'
'OO라 나누는 놀이터'
'OO에 대해서 노는 놀이터'
'OO를 공에서 노는 놀이터'

인★사건체험
황순원 형이 시간 회고록 '노상 사진 고집'
사진 속 '나'를 찾아라 '찍히는 자가 일자'

독★한 전시
화성문화원 사방살림서

직조짜기 발명 체험
문가죽이 함께! 손으로 생각하기

초대합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화성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이 화성시 공평항에서 열립니다.

마을의 일상성이 축제로 드러나는 이번 <페스티벌31>에서는 지방문화원 및
화성시 생활문화동아리와 전문기획자, 예술가가 서로 협력하여
동아리 중심의 수준 높은 지역특성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성지역 사람들의 '따로 또 같이'의 삶이 어떻게 문화예술활동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영상덕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동아리별 초대장 13종

화성빛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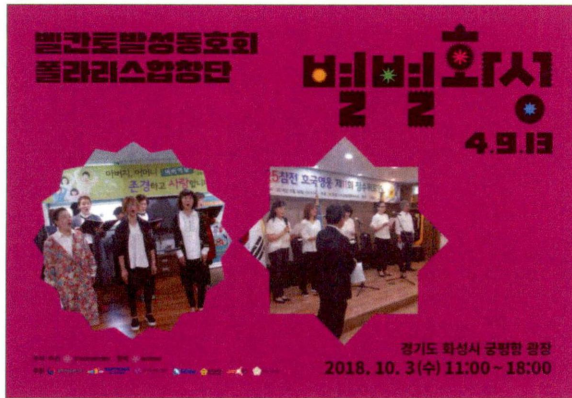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공평항 광장
2018. 10. 3(수) 11:00 ~ 18:00

별별화성
2018. 10. 3(수) 11:00 ~ 18:00

초대합니다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영상덕
화성문화원장 고정석





리플릿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키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키>은
개치지역의 특성과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예술가가 활약하여 펼쳐는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이다.

별별도시
2018. 4. 9. 13

2018 <페스티벌키> 개최지인 화성시의
4개 읍, 9개 면, 13개 동에 사는 화성 시민들이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표현한 로고이다.

페스티벌키 일정

11:00~18:00	특수한 전시 화성문화원 상용실영시문
11:00~18:00	만들어노는 별★놀이터
11:00~18:00	직조하기 발발레방
11:00~18:00	★사자전해방 책치는 자가 일자
11:00~13:00	★사자전해방 노상 사진 교실
13:00~14:30	별칭공연 원가 다른 공연
14:30~16:00	★사자전해방 노상 사진 교실
16:00~17:30	별칭공연 꽃밭의 공연

모든 체험은 선착순 모집이며, 참가 신청에 성황에 따라 한한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재단의 문화환경사업, 경기도 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키

별별도시
2018. 10. 3(수) 11:00 ~ 18:00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문화전화 (031) 239-1020**

주최: 한국문화재단, 경기도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문화재단
후원: EBS, NHK, MBC, KBS, YTN, JTBC, SBS, KBS2, MBC2, KBS1, JTBC2, SBS2, KBS3, MBC3, KBS4, MBC4, KBS5, MBC5, KBS6, MBC6, KBS7, MBC7, KBS8, MBC8, KBS9, MBC9, KBS10, MBC10, KBS11, MBC11, KBS12, MBC12, KBS13, MBC13, KBS14, MBC14, KBS15, MBC15, KBS16, MBC16, KBS17, MBC17, KBS18, MBC18, KBS19, MBC19, KBS20, MBC20, KBS21, MBC21, KBS22, MBC22, KBS23, MBC23, KBS24, MBC24, KBS25, MBC25, KBS26, MBC26, KBS27, MBC27, KBS28, MBC28, KBS29, MBC29, KBS30, MBC30, KBS31, MBC31, KBS32, MBC32, KBS33, MBC33, KBS34, MBC34, KBS35, MBC35, KBS36, MBC36, KBS37, MBC37, KBS38, MBC38, KBS39, MBC39, KBS40, MBC40, KBS41, MBC41, KBS42, MBC42, KBS43, MBC43, KBS44, MBC44, KBS45, MBC45, KBS46, MBC46, KBS47, MBC47, KBS48, MBC48, KBS49, MBC49, KBS50, MBC50, KBS51, MBC51, KBS52, MBC52, KBS53, MBC53, KBS54, MBC54, KBS55, MBC55, KBS56, MBC56, KBS57, MBC57, KBS58, MBC58, KBS59, MBC59, KBS60, MBC60, KBS61, MBC61, KBS62, MBC62, KBS63, MBC63, KBS64, MBC64, KBS65, MBC65, KBS66, MBC66, KBS67, MBC67, KBS68, MBC68, KBS69, MBC69, KBS70, MBC70, KBS71, MBC71, KBS72, MBC72, KBS73, MBC73, KBS74, MBC74, KBS75, MBC75, KBS76, MBC76, KBS77, MBC77, KBS78, MBC78, KBS79, MBC79, KBS80, MBC80, KBS81, MBC81, KBS82, MBC82, KBS83, MBC83, KBS84, MBC84, KBS85, MBC85, KBS86, MBC86, KBS87, MBC87, KBS88, MBC88, KBS89, MBC89, KBS90, MBC90, KBS91, MBC91, KBS92, MBC92, KBS93, MBC93, KBS94, MBC94, KBS95, MBC95, KBS96, MBC96, KBS97, MBC97, KBS98, MBC98, KBS99, MBC99, KBS100, MBC100

별별공연 - 뭔가 다른 공연

13:00~14:30

학생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쇼케이스

★신나라살바토드 / 타니아벨리 / 칸발리 / 풍당호수무용단 / 진단다림무용단
말한은누리무용단 / 화성상설무용단 / K댄스 / 노노난타





★마임과 마술로 이야기하는 거리극연가 아재들

만들어 노는 별★놀이터 11:00~18:00

노는 사람이 만들어 놀자!

- 'OO를 빼고 노는 놀이터'
- 'OO과 나누는 놀이터'
- 'OO에 대해서 노는 놀이터'
- 'OO를 골라서 노는 놀이터'



별별공연 - 뜻밖의 공연

16:00~17:30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과 펼치는 콜라보레이션 기획 콘서트

- # 그리움, 눈사람에 깃대하 놓아줘 달리는
날방주요원 **가야금 <아랑어구>**
- # 일일, 도라지마을 관객
화성생물문화동아리 난닥!>미러비 & 드림딜즈
- # 음악, 누구나 쉬어가는 곳
희망문화회 뽀뽀루트 <벤조코사르>
- # 때로 모 공익, 아름다운 순간에 머무르기
화성생물문화동아리 발롱 <멜란토피칼소프와 화성물리학실험장>
- # 노래와 춤, 바깥에 날리는 봄과 같은 것
화성생물문화동아리 한국유희/민요 <화산문화제 & 다원예향>

힐링 예술가
유니버설 프로젝트 밴드 어라함 국악합창팀 상하역 5중주(The string ensemble)
해맑은어린이합창단 전현복보이 그룹 한국배우 김태환, 강도훈, 미디아이더 손주형

직조짜기 별별체험 11:00~18:00

온가족이 함께! 손으로 생각하기



인★사진제협 - 토샹 사진 교실

1차 11:00~13:00 2차 14:30~16:00

촬영법그림 토샹리와 함께하는 시민 참여 사진 워크숍 ▶ 워크숍 참가자는 현장에서 선착순 모집합니다.

인★사진제협 - 찍히는 자가 입자 11:00~18:00

촬영법그림 토샹리와 함께하는 사진 속 '나'를 찾아라

- * '촬영법그림' 활동가가 시민들에게 초점을 두는 모습을 사진 촬영 및 전시
- * 전시된 사진 속 나를 찾는 사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전시회

특★한 전시 11:00~18:00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
화성문화원 역사와 활동 영상 전시






참가자용 기념품 타포린 가방



관람객 및 설문지 작성자 기념품 볼펜



여 백

3. 보도자료 현황

구분	보도일	매체명	타이틀	웹주소
1	2018.09.28	경기일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다음 달 3일 화성 궁평항 광장서 '제5회 페스티벌31_별별화성 4·9·13'개최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23618
2	2018.09.30	경기신문	화성 9개동아리 신명난 무대에 어깨춤 들썩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795
3	2018.10.01	화성신문	화성시 문화의 대축제 '페스티벌31'열린다	http://www.ihsnews.com/sub_read.html?uid=31580
4	2018.09.20	화성저널	화성인(人)이 노는 법은 다르다?!	http://m.hsj.co.kr/6695
5	2018.09	경기도뉴스포털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별별화성4.9.13 2018	https://gnews.gg.go.kr/social/travel_gg_view.asp?contentId=2561488&sigunguCode=&pageNo=1&cat1=&contentType=Id=15

경기일보

HOME 문화 공연 전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다음달 3일 화성 궁평항 광장서 '제5회 페스티벌31_별별화성 4913' 개최

송시연 기자 | 승인 20180928 | 16면

‘제5회 페스티벌31’이 다음달 3일 화성 궁평항 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매년 지역문화원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페스티벌31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공연 및 전시, 체험 등으로 선보이는 축제다.

화성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준비한 올해 페스티벌31은 ‘별별화성 4913’을 주제로 화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화성시 4개읍 9개면 13개동에 살고 있는 화성 사람들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보여준다. 문화원 동아리뿐 아니라 화성시의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소속 1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워크숍과 사전공연, 콜라보레이션 등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총 6개로 운영된다. 이중 궁평항 광장 무대에서는 ‘뭔가 다른 공연’과 ‘뜻밖의 공연’이 펼쳐진다. ‘뭔가 다른 공연’은 벨리댄스, 실버밴드, 한국무용, 난타, 스포츠댄스 등 9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며, ‘뜻밖의 공연’은 각 지역문화원들에 소속된 동아리와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 및 놀이 부스도 빼놓을 수 없다. 놀이기획자 고무신과 함께하는 ‘만들어 노는 별★(별)놀이터’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짜기 별별체험’,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주는 ‘노상 사진교실’, 내 사진을 찾으려면 가져갈 수 있는 ‘찍히는 자가 임자’와 같은 즐

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아울러 화성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엮은 아카이브 전시 '특★(별)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도 함께 진행된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페스티벌31은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문화원이 지역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화성의 곳곳에 살아있는 향토문화와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시연 기자

경기신문

HOME 문화

화성 9개동아리 신명난 무대에 어깨춤 들썩

민경화 기자 | 승인 2018.09.30 19:04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 31'
화성시 궁평항 광장서 3일 무대
마술·한국무용·민요 등 다채
직조짜기 별별체험 등 체험 가득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이 오는 3일 오전 11시 화성시 궁평항 광장에서 개최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화성문화원이 공동주관하는 '페스티벌 31'은 화성시 4개읍 9개면 13개동에 사는 화성 사람들의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뭔가 다른 공연'은 마술과 마임으로 이야기하는 거리공연가 이재홍의 진행으로 벨리댄스, 실버밴드, 한국무용, 난타, 스포츠댄스 등 9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오후 5시부터 이어지는 '뜻밖의 공연'에서는 남양주문화원 가야금동아리 '아랑여우'와 미디어아트, 의왕문화원 팬플루트 동아리 '팬오카소리'와 실내악 5중주, 학부모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 '바란타', 어린이 벨리댄스 '드림걸즈'의 공연을 비롯해 '다원예술단'의 경기민요와 '화산춤사랑'의 한국무용 합동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끝으로 '벨칸토발성동호회', '폴라리스합창단', '해맑은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합창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다양한 체험 및 놀이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놀이기획자 '고무신'과 함께하는 '만들어 노는 별★(별)놀이터'를 비롯해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짜기 별별체험', 화성문화원 '빛그림사진동아리'와 함께하는 '노상 사진 교실'이 준비됐으며 화성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엮은 아카이브 전시 '특★(별)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도 개최된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은 "페스티벌31을 개최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성과를 보여주는 한 마당이 될 것이고, 문화원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경화기자 mk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지역 대표신문

화성신문

화성신문

화성시 문화의 대축제 '페스티벌31' 열린다

화성 문화원, '별별화성4·9·13' 주제로 3일 공평항 개막

기사입력시간: 2018/10/01 (15:34 00)

서민규 기자

화성시문화원의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가 집약돼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된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이 오는 3일 공평항 공장에서 개최된다.

둘째 '페스티벌31'의 주제는 '별별화성4·9·13'로, 화성시 4개읍 9개면 13개동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떻게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관내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소속 1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전문 기획자와 예술가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지방문화원이 지역특성과 문화를 연구하고 아카이브 해 온 결과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내고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문화원이 걸어야 할 생활문화 영역의 방향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서는 총 6개의 기획프로그램이 전개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공평항 공장 무대에서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땀과 다른 공연'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땀 밖의 공연'이 펼쳐진다.

11시부터 6시까지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 및 놀이 부스는 놀이기록자 '고무신'과 함께하는 '만들어 노는 별★(별)놀이터'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짜기 별별체험', 화성문화원의 '빛그림 사진동아리' 활동가가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주는 '노상 사진 교실', 내 사진을 찾으면 가져갈 수 있는 '찍히는 자가 임자'와 같은 다채로운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화성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엮은 아카이브 전시 '특★(별)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도 함께 진행된다.

고정석 화성문화원 원장은 "축제 기획 과정에서 다져진 동아리간 네트워크를 통해 화성문화원이 지역에서 탄탄한 기틀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염상덕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은 “페스티벌31은 지방문화원이 쌓아온 성과를 보여주는 한 마당이자 문화원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화성저널

화성인(人)이 노는 법은 다르다?!

화성문화원,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개최

기사입력시간 2018/09/20 [17:40:00]

이경찬 기자



‘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31>이 10월 3일(수) 11:00 ~18:00 경기도 화성시 공평항 광장에서 개최된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화성문화원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는 올해 <페스티벌31>의 주제는 ‘별별화성4·9·13’으로, 화성시 4개읍 9개면 13개동에 사는 화성 사람들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어떻게 ‘따로 또 같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문화원 동아리뿐 아니라 화성시 내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소속 1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워크숍과 사전공연, 콜라보레이션 등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기존 동아리 활동에 전문 기획자와 예술가가 머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본 축제에서는 총 6개의 기획프로그램이 전개되는데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궁평항 광장 무대에서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뎌가 다른 공연’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뎌 밖의 공연’이 펼쳐진다.



'뭔가 다른 공연'은 마술과 마임으로 이야기하는 거리공연가 이재홍의 진행으로 벨리댄스, 실버밴드, 한국무용, 난타, 스포츠댄스 등 9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화려하고 신명나는 무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뜻밖의 공연'은 동아리와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남양주문화원 가야금동아리 <아랑여우>와 미디어아트, 의왕문화원 팬플루트 동아리 <팬오카소리>와 실내악 5중주, 학부모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바란타>와 어린이 벨리 댄스<드림걸즈>, <다원예술단>의 경기민요와 <화산출사랑> 한국무용의 콜라보레이션, 화성지역생활문화동아리 <벨칸토발성동호회>와 <폴라리스합창단>, 그리고 <해맑은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합창 공연 등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동아리와 동아리, 동아리와 예술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체험 및 놀이 부스는 놀이기획자 <고무신>과 함께하는 ‘만들어 노는 별★(별)놀이타’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직조짜기 별별체험’, 화성문화원의 <빛그림 사진동아리>활동가가 사진 잘 찍는 법을 알려주는 ‘노상 사진 교실’, 내 사진을 찾으면 가져갈 수 있는 ‘찍히는 자가 임자’와 같은 다채로운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또한 화성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엮은 아카이브 전시 ‘특★(별)한 전시-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展’도 함께 진행된다.

본 행사를 앞두고,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영상덕 회장은 “페스티벌31을 개최함으로써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성과를 보여주는 한 마당이 될 것이고, 문화원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동주관인 화성문화원의 고정석 원장은 “축제 기획 과정에서 다져진 동아리간 네트워크를 통해 화성문화원이 지역에서 탄탄한 기틀을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문화원이 그동안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연구하고, 아카이브 해 온 결과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내는 본 축제를 통해 지방문화원의 성과를 보여주고,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문화원이 갈아야 할 생활문화 영역의 방향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별별화성4.9.13 2018



우편번호 : 18556

전화명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전화번호 : 031-239-1020

홈페이지 : <http://kccfgg.org>

주소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88

개요

생활문화축제 <페스티벌31>은 개최 지역 일상생활의 문화적 요소와 지역 특성을

극대화시켜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동아리, 전문가가 협력하여 동아리 중심의 지역특성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체화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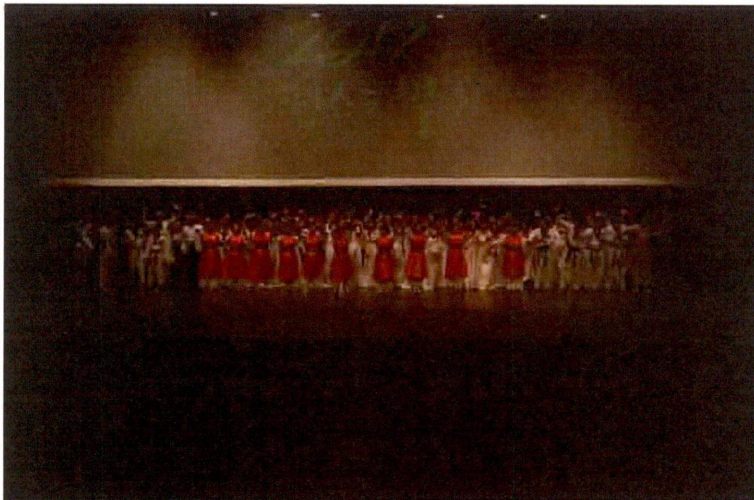
소개

행사종류일 : 20181003

행사장소 :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광장

행사시작일
: 20181003
공연시간 : 2018. 10. 3 (수) / 13:00-18:00
행사프로그램 : - 별별공연 : 뜻 밖의
공연
- 별별공연 : 뭔가 다른 공연
- 만들어노는 별☆ 놀이터
- 직조짜기 별별 체험
- ☆ 사진체험 : 찍히는
자가 임자
- ☆ 사진체험 : 노상 사진 교실
- 특☆한 전시 : 화성문화원 사용설명서
주최자정보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주최자연락처 : 031-239-1020
주관사정보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주관사연락처 :
031-239-1020

추가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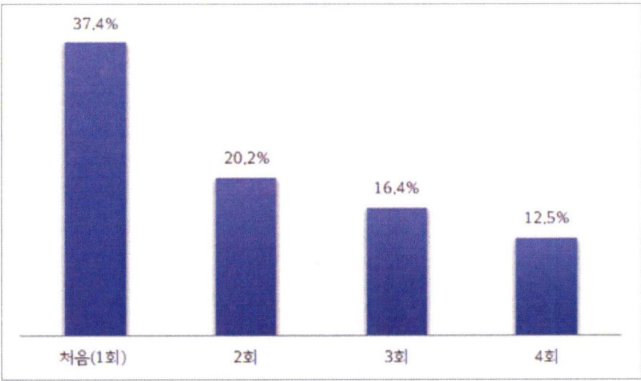


4.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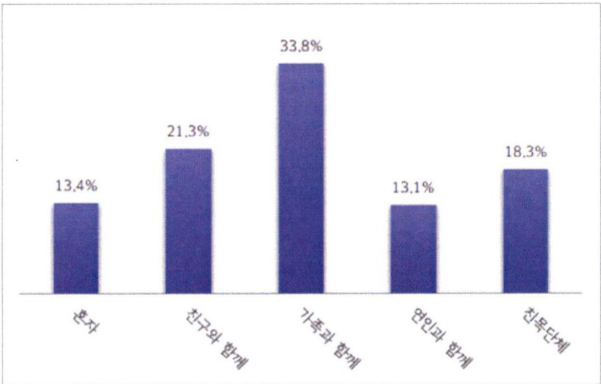
■개요

- 조사대상: 2018 페스티벌31 관람객
- 진행일시: 2018년 10월 3일 11:00~18:30
- 설문방법: 정형화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 회수설문지개수: 612부
- 유효설문지개수: 599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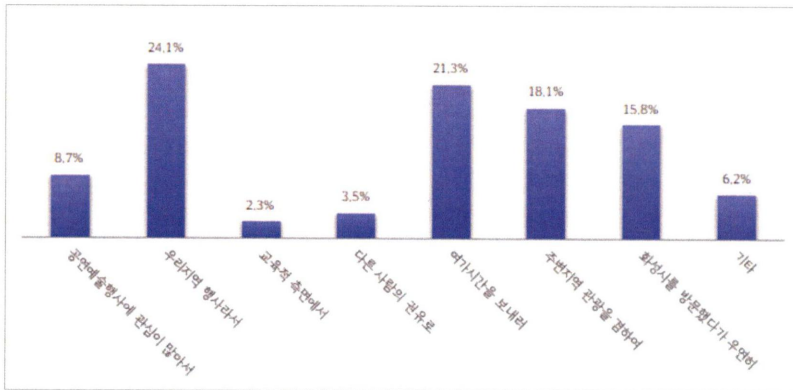
문항1. 귀하는 페스티벌31행사를 관람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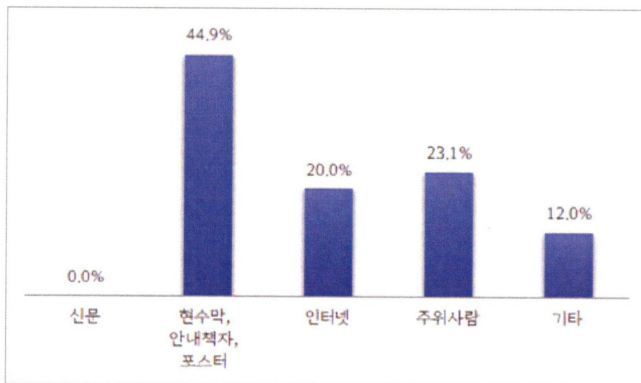
문항2. 귀하는 누구와 함께 관람하러 오셨습니까? (보기 중 한 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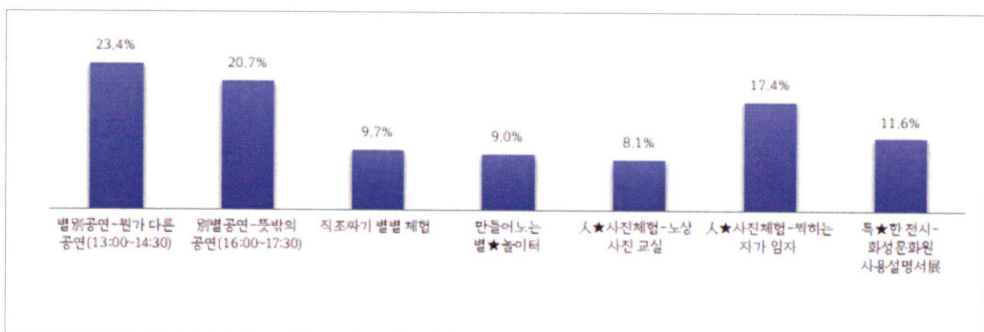
문항3.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를 관람하시게 된 주요 동기는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한 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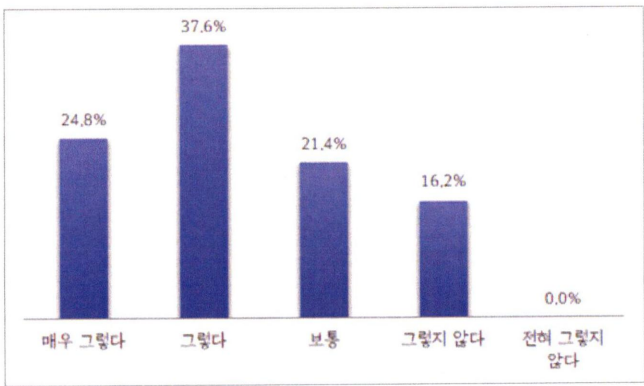
문항4.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보기 중 한 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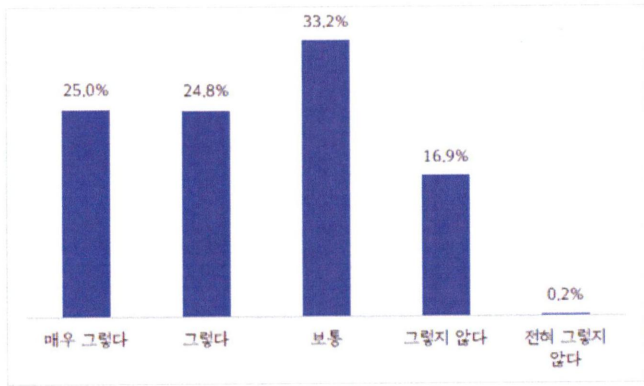
문항5. 귀하는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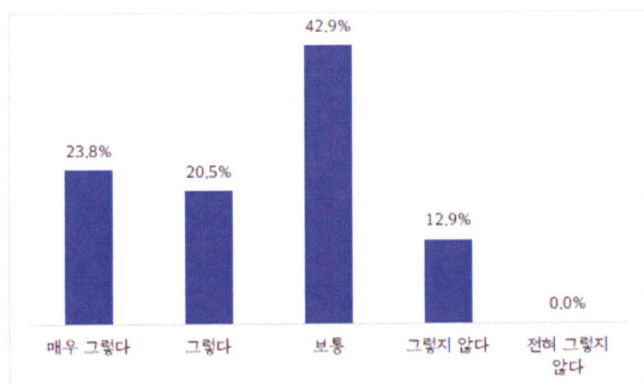
문항6-1. 프로그램 수준은 만족스러웠다.



문항6-2. 행사공간은 적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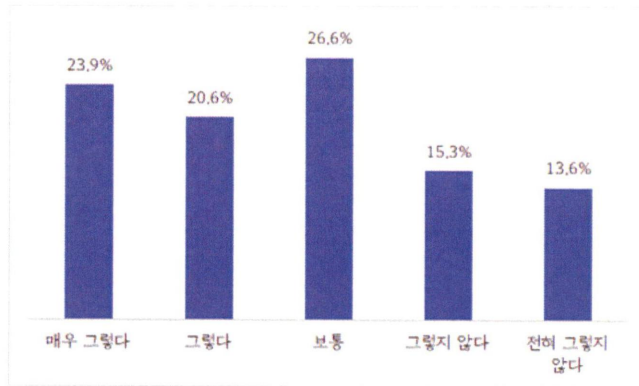


문항6-3.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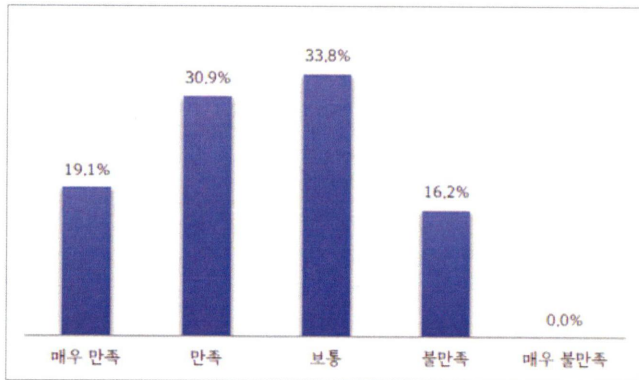


문항6-4. 관람객 편의시설 및 서비스가 잘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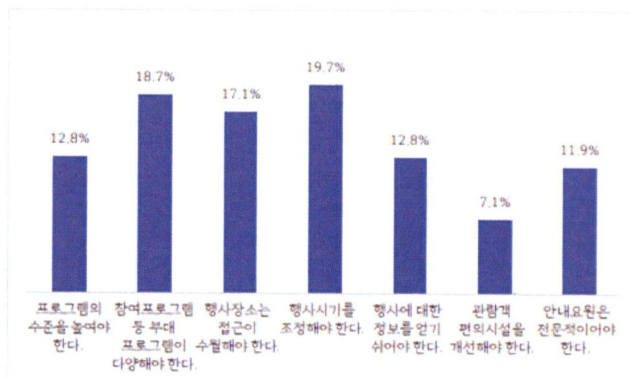
(주차, 휴게실, 화장실, 행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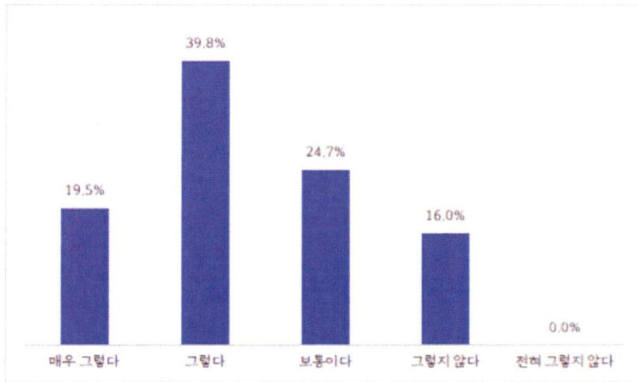
문항7. 귀하는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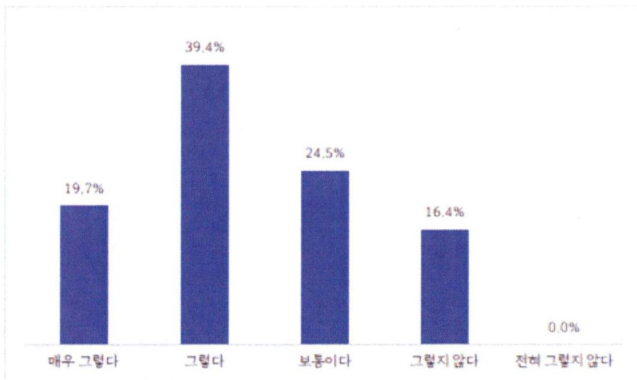
문항8. 귀하는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보기 중 1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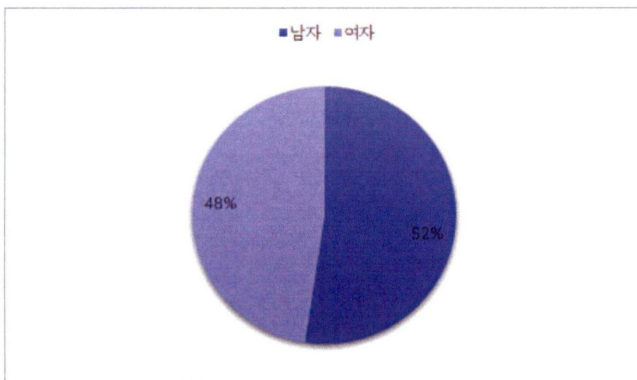
문항9. 다음에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에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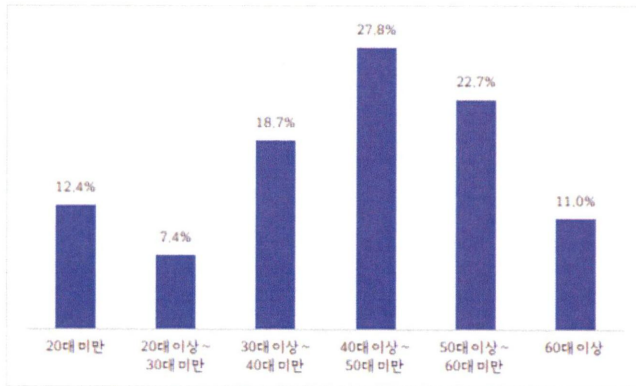
문항10. 다른 사람에게 '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축제를 추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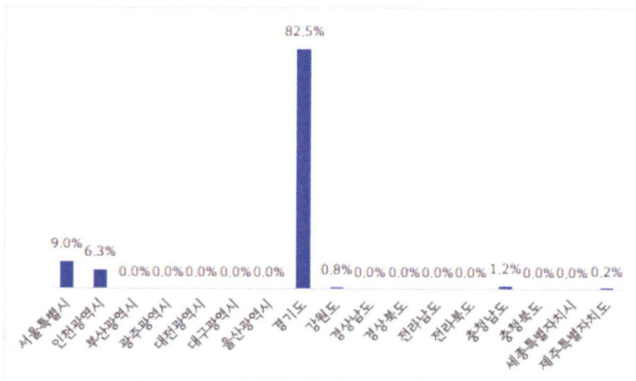
문항11. 귀하의 성별은?



문항12. 귀하의 연령대는?



문항13. 귀하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2018 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31_별별화성4.9.13>

결과보고서

발행인_____엄상덕

편집인_____최영주

주 최_____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_____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후 원_____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화성시, 화성시의회

발행처_____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발 행_____2018년 12월 31일

디자인_____글그림

주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공동주관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화성문화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Global Integ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길이 열리는 화성시 

 의회 화성시의회

본 결과보고서는 2018년 국고 및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비매품)